

건축사 541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14 05
1966년 창간

칼 럼 편집인 칼럼

에 세 이 봄날의 망상(妄想)

건축이 미술작품으로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에너포르
www.kkpc.com

저탄소 녹색성장 공법

건축주의 고민 공사비 절감 !

SLAF® 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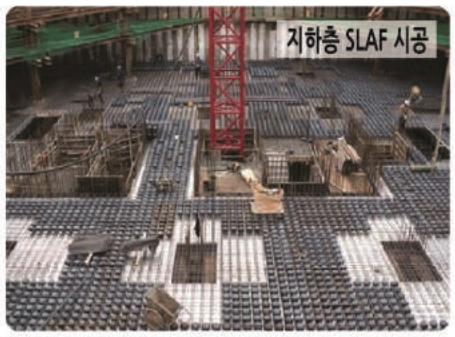
Super Light-weight Air-balled Flat plate System



SLAF 공법과 동일한 김포공항청사의 벌집구조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10%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 완벽한 시공을 위한 현장시공 기술자문 책임수행





SLAF 공법 지하층 및 지상층 모두 적용 가능

건설 V.E. 공법의 NEW 패러다임



[기존 건물] [SLAF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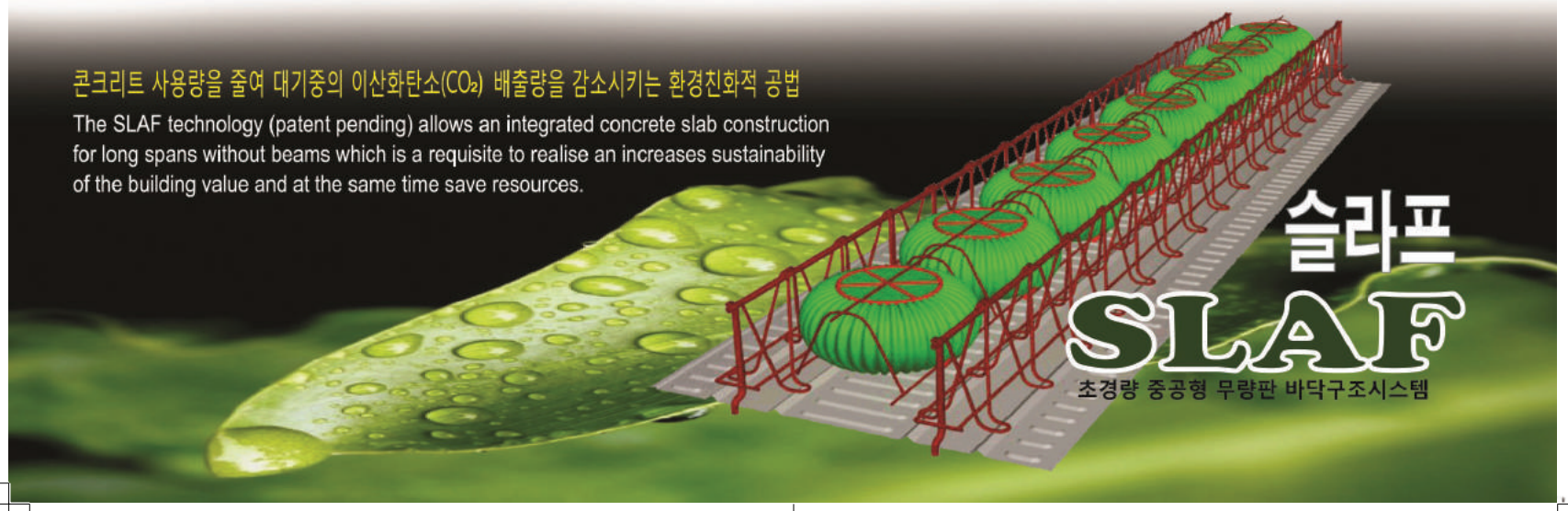
SLAF 공법 층간소음(경량 및 중량) 차단성능 탁월



SLAF 공법 내화성능(2시간내화) 만족

(주)신화엔지니어링 SHINHWA ENGINEERING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 삼광빌딩 2층 T. 02.3481.3885 M. 010.3745.3885
http://www.sh911.co.kr 건축구조기술사/공학박사/대표이사 조상규

(주)신화엔지니어링은 40년 전통의 구조설계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여 구조설계(구조계산서, 구조도면작성), 세움터인증, 현장지원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드립니다.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3길 8, 다동　TEL : 02)333-4448

■ 부산사무소 :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20번길 58-14　TEL : 051)316-4488

■ 본사 및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METRO T&C
METRO TOTAL CONSTRUCTION

강봉 포스트텐션보강

건축물 내진구조보강 설계 · 시공 전문업체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 천 제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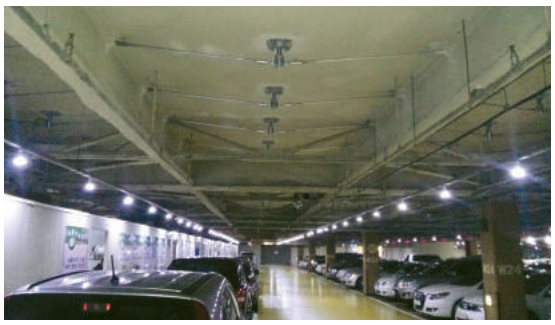
▶ MPT 강봉보강공법 개요

MPT(Metro Post Tension) 강봉보강공법은 보의 부족한 휨모멘트 및 전단력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보의 단부 상단 고정판과 중앙 하부 고정판을 정착하고 고강도 특수강제의 강봉을 유압시스템으로 인장하여 구조물의 보 또는 슬라브를 보강하는 공법이다.

기존의 수동적 보강방법인 강판과 탄소섬유로 부착하여 보강 할 경우, 보강 부재가 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때 기존부재는 보강 후 적재로 인한 추가 변형으로 인해 구조체의 변형이 증가하게 됨으로 균열의 확대 또는 파손의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강판보강이나 탄소섬유보강공법의 경우 상부의 하중을 제거하거나 구조체의 변형을 강제로 회복시킨 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MPT(Metro Post Tension) 강봉보강공법은 기존부재의 변형을 회복시키면서 추가 하중을 구조체와 함께 지지하게 됨으로 구조물의 내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능동적 보강공법이다.





▶ 보강공법의 특징

1. 구조적 안정성
   고강도의 특수강봉을 유압시스템으로 정확한 인장력 계측이 가능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높다.

2. 내화성능
   일반보강공법에 비교하여 에폭시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불연재인 강봉을 사용함으로 내화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3. 친환경적
   미장제거에 따른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않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다.

4. 경제적
   건축물의 천정마감재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비용이 절감된다.

5. 공기단축
   기존 보강공법에 비해 공정을 단순화시켜 공사기간이 약50% 이상 단축된다.

6. 시공성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면 완료됨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주변의 각종 설비 시설등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하다.

7. 품질관리, 내구성
   고강도 특수강봉을 공장에서 가공함으로 품질 관리 및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내구성이 높다.



〈그림 1.4.5c〉 강봉 배치형태(슬라브 V형)



〈그림 1.4.5b〉 강봉 배치형태(보 V형)

메트로 T&C
건축물 내진구조보강 벤처기업

건축물내진보강 벤처기업 www.metrotnc.co.kr E-mail : metrotnc@nav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가든파이브웍스동 A-610호 TEL : 02)402-9395 FAX : 02)402-9396

ISO 9001 CE KAA 아토피 안심마크

불에 타지 않는
천연 세리사이트 페인트

Natural Power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 꿈의 페인트

- 세리사이트는 실내공기 중 습기와 반응하여 마이너스 이온을 방출하며, 상기 마이너스 이온은 공기중에 분포된 양이온을 끌여 당겨 결합하여 산소를 생성한다.
- 세계 최초 공기정화 페인트 (산소발생)
- 국내 및 일본, 독일 특허 제품
- 방염도료 형식승인 제품



WP-101 | WP-102 | WP-104 | WP-106 | WP-110 | WP-111 | WP-111 | WP-500 | WP-501 | WP-504

천연 세리사이트 벽지

- 음이온/원적외선 방출, 결로방지, 실내공기정화, 산소발생, 습도조절, 두뇌발달, 탈취기능, 에너지절감효과, 새집증후군 및 아토피 예방

DONG YANG E&P
(주)동양이앤피
본사 : 충남 서산시 해미면 관터로 148-90
tel : **041-688-9971** fax : 041-688-9970
e-mail : dyep@hanmail.net website : **www.dyep.co.kr**
서울사무소 : 경기도 용인시 죽전1동 1338-1 tel : 031-262-8139
동경사무소 : 일본 도쿄 미나토구 토라노몬 1-5-16 반스이빌딩 2층
tel : +81-3-3503-5889 fax : +81-3-5501-3234

아리랑TV 세리사이트 천연페인트 방송



천안 백석동 아파트

KBS2 열정시대 세리사이트 천연페인트 방송



충남 해미어린이집

21세기
첨단 시스템 도어
JUNGWOO safedoor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OO safedoor

국토해양부 고시 에너지 효율 열관류율 2.1 w/m², k 기밀성 1등급 기자재 전문 생산업체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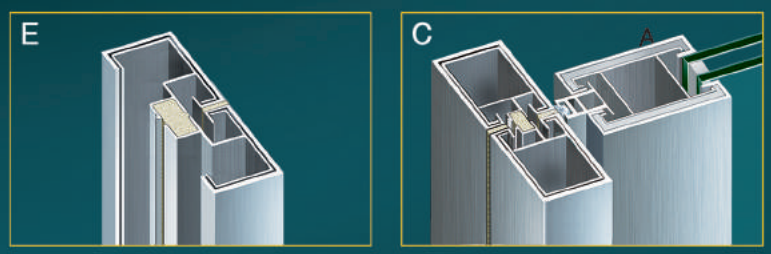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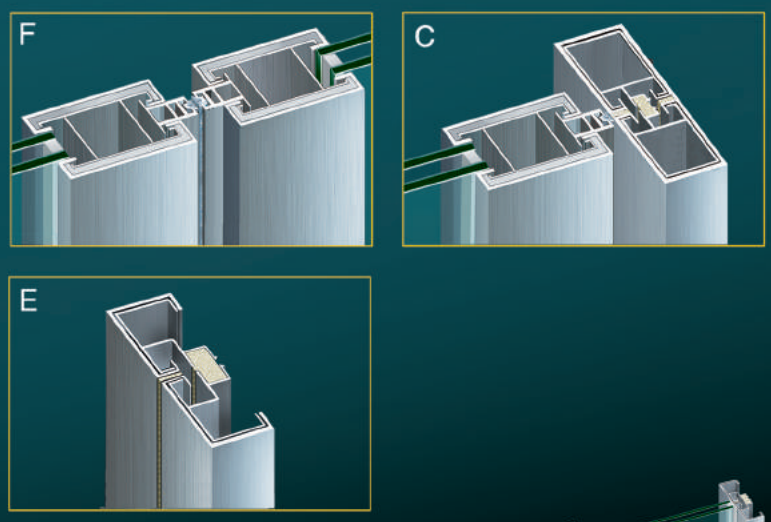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리 • 갈바 불소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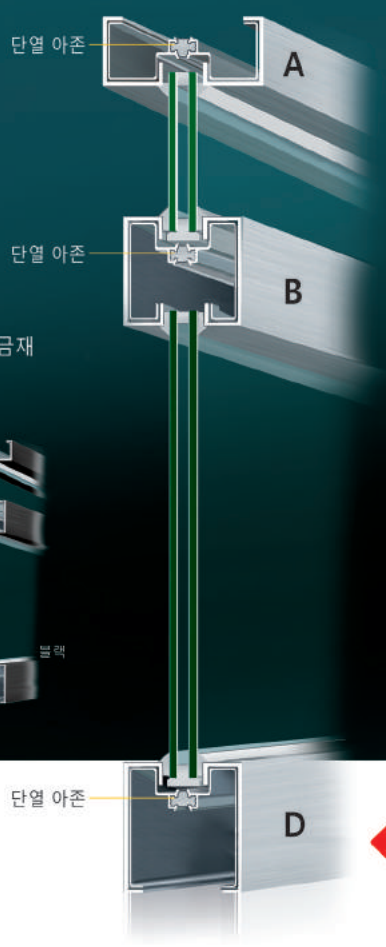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100 x 45 x 2.4T BAR 프레임
*120 x 45 x 2.4T BAR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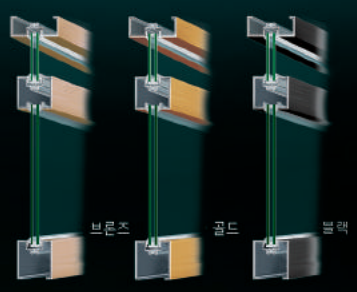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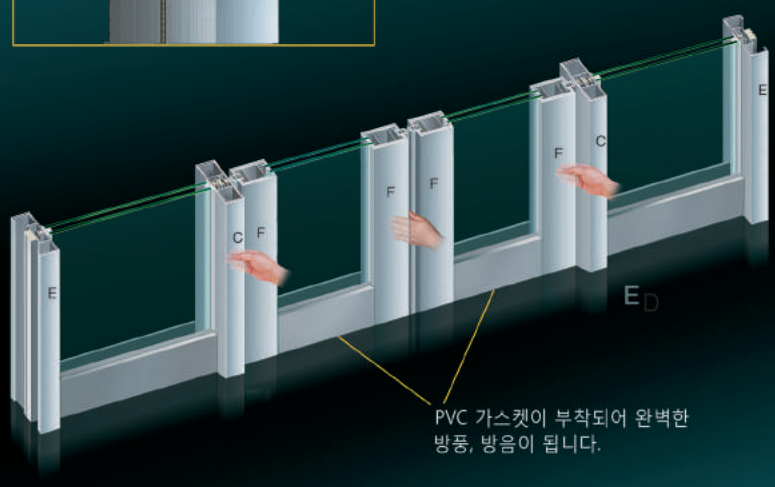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재질/한국산업규격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PVC 가스켓이 부착되어 완벽한
방풍, 방음이 됩니다.

▶ 상세도면 :
홈페이지 캐드 다운로드 검색

▶ 가격표 :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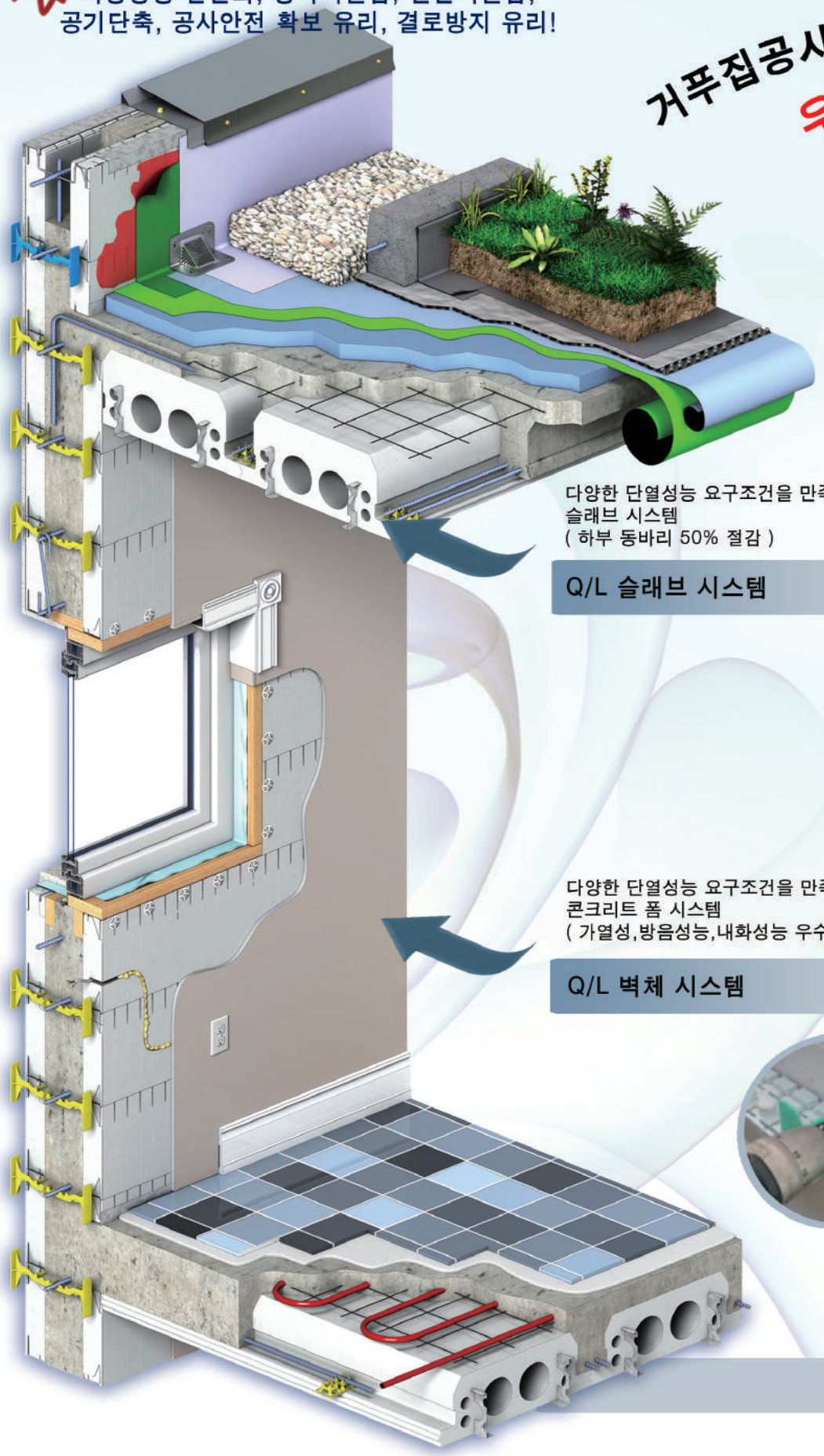
본사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26길 11 (읍내동)
TEL : (053)325-9800/325-9801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 전국 영업망 구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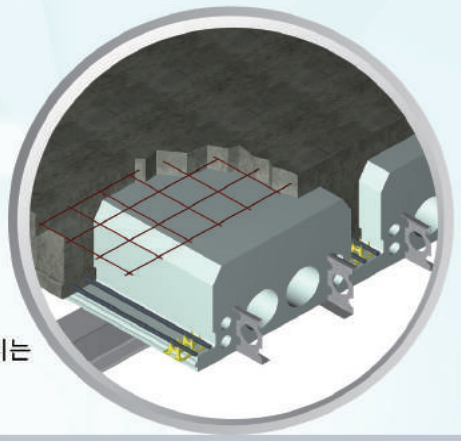
Q/L BUILDING SYSTEMS

Q/L 건축구조 시스템

시공공정 단순화, 공사비절감, 인건비절감,
공기단축, 공사안전 확보 유리, 결로방지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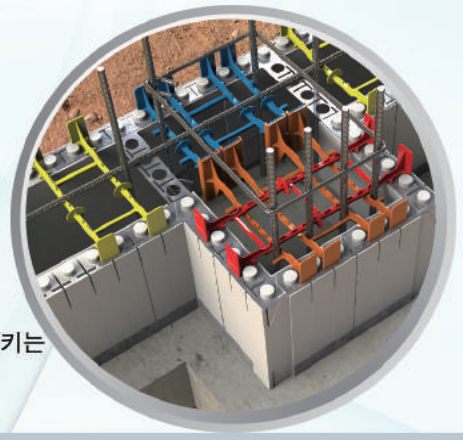


거푸집공사와 단열공사를 한번에!
우수한 시공성에 경제성까지
Quality Level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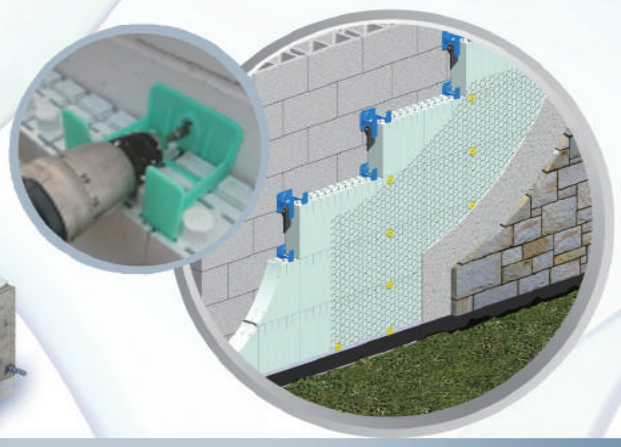
다양한 단열성능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슬래브 시스템
(하부 동바리 50% 절감)

Q/L 슬래브 시스템



다양한 단열성능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콘크리트 폼 시스템
(가열성,방음성능,내화성능 우수)

Q/L 벽체 시스템



Q/L 단열보강 시스템

단열성능이 부족한 구조체에 다양한 단열성능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열보강시스템

우경건설(주) website : http://www.wkcos.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3 월드비터빌딩 6층 * 제품 및 기술 문의 : 031) 710-9245

QUAD-LOCK®



EURO-ZINC PANEL (디자인등록 제30-0658085 / 유사1 / 유사2)

다양한 외관창출과 징크패널의 업그레이드 제품 신소재 준 불연 단열재 시스템패널

기존 패널의 단조로운 색상과 형상에서 벗어난 샌드위치패널의 최종 집대성 된 패널입니다.
준 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여 현존하는 샌드위치 패널의 장점만을 극대화한 21세기형 최첨단 친환경 패널입니다.
지붕과 벽을 혼용할 수 있는 파형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FREE-METAL PANEL (특허 제10-1219639호)

서진공영의 프리메탈패널은 준 불연재이며 고품격 디자인을 바탕으로 비용절감과 코너마감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시공상의 우수성과 강도로,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으로, 서진공영만의 프리메탈패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축문화의 신창조자
서진공영주식회사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246번길 7(오류동 438-84)
공장 :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395번길 108(석정리 32-1)
TEL. 032-563-0020 FAX. 032-563-8813
www.i-seojin.co.kr / www.i-seojin.kr

"10년 후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4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십시오."

최저 인승

Mi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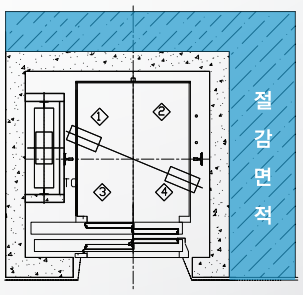
200년 전통의 티센크루프

전격 출시 & 독점 공급

시너지 4인승 엘리베이터 들어보셨습니까?

국내에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의 98%는 8인승 이상.

"승강기 꼭 클 필요있나요?"



8인승 vs 4인승(side open)
승강로 면적비교

최소 승강로 사이즈 구현
외벽포함 2.89m²=0.87평 | W1400 X D1400mm (내경)

독일 로프/권상기 기본 채용

차별화된 고급 패키지 디자인
2013 굿디자인 최우수상 등 5관왕



작은 투자가 귀하의 건축물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공간, 비용 때문에 승강기 설치를 망설이십니까?

설치사례



근린생활시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 1-3층은 상가, 사무실이 있고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
- 좁은 공간을 활용해 4인승 시너지 설치
- 최고층 접근성 향상



도시형생활주택 (경기도 광주시)
- 분양면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승강기 설치를 망설인 현장
- 최소 승강로 사이즈의 4인승 시너지 설치
-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편리한 이동 동시에 보장



모텔 (경기도 이천시)
- 모텔을 리모델링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신규 설치한 사례
-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4인승 시너지 엘리베이터 설치

www.thyssenkrupp-elevator.co.kr
문의 : 02) 2610 - 7698, 7741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ThyssenKrupp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 천정 결로방지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의 에너지효율 및 내열성능 시험결과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냉·난방비는 낮추고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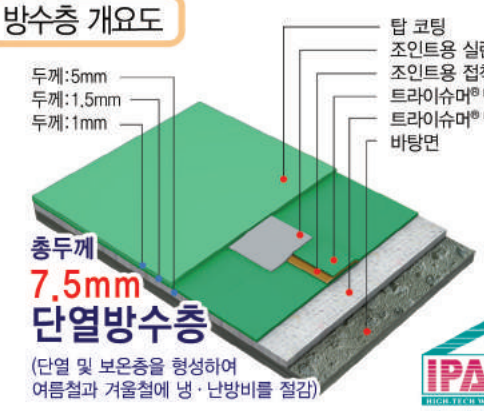


여름철 실내온도 3~5℃ ↓ 전기료 30~40% ↓ 냉방비 절감

겨울철 실내온도 3~5℃ ↑ 난방비 15~20% ↓ 난방비 절감

내열성능 시험결과		
시료명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열에 의해 변형이 된 길이 (200mm 기준)	0.1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 5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 흘러내림길이(mm)	
결과 이미지	 변형이 거의 없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시트에 주름이 발생하거나 파단됩니다.
시험방법	가로와 세로길이가 각각 200mm가 되는 시편을 80도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 열변화에 따른 길이변화와 겉모양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시험기준	KS F4917: 2007	
시험기관	한국 건자재시험 연구원	

방수층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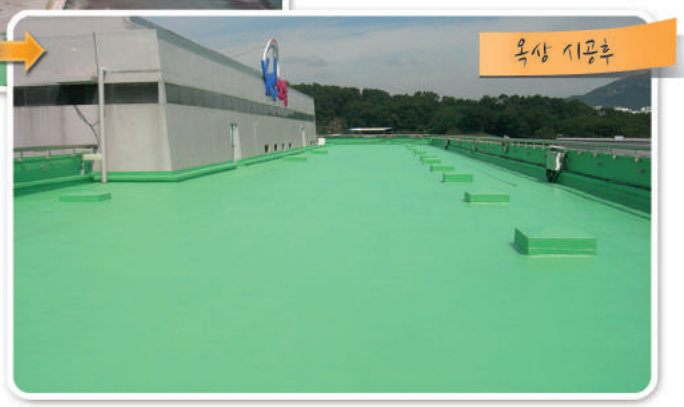
총두께 7.5mm 단열방수층

(단열 및 보온층을 형성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비를 절감)

시공사례모음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공법 • 신뢰받는 회사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TOTAL & HIGH-TECH WATERPROOFING CO., LTD.

스마트폰으로 QRcode를 스캔해보세요

www.ipalg.co.kr

이파엘지.kr

본 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327번길 52 Tel : 032) 471-6020 FAX : 032) 467-1904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조립식 패널 전문 설계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난 신개념 메탈패널

CUBE METAL

큐브 메탈패널은 서로 다른특징을 가진 4종의 타입이 기능적인 조인트 설계로 상호 조합되어 건물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 줄눈디자인
  다양한 너비와 깊이
  독특한 경사형 디자인
  자유로운 세로줄눈 간격

- 기능성
  타입별, 두께별 상호결합
  다양한 단열재
  누수방지 결합구조

- PIR
- GLASSWOOL
- ROCKWOOL

*특허 : 제 10-2011-0139926호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발전용 패널

SOLAR Roof

솔라루프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패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 부자재가 필요 없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발전용 패널입니다.

*특허 : 제 10-1175115호

- 누수방지
  볼트리스타입으로 모세관현상 방지 및 깔끔한 외관
- 시공성
  기존 태양광 모듈 설치의 중복공사 감소로 인한 자재비 절감효과
- 경제성
  뛰어난 단열 및 전력생산의 경제적 효과
- 확장성
  일반지붕형 외에 경사형, 외벽형의 다양한 설치 시스템



- PIR / PUR

❖ **누수 10년 보증** (타사 2년 보증)
(태양광설비 최적 설치시공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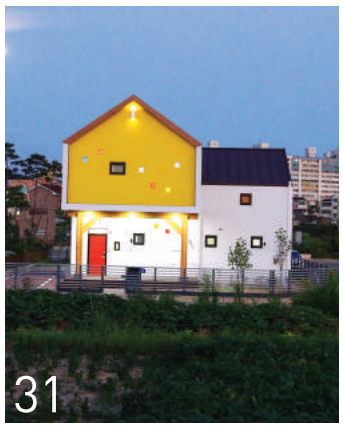
www.sypanel.com
에스와이패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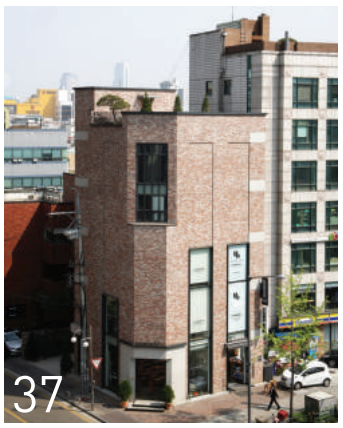
기술영업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7길 5 효제빌딩 301호
TEL. 02)501-8480 / FAX. 070-7500-0775
본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1(세류동) 리치타워 7층 TEL. 1588-0680 / FAX. 031)221-5458

KIRA Magazine
2014 May
no.541

Contents


24


31


37

COLUMN 편집인 칼럼

017 **편집인 칼럼** Editor's Column

ESSAY 에세이

018 **봄날의 망상(妄想)**
Delusion in Spring Day
최상철

020 **건축이 미술작품으로**
Artworks from Architectures
변지혜

CONGENIAL SPACE 空間共感

022 한정훈

WORKS 회원작품

024 **제주스테이 비우다**
Jeju Stay Biuda
방철린_KIRA | 칸 종합건축사사무소㈜

030 **익산 티(T) 하우스**
Iksan T House
김동희_KIRA | 건축사사무소 KDDH

036 **아비뉴 636**
Avenue 636
강병훈_KIRA | ㈜건축사사무소 대흥스페이스

042 **메리고라운드 빌딩**
Merry Go Round Building
변문수_KIRA | 무운 건축사사무소㈜

048 **현대지식산업센터**
Hyundai Knowledge Industrial Center
왕정한_KIRA | ㈜건축사사무소 아라그룹

WALKING THROUGH THE FOREST OF BOOKS 책 속을 거닐다

055 **강신주의 눈으로 본 김수영을 생각하며**
Thinking of Kim Sooyoung through Kang Shinjoo's Perspective
김수경

READING LOVE LETTER 연애편지를 읽다–열 한번째이야기

056 **쇼팽은… 자신의 전부를 제게 바친 유일한 사람**
Chopin is… the Only Person that Devoted his Whole to Me
정이숙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건축과 법률이야기

058 **건설감정**
Construction Appraisal
김재환

KOREAN ARCHITECTS
건축사

SERIAL Ⅰ 연재 Ⅰ / 건축과 삶 ⑤

062 **현대도시들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
The Reason Why Modern Cities are not Beautiful
유현준

SERIAL Ⅱ 연재 Ⅱ

066 **호서은행본점의 입지배경과 그 도시적 의미(3/3)**
Background in Situating the Ho-Seo Bank(HQ), and Its Urban Meaning
김영재, 김득수

SERIAL Ⅲ 연재 Ⅲ / 라이트 vs. 미스(2/4)

074 **라이트_ 전설이 되다_ 낙수장과 구겐하임**
Wright_ The Legend_ Fallingwater and Guggenheim
천장환

SERIAL Ⅳ 연재 Ⅳ/ 근대건축사 ⑭

082 **식민지배체제의 구축과 도시 그리고 건축의 변화3_ 경복궁**
Architecture and Urbanism in Building the Colonial Regime in Korea 3_ Kyongbokgung
안창모

FEATURE 기고

092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정보센터(ArchiDB) 활성화 방안**
A Plan to Activate the Architectural Information Center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김득수

NOTICE 공고

096 **2014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Korea Architecture Award 2014

ARCHITECT'S PLAZA 건축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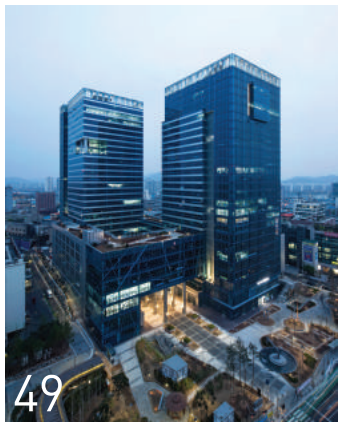
100 **협회소식** Kira News

103 **건축계소식** Archi-Net

104 **해외건축동향_** 김은미 Overseas News Review

106 **통계** Statistics


43


49



표지사진 :
강병훈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대흥스페이스
사진_ 손석원

www.KIRA.or.kr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4년 5월호(통권 541호)

발행인 김영수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형수
취재 · 편집 최락청, 백상월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건축사회관
전화 02-3415-6800
팩스 02-3415-6850
홈페이지 www.kira.or.kr
디자인 · 인쇄 화신문화㈜ 02-2277-0624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02-3415-6862~5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Kim, Hyung-soo
Reporter Choi, Rak-chung / Baik, Sang-worl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안내

- 최근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건축공사감리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우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우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론지 격주간 〈건축문화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 · 상담 및 대정부 건의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 · 도건축사회에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4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에 한함)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원(입회시 1회) • 월정회비 : 3만원(매월) • 시 · 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또는 월정회비) : 해당 시 · 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 · 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 월정회비 : 6만원(매년)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 건축문화발전 사업자금, 협회 중장기 발전사업자금

– 정회원 및 준회원회비 : 협회조직관리 및 운영자금

■ 본협회 및 시 · 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3415–6855	대 전	042–485–2813	485–2818	전 북	063–251–6040	251–6048
서 울	02–581–5715	523–2284	울 산	052–274–8836	268–8837	전 남	061–285–7563	285–7567
부 산	051–633–6677	634–2966	경 기	031–247–6129	242–7072	경 북	053–744–7800	751–8308
대 구	053–753–8980	756–9049	강 원	033–254–2442	255–2083	경 남	055–246–4530	245–4530
인 천	032–437–3381	437–3385	충 북	043–223–3084	223–3089	제 주	064–752–3248	756–3248
광 주	062–521–0025	528–0026	충 남	042–252–4088	252–518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 · 도건축사회 또는 우리협회 실적관리팀(☎ 02–3415–685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같지 않은 5월에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수필가 피천득은 『오월』이라는 수필에서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 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비취가락지다. 오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오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오월은 무엇보다도 신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신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오월 속에 있다.'라고 계절의 여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은 유난히 춥고 우울합니다.
꽃을 봐도 눈물이 나고, 학교 가는 고등학생들을 봐도 눈물이 납니다.
멀쩡히 살아 배부른 게 미안하고, 크게 웃는 게 미안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23일째인 5월 8일.
사망자는 272명으로 늘었고 아직도 찬 바다 속에 잠긴 실종자가 32명이나 됩니다. 겨우 열일곱, 피지 못한 어린 꽃봉오리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와 하나뿐인 오빠를 잃은 여섯 살이 있고, 카네이션 달아 줄 아들 딸을 잃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살아서 더 이상 엄마 아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아이들입니다. 살아서 더 이상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지 못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엄마 아빠들입니다. 도대체 왜, 왜 우리는 배 안의 중한 목숨들을 하나도 건져 올리지 못했을까요?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 탓만은 아닌 것 같아, 우왕좌왕하는 해경이나 다가오는 선거에만 더 신경 쓰는 정치인 탓만은 아닌 것 같아 아프고 불편합니다. 살면서 내가 무심코 보아 넘겼던 부조리들이, 관행이라고 눈감았거나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외면했던 불의들이 모여 세월호를 바다 밑으로 침몰시킨 것만 같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사람의 생명이 아낌 받는 세상이 되도록 천천히라도 조금씩 바뀌어야 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노란 리본의 글귀를 믿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기적을 바라는 염원으로 엮은 5월의 건축사지가 회원분들께 잠시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평범한 인사가 새삼 귀하게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글. **최상철**_ Choi, Sang-chuel, KIRA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

봄날의 망상(妄想)

Delusion in Spring Day



전북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전주에서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건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애일당」, 「주남헌」, 「마중헌」, 「연백당」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내 마음을 두드린 우리건축」, 「내가 살던 집 그곳에서 만난 사랑」, 「전주한옥마을(공저)」 등이 있다.

초록(草綠)

앞산 뒷산에 진달래 피고, 다시 또 초록은 한껏 푸르러졌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매번 맞이하는 풍경이지만, 봄이 지닌 생명력은 볼 때마다 경이롭게 다가온다. 아마 지금까지 어느 화가의 붓질도, 어느 음악가의 연주도, 또 어느 건축사의 공간구성도 저만큼 다채롭고 싱그럽지는 못했으리라. 녹음이 점점 더 짙어져가는 요즘 같은 사월, 이른 새벽에 우두커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겨우내 막혔던 생기가 마치 분수처럼 "녹색"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이러한 날에는 설사 아무리 시절 변화에 둔감할지라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초록으로 변해가는 이 아침풍경에 잠시 한눈을 팔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저 먼 산이 자유발랄하게 우거지는 풍광을, 그냥 단순히 "녹색"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좀 민망한 일이지만, 봄은 일년 사시사철 중에서 녹색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어지는 계절인가 보다. 사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또 저만한 초록을 이렇게 맘껏 즐길 수 있으랴. 더구나 아침햇살의 확산속도에 따라 전개되는 그 농담(濃淡)은 가히 절경이다. 삼사월이 다르고 사오월이 시시각각 달라진다.
초봄에 갓 싹이 돋기 시작한 여린 이파리에서 볼 수 있는 연두색에서부터, 점점 뜨겁게 쏟아지는 일사량과 농도에 따라 녹색도 정말 각양각색이다. 이른 봄에는 연록과 연초록이 가득하다가 온 산천이 점점 더 진한 초록으로 물드는가 싶더니, 어느새 청록을 거쳐 연청(軟靑), 군청(群靑), 감색(紺色), 남색(藍色), 심지어 보라색까지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정도로, 봄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다채로운 변화를 연출해주고 있는 것이다. 먼셀표색계인들 어찌 저리 다양한 초록을 죄다 구분해낼 수 있으랴. 그래서 녹색이라고 하면, 그저 "5G 5/8"정도로 표시하고, 단순히 그린(green)이라고 분류해 놓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봄마다 이렇게 녹색의 향연에 초대되어 이토록 한량없는 안복(眼福)을 누리는 것도, 사실은 모든 식물의 일반적인 "생명작용"이라는 것을 알면 다소 싱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녹색식물은 햇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 모두 다 저 먼 태양에서부터 이 지구로 쏟아지고 있는 햇빛과 식물의 엽록소가 연출해내는 "빛의 잔치"라는 얘기다. 엽록소는 엽록체 속에서 빛을 흡수하여 이산화탄소를 유기화합물인 탄수화물로 동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엽록소의 빛깔이 녹색이기 때문에 엽록체가 녹색으로 보이고, 따라서 식물의 잎도 녹색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봄날의 저 다양한 녹색의 천변만화(千變萬化)도,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우리는 해마다 봄이 되면 거기에서 그 오묘한 생명의 기쁨을 오롯이 만끽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이야 어떻든 이 봄이 연출해놓은 "녹색의 잔치"가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저런 상념에 젖어있자니, 괜스레 "봄날은 간다"라는 대중가요 한 토막이 아까부터 자꾸만 달착지근하게 입에 물린다. 그리곤 어느새 노랫말에 담긴 아련한 풍경이, 바로 어제 직접 본 듯 정겹게 다가온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 편지 내던지며
청노새 짤랑대는 역마차 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앙가슴 두드리며
뜬 구름 흘러가는 신작로 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전문

리모델링

정말 오는가 싶더니, 봄은 어느새 스리슬쩍 사라지고 있다. 아마 그게 봄의 속성인가 보다. 참, 계절치곤 짧고 여린 녀석이다. 야속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더 아쉽고 허전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떠나고 사라지는 것은 비단 봄과 뭇 생명체뿐만은 아닌 것 같다. 며칠 순연(順延)을 했다가 일부러 봄비가 내리는 날로 택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에서 마당으로 힘없이 툭툭 떨어져 내리는 부연과 서까래 사이로, 낡은 한옥 한 채가 소리 없이 해체 당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저 집도 한때는 어느 누군가의 알뜰살뜰한 보금자리였을 테고, 때로는 왁자지껄한 행복이 담 너머까지 넘쳐났을 텐데, 그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난 지금, 촉촉이 내리는 봄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날품팔이로 뛰어든 인부들의 고단한 손에 의해서 그 흔적이 하나둘 지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도 완전철거가 아닌 듯, 기둥과 대들보는 원형이 유지된 채 해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은 비록 낡고, 늙고, 병들어서 무참하게 해체 당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다시 옛날 그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이른바 "리모델링"의 전초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오랜 풍파 속에서도 "주요 구조부"라고 불리는 기둥과 대들보가 그나마 웬만하게 남아있으니, 그걸 그냥 해체하지 않고 쓸모 있게 재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망상(妄想)

아니…, 그래도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 건축처럼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요즘 이곳저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노인요양원을 거치든,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 결국 모두 다 흔적 없이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다. 사실 그게 우리 유한(有限) 생명체의 숙명이자, 또 이 우주자연의 질서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떠나는 날이라도 미리 받아두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아니, 어느 고승(高僧)처럼 모일모시(某日某時)에 절명하겠노라고 선언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 반복되어 돌아가는 이 사시사철 중에서, 그 어느 계절 하나만이라도 내 스스로 선택해두고 싶어졌다. 사실 누군가 미리 묘비명을 썼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정작 떠날 때(時)를 잡는다고 생각하니, 그건 몹시 어쭙잖고 우스운 일이었다. 그래도 내친 걸 어쩌랴. 일년 삼백육십오일, 그 하고 많은 날 중에서 초록이 막 우거지기 시작하는 이맘때 사월이, 아까부터 자꾸만 내 머릿속에서 뱅뱅 맴돌아 나가고 있었다. 아마 오월처럼 가슴 한복판에 아린 상처가 없어서 좋고, 또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아서 편한데다가, 이곳저곳에서 싱그럽게 피어나는 생명력의 기운이 하루하루 다르게 느껴지는 이 시절을 예전부터 유난히 좋아한 탓이리라.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먼 훗날 이 싱그러운 사월 어느 하루 날을 잡아 훌쩍 떠나고 싶다. 그래야 우선 뒷일을 하는 이들이 편하기도 하려니와, 잦은 봄비가 흙을 더 다독거려주기도 하겠고, 게다가 머지않아 푸른 잔디마저 무성해질 것이며, 또 조금 더 지나 그 화려한 오월이 다가오면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 잔치에, 아마 한때 이별의 아픔에 몸부림치던 이들도 모든 것을 쉬이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아! 아지랑이 가득한 이 봄날, 봄기운에 취한 망상이 좀 지나쳤나보다.


화창한 봄날을 알리는 벚꽃


상여 타고 돌아가는 길

글. **변지혜**_ Byun, Ji-hye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건축이 미술작품으로

미술작품의 영감이 되고 있는 건축

Artworks from Architectures



홍익대학교에서 광고홍보학과 예술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미술경영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지난 4월 9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9월부터 시작될 전시 〈SeMA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4〉(9. 2~11. 23)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미술계에서는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비엔날레들(광주비엔날레, SeMA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로 이미 올해 초부터 각종 예측과 논란이 붉어져 나왔다. 그만큼 미술계에서는 비엔날레가 큰 이슈다.

이번에 치러진 간담회는 '미디어시티 서울' 2014의 주제 〈귀신, 간첩, 할머니〉를 발표하고 주요 초청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간단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각종 언론을 통해 주제가 대대적으로 소개되었다. 영화 〈만신〉의 감독이자 한창 활동 중인 작가이며 이번 '미디어시티 서울' 2014의 예술감독인 박찬경 감독은 비엔날레 주제에 맞추어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2명의 작가를 소개했다. 한 명은 한국작가 최원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일본작가 타무라 유이치로였다. 이 두 작가의 공통점은 건축물이 담은 역사와 이야기를 비주얼아트 작업으로 풀어낸다는 점이다. 미술계에서 건축과의 거리가 한층 더 좁혀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최원준 작가는 건축적 공간과 장소가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카이브 설치와 영상작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작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SeMA비엔날에서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라는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작업은 1970년대부터 아프리카의 여러 독재국가들이 초대형 동상 제작 당시 북한의 예술가와 기술자들도 참여했다는 기사를 접하며 시작되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다. 그들이 건설한 기념비와 동상, 건축물에 대해 시각예술 작가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작품을 짧은 영상으로 만든 트레일러로 제작했다. 여기서의 기념비와 동상들은 엄청난 규모로 지어진 랜드마크 혹은 그 이상의 것으로, 일종의 건축물과 같은 것이었다. 건축물 혹은 건축물과 미술작품 사이에 놓인 공공미술작품으로서 일련의 작품들을 작가의 시선으로 읽어내고 사회적 맥락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창작물로 재창조한 것이다.

일본작가 타무라 유이치로(Tamura Yuichiro)는 직접 찍은 이미지뿐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비가시적 영역을 독특한 관계로 끌어들인 새로운 풍경을 선보인다. 물리적인 존재와 경험의 요소들을 융합시키는 설치부터 관객을 끌어들이는 퍼포먼스까지, 작품의 형태도 다양하다. 재미있는 점은 타무라 유이치로가 이번 전시에서 서울시립미술관 건물을 소재로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미술관 건축물과 대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및 과거 법원이었던 건물의 용도,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사건들과 인물, 미술관의 컬렉션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제작한다고 밝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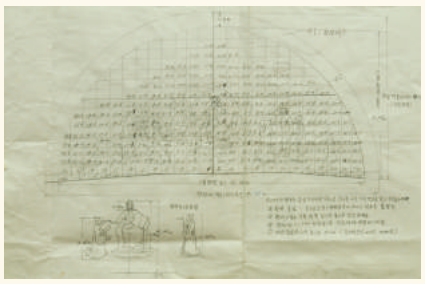
서울시립미술관은 1899년 조선제국을 선포한 고종황제가 세운 최초의 근대적 사법기관인 평리원이 있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에는 경성재판소가 건축된 곳이다. 건물은 해방 이후부터

1995년까지 대법원으로 사용되다가 대법원의 서초동 이전과 함께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으로 탈바꿈 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의 파사드는 당시 노후한 건축물의 형태를 최대한 남기기 위해 舊경성재판소의 원형을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만 헐어 재건축했다. 덕분에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법원의 기억과 예술의 향기가 혼재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유이치로는 이러한 미술관 건물의 역사적 흔적을 따라 다니며 정동을 누비고, 한국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일본 국가기록문서를 헤집어가며, 그 안에서의 전체적 맥락뿐만 아니라 건축물 안에서 발생한 개별적 판례를 바탕으로 그가 원하는 비가시적 영역인 기억과 사건을 좇고 추리하고자 한다. 미술관 앞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의 의미를 기록한 홍보물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유이치로의 작품은 그와 별개로 작가의 시선으로 본 비가시적 영역을 포함한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서울시립미술관 파사드 가을 전경/출처 ©서울시립미술관





최원준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중.
2014, 3채널 HD 비디오, 약 20분

미술관에서 건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미감, 의미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역사와 기억 등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으로 풀어내는 작가들이 보다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 덕수궁 프로젝트는 이를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9개의 팀 혹은 개인 작가들이 덕수궁의 9곳에서 해당 공간의 기억과 의미를 재해석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작품을 창작했던 매우 신선한 프로젝트로, 건축물과 작품이 상호 교차하고 그 경계를 넘나들며 작품은 건축물의 역사와 의미를 읽고 해석하고, 건축물은 작품의 영감이 되어 서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다.

건축과 미술이 멀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 경계 또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다시 보고, 새롭게 읽어내는 이러한 시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더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최원준 작가와 타무라 유이치로의 완성된 작품이 기대된다.



타무라 유이치로 〈A dream I dreamt in a forest〉 2013,
Sculpture(Mask), Film, Kuala Lump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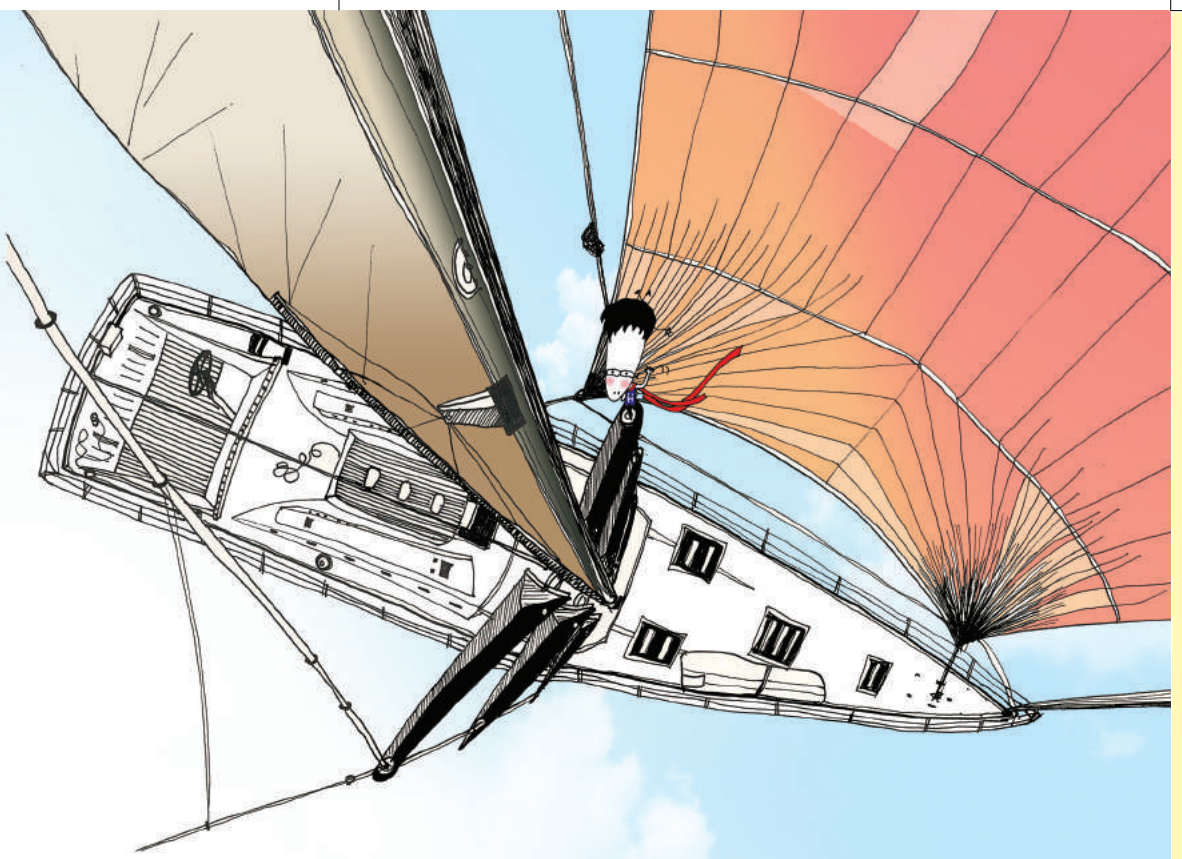
타무라 유이치로 〈Deep Marsh〉 2012,
Text, Museum Collection, Installation in the basement parking lot place,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22 ***CONGENIAL SPACE***

空間共感.

노들섬(Nodeulseom)

길쭉청년 **한정훈** | 2000family@naver.com
•
Design Hunters 대표
AM Group 대표이사



"잊혀진 공간"

조선시대 때부터 우물물을 왕실에 바치던
중지도라 불리던 한강의 작은 섬.
잊히고 버려진 공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누리며 추억을 남길 만한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24 WORKS

회원작품.

제주스테이 비우다

Jeju Stay Biuda



설계자 | 방철린_KIRA | 칸 종합건축사사무소㈜

한양대학교를 졸업, 공간연구소에서 공간사옥 등의 건축작업을 통하여 김수근으로부터 건축사상을 사사하였고, 정림건축에서 10여 년간 건축경력을 쌓았으며, 1991년에 설립한 ㈜인 · 토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이후 개명한 칸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재까지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1992년 4 · 3그룹 건축전을 비롯하여 이후 많은 건축전과 드로잉전에 참여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와 한국건축가협회 명예건축가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이다. 1999년 대통령표창과 2009년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아카시아(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우수건축상 금상과 함께 다수의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과 한국건축가협회작품상 그리고 대한건축학회 건축작품상을 수여 받았다.

- 설계팀 : 박상욱, 곽상혁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세진에스씨엠
  - 기계설비 : 보우기술공사
  - 전기분야 : 대경전기설비사무소

건축주 | 권지인, 이기숙

감리자 | 방철린

시공사 | 권지민

대지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1534

주요용도 | 숙박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2,031㎡

건축면적(Building Area) | 260.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2.8%

용적률(Floor Area Ratio) | 14.78%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마감재 | 노출콘크리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05 ~ 2012. 09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10 ~ 2013. 09

Client | Kwon, Ji-min / Lee, Gi-sook

Architect | Bang, Chul-rin

Project team | Park, Sang-wook / Kwak, Sang-hyuk

General Contractor | Kwon, Ji-min

Location | 1534, Saekdal-dong, Seogwipo-si, Jeju-do,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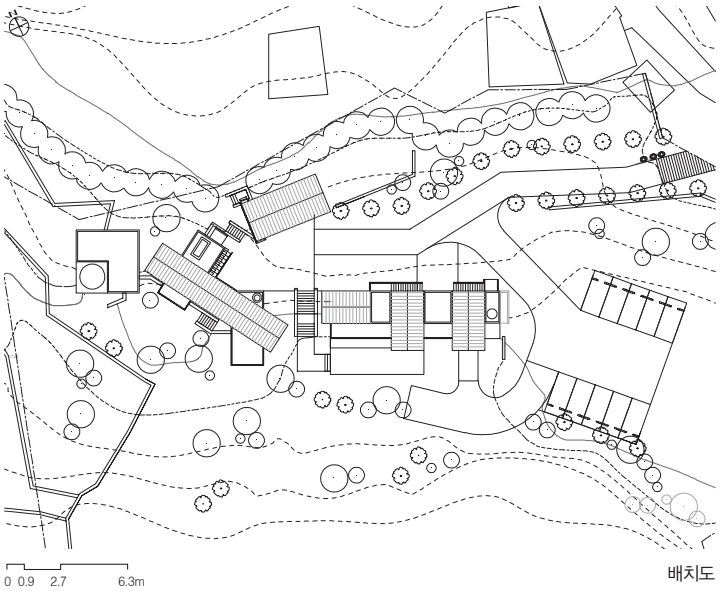
Structure Engineer | Sejin SPM

HVAC & Eletrical Engineer | Bow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Daekyung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Concrete





배치도



전경

제주의 남부는 동서방향으로 횡단하는 세 개의 도로가 지역 간 연결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 한라산 쪽으로 가장 높은 길이 '산록남로'이고, 그 아래쪽 길이 '중산간로', 더 아래쪽이 '일주로'로 이 세 개의 도로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순환한다. 「제주비우다」의 부지는 중문 관광단지 북쪽의 '중산간서로' 바로 남측에 위치한다. 부지는 해발 148m 지역으로 남서쪽방향으로 가파도와 마라도가 보이는 울창한 귤나무 숲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경사가 약 12%인 비교적 완만한 자연경사지로, 대지는 물론 주변에도 나무가 많고 돌담들이 밭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 제주특유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곳 「제주비우다」는 이러한 풍경 속에 자리 잡은 전원의 머무름 공간으로, 바쁜 도시생활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잠시 도시를 잊고 떠나와 힘겨운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건축주와의 대화를 통하여 건축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건축계획의 방향을 잡아나갔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했던 것은 가급적이면 부지가 가지고 있는 제주 특유의 자연스런 전원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인공적인 냄새를 가급적 갖지 않게 하는 것과 이곳에 머무는 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일탈을 꿈꿀 수 있는 개성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었다. 마음을 편하게 갖고 산책하고 자연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을 그대로 살리는 집을 짓자는 것과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각자가 각기 다른 개인공간에서 각기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성 있는 공간을 구성하자는 것이 주된 생각이었다. 프라이빗 공간도 개성을 살리기 위하여 욕실에서부터 침실에 이르기까지 실마다 디자인과 조건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정리하고 디자인 하였다. 첫째로 편안한 음악과 함께 차를 마시고 전원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카페 : 때때로 힐링을 위한 라이브 콘서트를 비롯 각종 문화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둘째로 너른 초록빛 귤밭 풍경의 근경과 멀리 펼쳐진 바다의 원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양한 위치 다양한 형태의 마당들로 이 공간들은 어프로치 중심공간으로부터 연결된다. 그리고 마당에서부터 개개의 실로 연결된 각각의 계단과 어프로치 : 셋째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침착하고 안정된 한국적 분위기의 개인공간, 넷째로 자연을 감상하고 별빛을 바라보며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욕실, 다섯째로 자연에 노출되어 있는 개개인의 테라스와 발코니들이 그것이다. 이렇게 계획된 공간들은 각기 다른 전망과 개성 있는 외부공간을 가지며 빛을 중시한 디자인으로 구사되고 실현되어 이곳을 찾는 이에게 마음의 편안함과 쾌적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고 심신의 치유에 보탬이 될 것으로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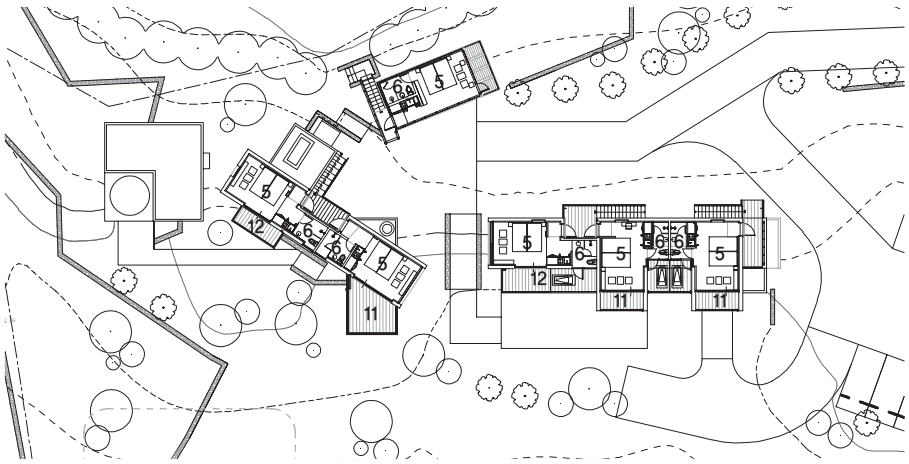


전원을 감상할 수 있는 1층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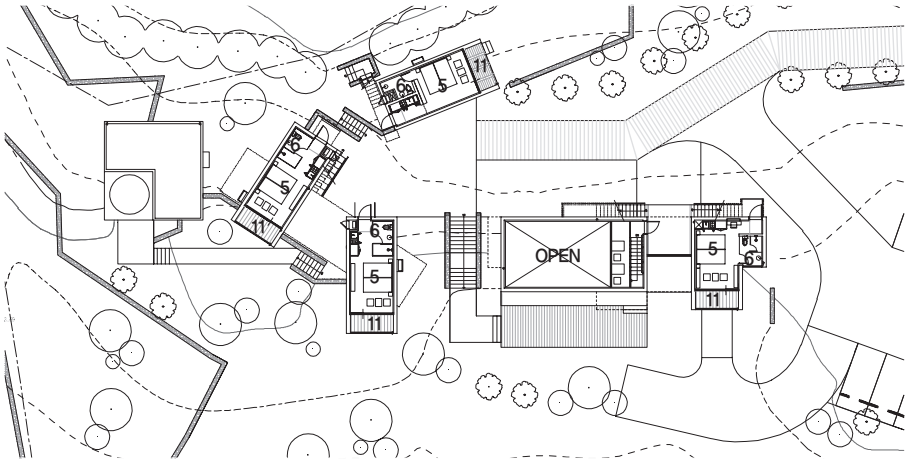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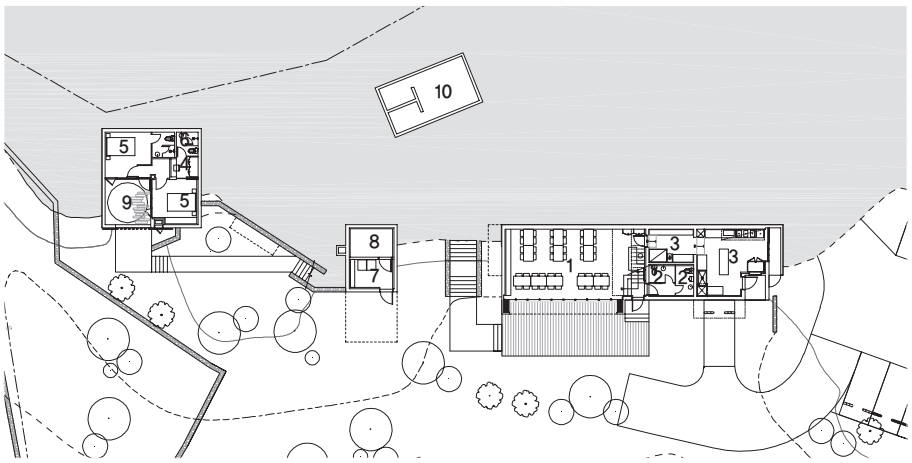
1. 레스토랑
2. 화장실
3. 부엌
4. 드레스룸
5. 침실
6. 욕실
7. 세탁실
8. 창고
9. 마당
10. PIT
11. 발코니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0 0.9 2.7 6.3m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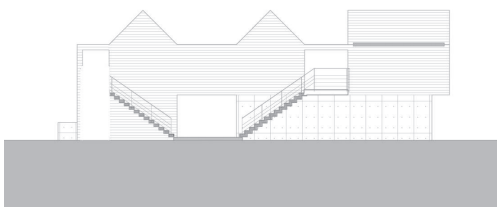
각기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디자인된 객실



천장으로 늘 새로운 공간이 되는 로프트



정면도



배면도

회원작품.

익산 티(T) 하우스

Iksan T House



설계자 | 김동희_KIRA | 건축사사무소 KDDH
건축사사무소 KDDH 대표로 사리현동 타운하우스, 카톡으로 집짓기 이보재, 익산 티하우스(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준공부분 은상수상), 원주 DNA주택 등 목조주택을 다수 디자인 했다.
통영RCE(지속가능한 발전센터) 생태관 건축추진위원이며, 상도동 도시형 생활주택, 홍천 다나치과, 홍천펜션 등을 건축했다. '부기우기 행성탐험', '붉은 미친', '욕망채집장치' 등의 드로잉 및 설치작품 전시를 통해 창조적인 공간창출을 또 다른 건축적 은유로 표현하기도 했다.

- 설계팀 : 이경선, 현진, 안태우, 이윤광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건축사사무소 KDDH
  - 기계설비 : 대림 MEC
  - 전기분야 : 대림 MEC

건축주 | 서문 경이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KDDH
시공사 | 하우징플러스(슈베르트백)

대지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2가 586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273.7㎡
건축면적(Building Area) | 111.60㎡
연면적(Gross Floor Area) | 192.7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0.77%
용적률(Floor Area Ratio) | 70.79%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경골목구조
주요마감재 | 벽 : 스타코, 페인트, 유리블록, 지붕 : 칼라강판
실내마감 : 바닥– 강마루, 벽–고급벽지, 창호–이건창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02. 04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 05. 08
사진(Photographer) | 박영채(Park, Young-chae), KDDH

Client | Seomun Gyeongi
Architect | Kim, Dong-hee
Project team | Lee, Kyung-sun / Ahn, Tae-woo / Hyun, Jin / Lee, Yoon-kwang
General Contractor | Housing Plus(Schubert Baek)
Location | 586, Mohyeon-dong 2-ga, Iksan-si, Jeollabuk-do, Korea
Structure | Light weight wood frame + heavy structure using Glulam
Structure Engineer | KDDH
HVAC & Eletrical Engineer | Daelim MEC
Electrical Engineer | Daelim MEC
Finishing Materials | Stucco, Wood, Steel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는 집 속에 집이 있고 집 위에 집이 있는 그런 집이 있다. 1층의 주방 · 거실은 공용공간으로, 중2층의 아이들의 놀이공간인 집 속의 집과 2층의 아이 방, 화장실, 안방, 안방에 딸린 작업실은 개인공간으로 구성된다. 모양이 T자이지만 다분히 기능적으로 풀렸다. 대지의 남쪽에는 공원이 있다. 1층은 공원과 평행하게 배치되고 거실 · 주방은 크게 한 공간을 만들고 외부 앞마당을 넉넉히 사용한다.
개인사업을 위한 작업실이 있는 이 집의 2층은 공원을 향해 평면이 구성되면서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될 대지 앞쪽 공원을 지켜볼 수 있게 배치되었다. 1층과 2층이 겹치는 부분은 드라마틱한 공간들이 연출된다.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엄마의 마음은 공원까지도 품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집을 만들었다. 필로티 하부는 그네를 설치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다.
공간의 높낮이가 조금씩 차이 나고 동선에서 다양한 공간의 맛을 느낄 수 있게 연출되었다. 거실의 창대의 폭을 80cm 이상으로 넓혀서 창이 하나의 놀이공간도 된다. 그래서 이 집은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마음이 충분히 반영된 집이다.

〈NOTE〉

– 두 딸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주택을 짓는 것이 이 집짓기의 시작이다. 아빠가 없는 두 딸을 언제 어디서든 보살필 수 있는 집안 구조를 만들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엄마의 여동생이 수시로 와서 두 딸을 돌봐줄 수 있는 게스트룸이 필요하다.
– 2013년 2월에 건축의뢰를 했고 4월에 착공하고 8월에 준공했다.
– 경골목구조와 중목구조의 조합한 구조
– 공사비 예산 3억으로 건축설계를 시작해서 완공 때 3억으로 맞추었다.
– 대지의 앞쪽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두 딸이 뛰어 놀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치를 원했다. 그리고 1층 어느 곳에서라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랬다. 건물 내부에도 아이가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며, 그곳은 집 속의 집의 형태이길 원했다. 건물 외부에 아이와 같이 탈 수있는 그네를 설치할 수 있는 필로티 공간을 원했다.
– 건물 위에 건물이 앉아 있는 형태이므로 구조적으로 경골목구조에서는 쉽지 않았는데 중목구조 형식을 겹합해서 해결했다.
– 건축주의 공사예산 금액에 비해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 유리블록+칼라아크릴판+유리블록을 사용한 채광 효과와 빛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통해 해결했다.



배치도



전경


비트라하우스에서 모티브를 차용해 두 채의 집을 포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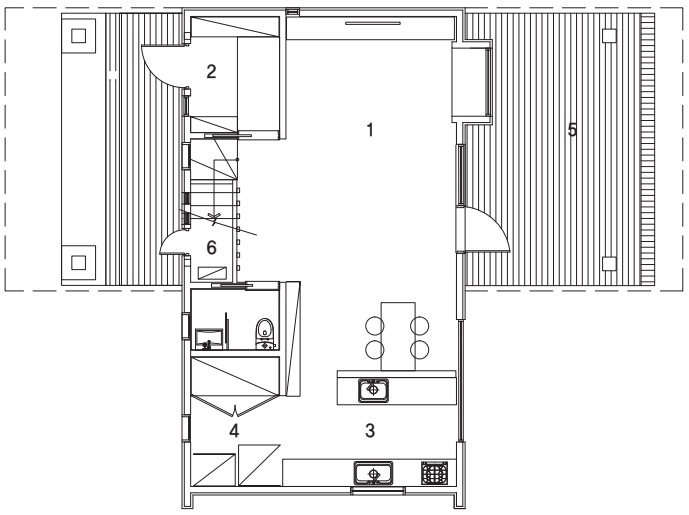

필로티를 사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한 1층


필로티 사이로 진입하는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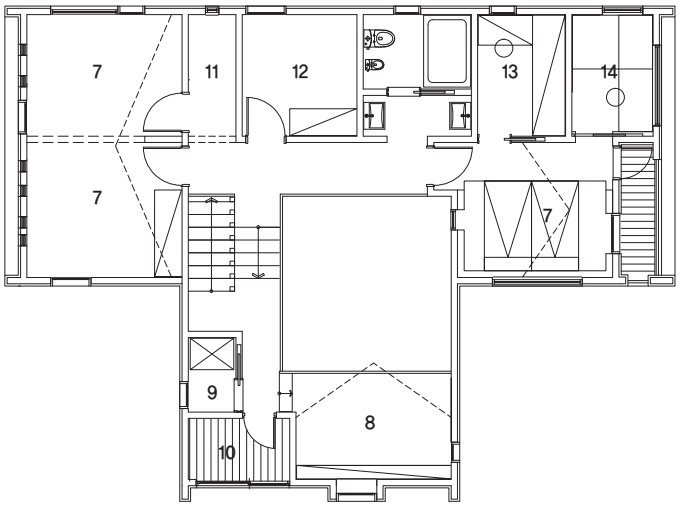


거실에서 한눈에 내다보이는 휴게데크

1. 거실 2. 현관 3. 주방 4. 다용도실 5. 휴게데크 6. 보일러실 7. 방 8. 놀이방 9. 세탁실 10. 발코니
11. 창고 12. 게스트룸 13. 드레스룸 14. 작업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높은 층고로 개방감이 뛰어난 거실


2층에서 내려다본 주방


집 속의 집 속의 집


드라마틱하게 연출된 공간



집 속에 집 형태로 디자인된 놀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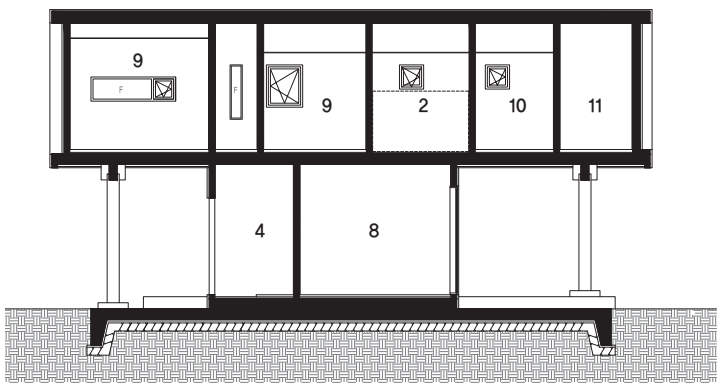


휴게데크가 내다보이는 거실의 큰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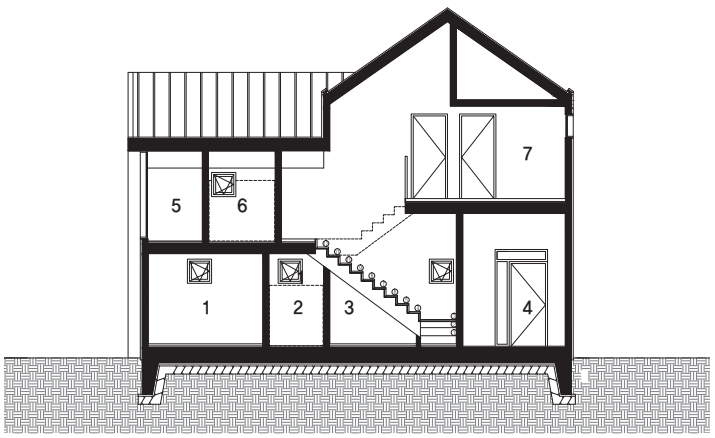


공간의 재미를 더하는 중첩되는 프레임

1. 다용도실 2. 화장실 3. 보일러실 4. 현관 5. 발코니 6. 세탁실 7. 창고 8. 거실 9. 방 10. 드레스룸 11. 작업실



횡단면도



종단면도

회원작품.

아비뉴 636

Avenue 636



설계자 | 강병훈_KIRA | ㈜건축사사무소 대흥스페이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부터 현대건설 종합설계실에서 근무했다. 사우디아라비아 GROUP-A HOSPITAL, 이라크 2800 HOUSING, 경주 현대호텔 등을 설계했으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사사무소대흥스페이스를 운영 중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헤이리 THE TIME & BLADE 갤러리, 보덕 메디팜 사옥, 수아비스 리모델링, 남현동 복합청사 등이 있다.

- 설계팀 : 윤성훈, 곽명철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파워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 기계설비 : 우일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건창기술단

건축주 | 장세화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대흥스페이스
인테리어 | YOUNWON DESIGN
시공사 | 고황건설㈜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6
주요용도 | 업무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225.6㎡
건축면적(Building Area) | 111.23㎡
연면적(Gross Floor Area) | 597.9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30%
용적률(Floor Area Ratio) | 209.38%
규모(Building Scope) | 지하1층 ~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치장벽돌, 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7. 12 ~ 2011. 08. 3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2. 23 ~ 2012. 09. 26
사진(Photographer) | 손석원(Sohn, Su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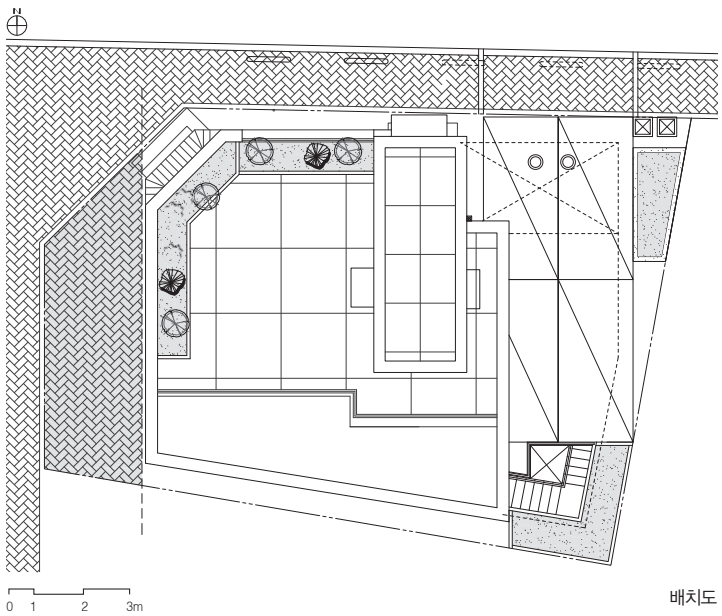
Client | Jang Sea-hwa
Architect | Kang, Byung-hun
Project team | Yun, Sung-hoon / Kwak, Myung-chul
General Contractor | Kohwang Construction
Location | 636, Sinsa-dong, Kangnam-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Power Structure Consutants
HVAC & Eletrical Engineer | Wooi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Kunchang Engineering Co.,Ltd
Finishing Materials | Encaustic Bricks, Pair Glass

아비뉴 636은 신사동 언주로 성수대교 남단에 위치한 대지면적 225.60㎡의 아주 작은 부지에 기존의 2층 벽돌건물을 허물고 Rush와 Avenue 636 매장사옥을 재건축한 건물이다. 이곳은 Rush 제품 판매와 체험, 외국 유명작가가 디자인한 가구 패브릭을 전시 · 판매하는 리빙 스튜디오다.

주어진 작은 공간 안에서 건축주의 요구사항들을 연출 가능한 요소들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여러 번의 Study 끝에 몇 가지의 결론에 도달했다.

1. 건축주는 외장재를 벽돌로 주문하였다. 기존 벽돌건물의 외관형태를 탈피하기 위해 쇼케이스 대용의 창문을 전면에 2개, 측면에 1개 삽입했다.
2. 전면폭을 극대화하기 위해 코어를 이면도로에 배치하고 도로 가각부분에 매장 출입구를 두었다.
3. 각층 내부 전시공간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내부계단 및 오픈공간의 대안으로 주계단 내벽을 허물어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4. 5층 집무실 일부는 외부공간으로 지붕을 오픈하여 테라스를 만들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다.
5. 실내도 노출콘크리트와 고벽돌 등 내츄럴한 마감으로 연출하고 4~5층 코너벽의 창문살을 통해 실내공간에서 Perspective한 효과를 유도했다.

초기디자인부터 참여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공까지 아낌없이 조언해준 연원디자인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배치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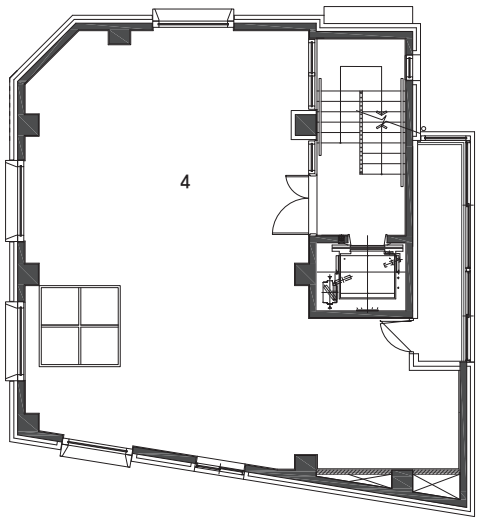
성수대교 남단 언주로에서 바라본 건물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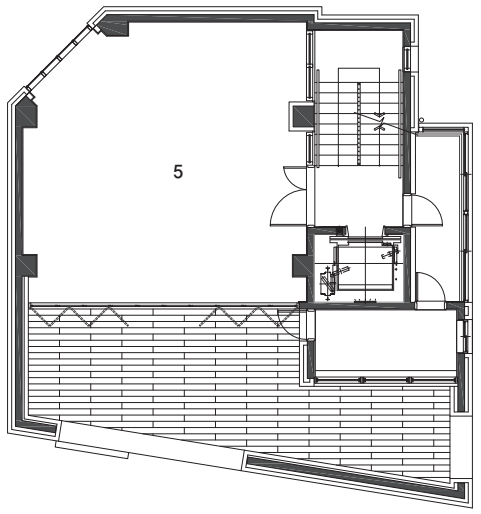
1층 주출입구



1층 부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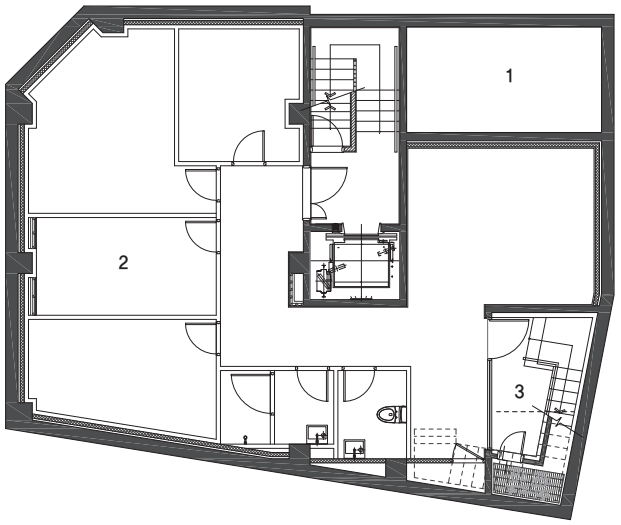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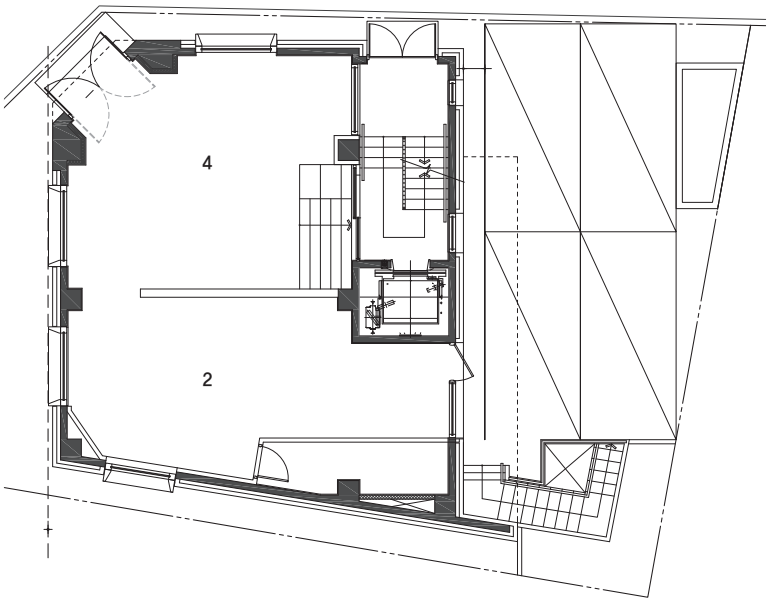


1. 정화조
2. 미용실
3. 선큰
4. 소매점
5.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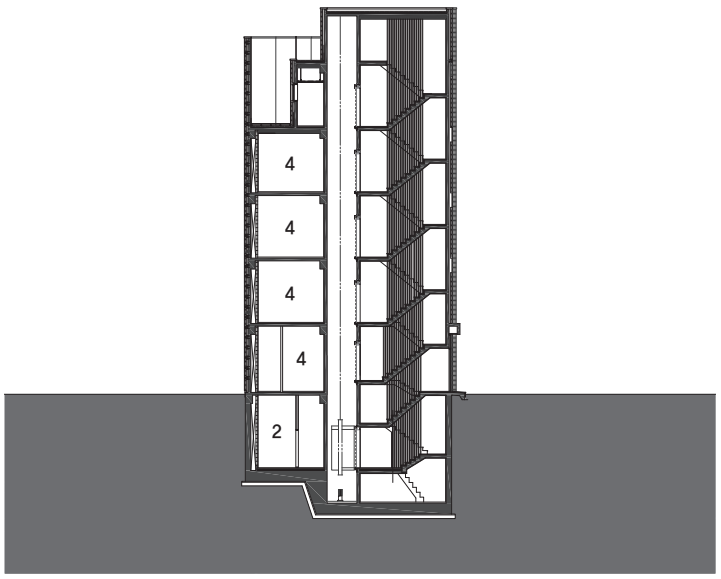
5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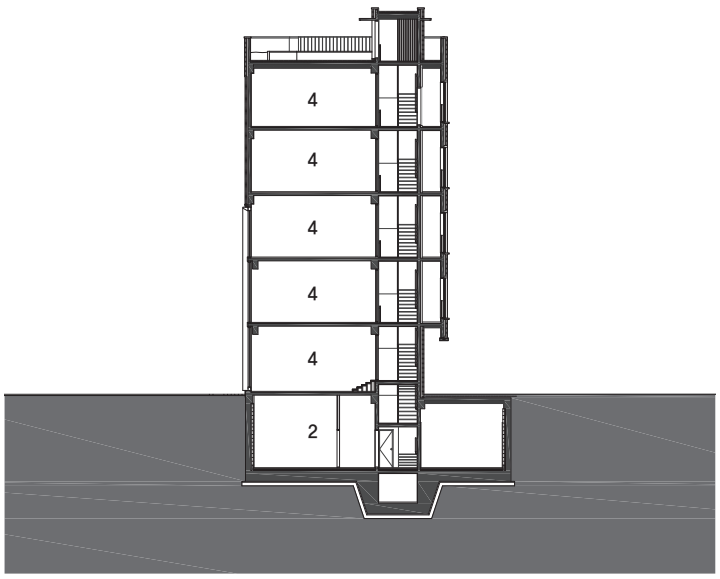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 1 2 3m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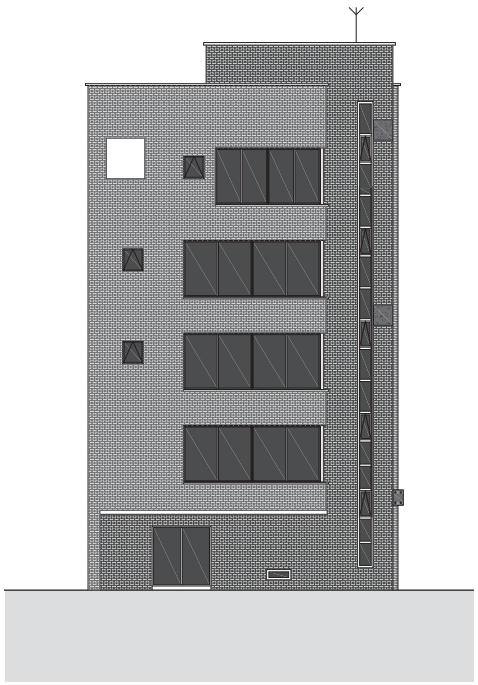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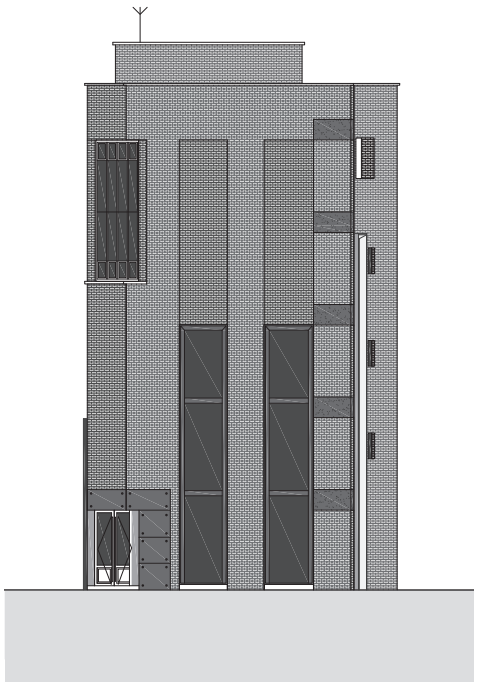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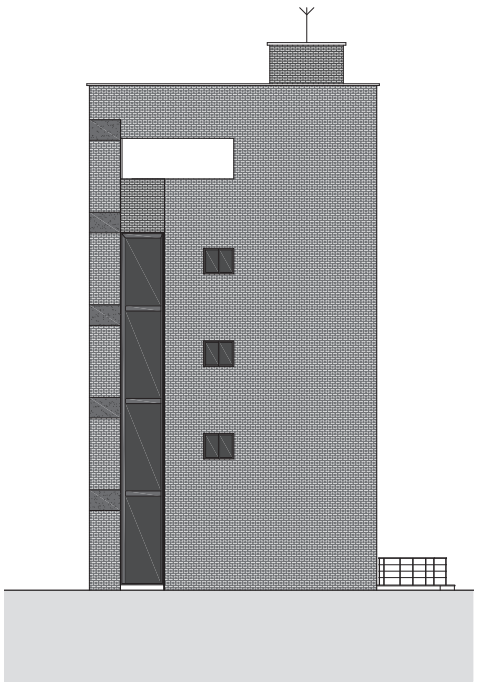

AVENUE
LIVING STUDIO
Matthew Hilton
AVENUE
LIVING STUDIO
AVEN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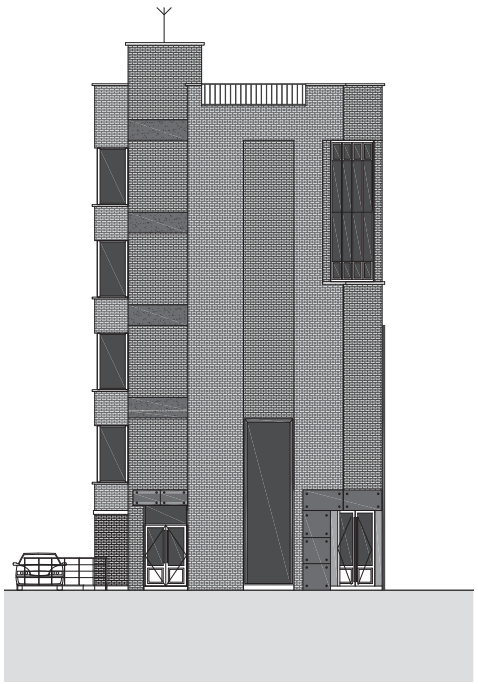

가구 전시장


가구 전시장


동측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북측면도

0 1 2 3m

회원작품.

메리고라운드 빌딩
Merry Go Round Building



설계자 | 변문수_KIRA | 무운 건축사사무소㈜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시작하였다. ㈜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및 ㈜테제 건축사사무소와 ㈜테제건설에서 설계 및 시공을 익히며, 서미갤러리를 비롯하여 호림아트센터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직접 설계에서 시공까지 진행하였다. 2011 서울시건축상 우수상(수용빌딩)을 비롯하여,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청담동 12345, 메리고라운드) 등을 수상하였다. 현재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강남구 건축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설계팀 : 변진영, 김진만, 박홍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하이구조

건축주 | 유기준, 최선희
감리자 | 무운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우인종합건설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4-13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244.6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22.17㎡
연면적(Gross Floor Area) | 878.7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95%
용적률(Floor Area Ratio) | 220.92%
규모(Building Scope) | 지하2층 ~ 지상6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외부 : 노출콘크리트, THK24 투명복층유리
내부 : 노출콘크리트, 석고보드 위 VP도장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01 ~ 2012. 06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6 ~ 2013. 03
사진(Photographer) | 무운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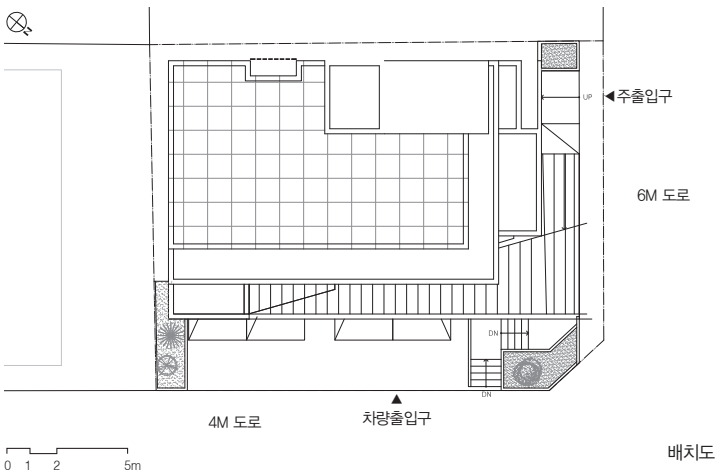
Client | Ryu, Ki-jun
Architect | Byoun, Moon-su
Project team | Byoun, Jin-young / Kim, Jin-man / Park, Hong-soo
General Contractor | Woo-in Construction
Location | 34-13, Nonhyeon 1-dong, Gangnam-gu, Seoul,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Engineer | High Structural Consultant
Finishing | Exposed Concrete, THK24 Glass

메리고라운드 사옥의 대지는 신사역사거리부터 학동공원 주택가를 지나 속칭 광고쟁이들의 성역화가 된 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주변은 TV광고 제작사들과 스튜디오, 녹음실 등의 협력사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고, 그 곳의 종사자 및 관련자들의 규모 또한 만만치 않아 겉으론 평온한 주택가지만 밤낮없이 하루가 바쁜 곳이다. 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다. 건축규모 상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없다 보니 건축물의 높이 등의 규모에 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본 프로젝트 역시 이로 인한 높이와 용적에 관한 문제로 건축허가는 물론 사용승인을 받는 것마저 힘이 들었다. 용적을 채우자니 층수와 높이는 어쩔 수 없이 높여야 하며, 건물을 높이면 전면도로의 폐쇄감이 상당히 거북하게 느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결국, 각 층의 층고를 최대화하기 위해 천장은 노출로 하고 바닥의 마감두께를 줄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최대한 낮추면서 용적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두 개의 전면도로 교차점에서 보행자에게 느껴지는 폐쇄감 해소를 위해 중층부의 매스를 절삭하여 개방감과 모서리 대지 건축물로서의 역동성을 동시에 살렸으며, 또한 분절되고 엮인 매스들과 다양한 패턴을 조합한 창호계획은 층수의 인지를 모호하게 하도록 의도하여 심리적인 높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외장재인 노출 콘크리트 마감은 매스의 분절과 절삭의 원칙에 따라 쪽널패턴과 합판패턴으로 구분하였고, 그 외장의 흐름은 중성 공간화의 의도가 숨어 있는 계단을 따라 실내로 이어진다. 실내의 바닥, 벽, 천장의 회색톤들의 색감, 질감과 화이트 배색은 낮은 층고의 갑갑함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계획하였다.

건물의 주요기능은 광고를 위한 시설들로 지하 2층은 높은 층고의 촬영스튜디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자그마한 상가, 그리고 1층은 가구전시장, 2~5층은 사무실, 6층은 건축주의 사적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층별 내부에서는 방향별로 건축물 주변과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 창호들을 볼 수 있다. 어떤 창은 가로로 누워 있고, 혹은 날아가는 벽체로 가려져 있거나 눈 아래로 누워 있는 창의 다양한 경관을 품고 있으며, 그 경관들의 정점은 6층 주인장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파노라마 창호에서 이루어진다. 야경이 아주 일품이다.

온갖 규제와 민원을 겪고 힘겹게 얻은 경관이니만큼 얼마나 애착이 가겠는가? 대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면한 중소규모의 건물들은 분명 일상과는 다른 건축의 어휘와 척도에 의해 계획되어야 하며, 주변의 것들과 적절히 주고받는 소통의 수단이 다른 곳보다 더 절실하지 않나 생각한다.



배치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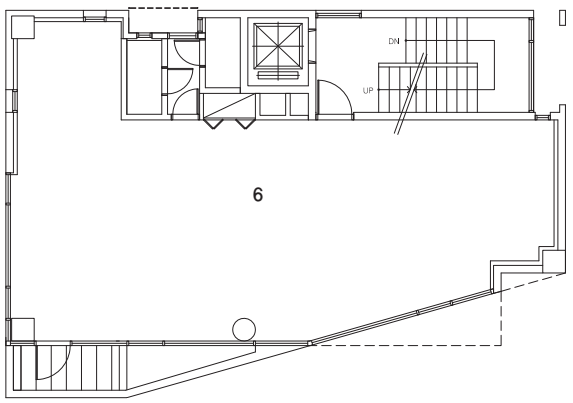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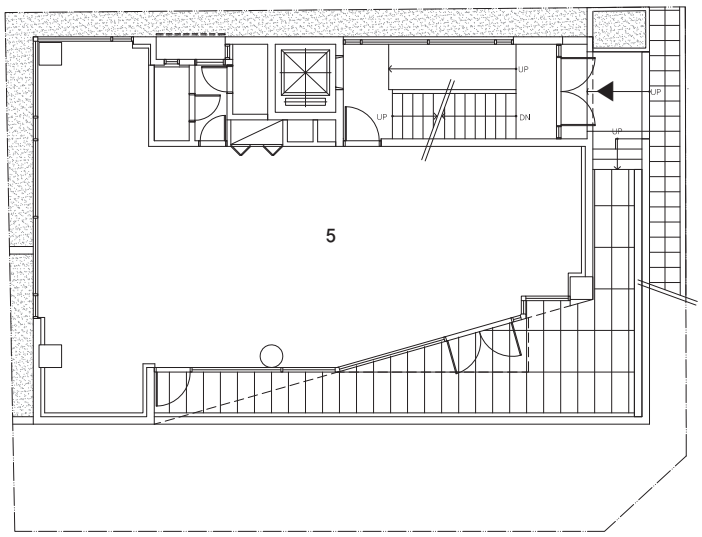


역동적인 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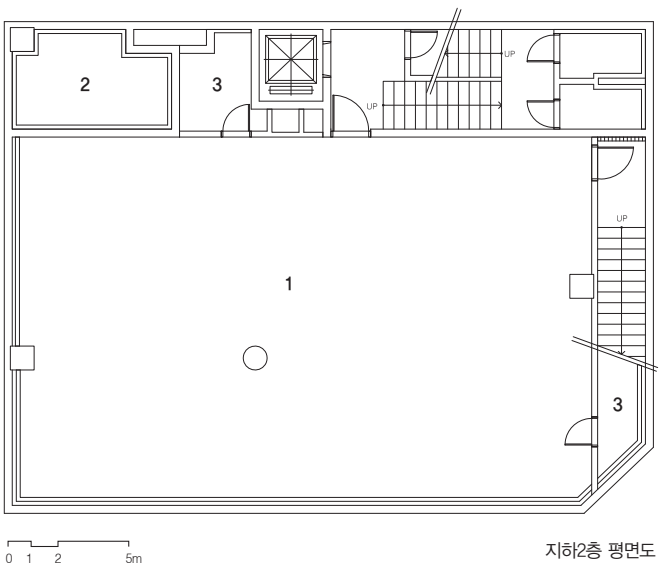
1. 사진관 2. 정화조 3. 창고 4. 소매점 5. 일반음식점 6.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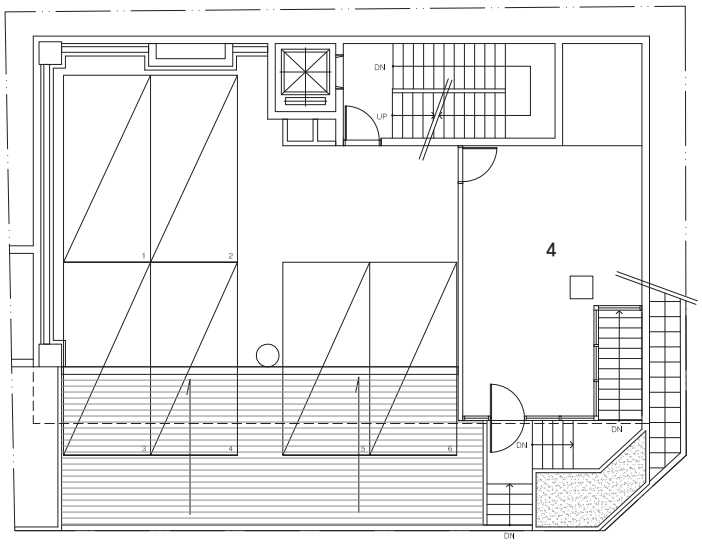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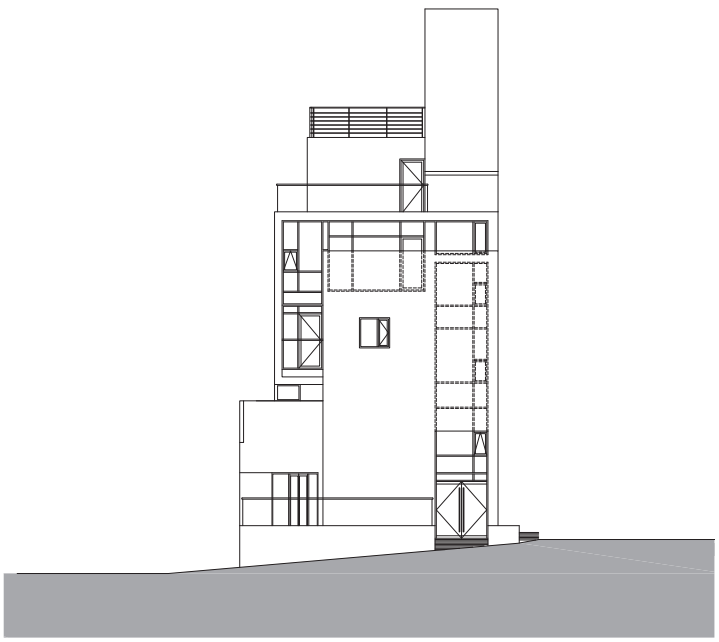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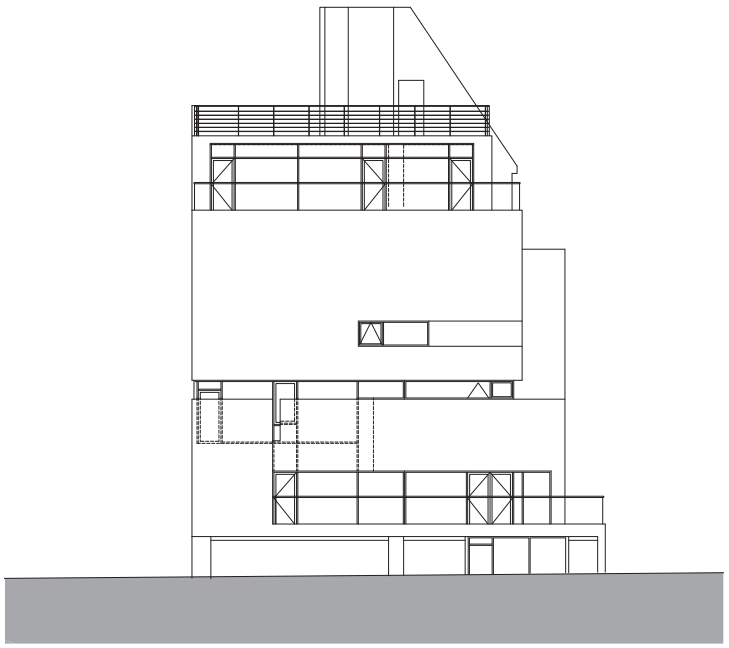

남측 모서리 전경


외관 디테일


외관 디테일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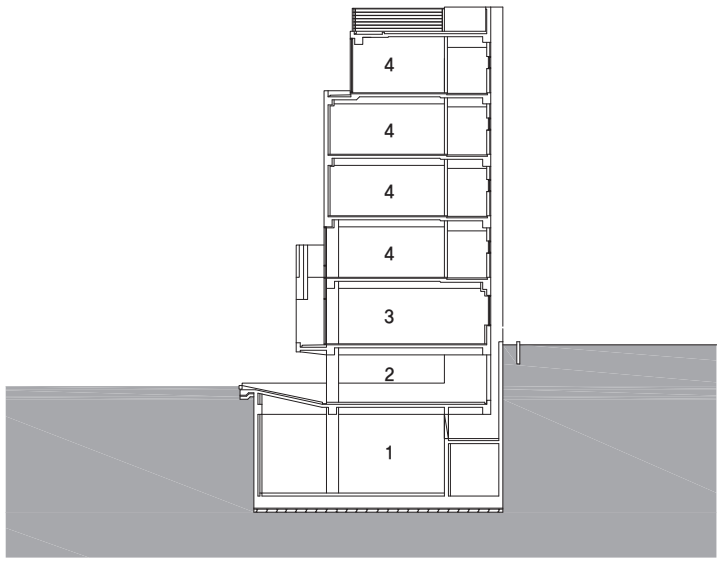

좌측면도


6층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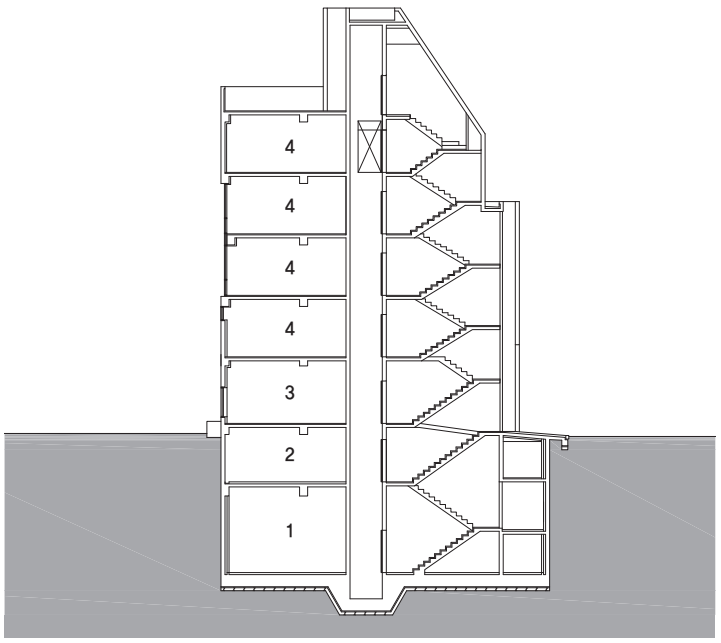

6층 내부


1층 테라스

1. 사진관 2. 주차장 3. 일반음식점 4. 사무소



종단면도



횡단면도

현대지식산업센터
Hyundai Knowledge Industrial Center



설계자 | 왕정한_KIRA | ㈜건축사사무소 아라그룹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의 건축공학과 대학원 석사 수료 후 희림건축에서 실무를 한 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아라그룹'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학과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도시분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다.
대외활동으로는 서울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대한건축사협회 녹색건축위원회 위원장, 중앙건설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현대백화점(무역점, 대구점, 일산점 등), 대성디폴리스, 서울숲한라에코벨리, 당산쉐르빌, 상관주민자치센터, 광명역복합환승시설, 세종시 공동주택 등이 있다.

- 설계팀 : 권영훈, 이동성, 최윤성, 김남훈, 이종호, 나강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도화구조
  - 설비분야 : ㈜도울이엔지
  - 전기분야 : ㈜평화이앤씨
  - 토목분야 : ㈜대양씨앤이
  - 조경분야 : ㈜마노조경설계
  - 교통분야 : ㈜내일E&C

건축주 | 태광독산PFV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아라그룹
시공사 | ㈜현대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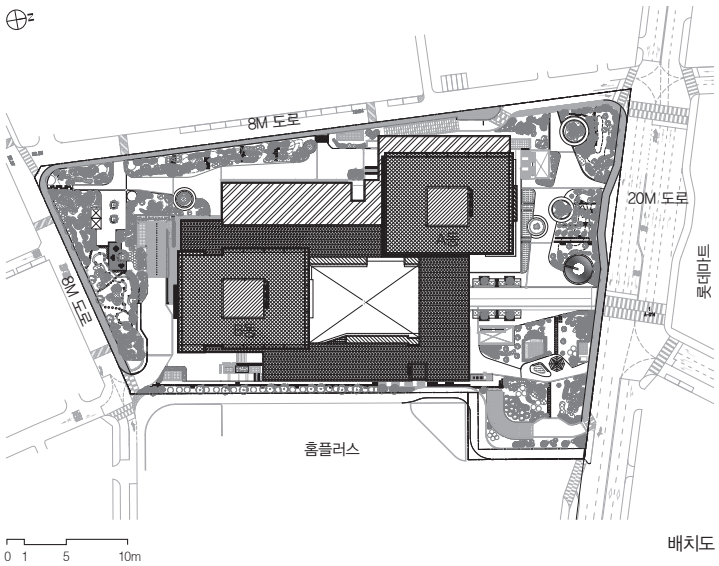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70
주요용도 | 지식산업센터(공장,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22,740.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8,512.13㎡
연면적(Gross Floor Area) | 175,264.7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7.43%
용적률(Floor Area Ratio) | 479.72%
규모(Building Scope) | 지하 4층 ~ 지상 26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THK24 컬라로이복층유리, THK4 알루미늄복합패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8. 10 ~ 2011. 07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07 ~ 2014. 02
사진(Photographer) | 임준영(Lim, Jun-young 청암디토그라피)

Client | Taekwang Doksan PFV
Architect | Wang, Jeong-han
Project team | Kwon, Young-hun / Lee, Dong-sung / Choi, Youn-sung / Kim, Nam-hoon / Lee, Jong-ho / Na, Kang-jin
General Contractor | HYUNDAI E&C
Location | 70, Dusan-ro, Geumcheon-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tructure Engineer | Do Hwa Structural Engineers co. ltd
Finishing | THK24 Color Low-E Double Glazing, THK4 Aluminum Composite Panel

본 프로젝트는 민간 설계경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금천구 독산동 코카콜라 창고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신축하는 것으로 대규모 사업이다. 준공업지역인 본 대지는 서울시의 여러 준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학교, 공동주택, 대규모 판매시설, 오피스 등의 도시환경이 매우 혼잡하고 여러 기능들이 혼재되어 있는 부지다. 동시에 독산동의 소생활권 중심지역으로 기능하고 있는 중요한 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민간개발사업의 기본요구인 사업적 요구조건과 주변 환경의 정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작지 않은 부지에 많은 부분을 차도와 보도, 조경공간, 공개공지 등으로 조성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했다. 도시환경정비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부분은 고층(26층) 두 개의 타워로 계획하여 지상에 여유공간을 확보하였고, 저층부(6층)는 주변과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지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하고 일부는 공장으로 계획하였다.
두 개의 타워와 저층부는 중정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며, 중정은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이 지역에서 최대 규모, 최고 규모의 건물로 지역적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것이다.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위해 볼륨이 상당히 큰 두 개의 타워는 서로 상반된 건물의 이미지를 갖도록 계획하였다. 기본적으로 수평적 요소와 수직적 요소를 구성적 차원에서 경관과 표정의 풍부함을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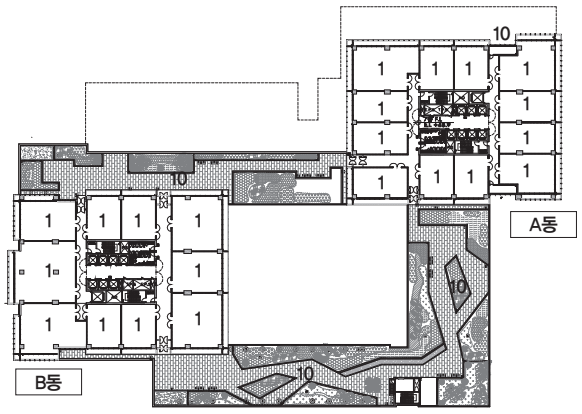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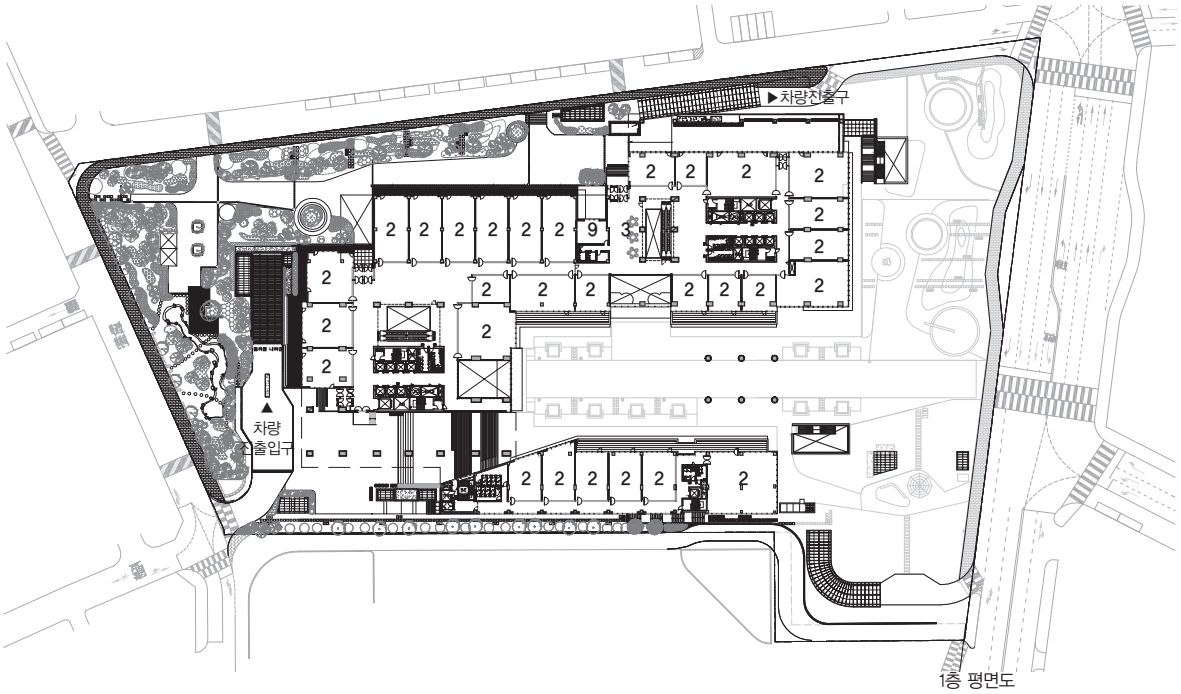


북측에서 바라보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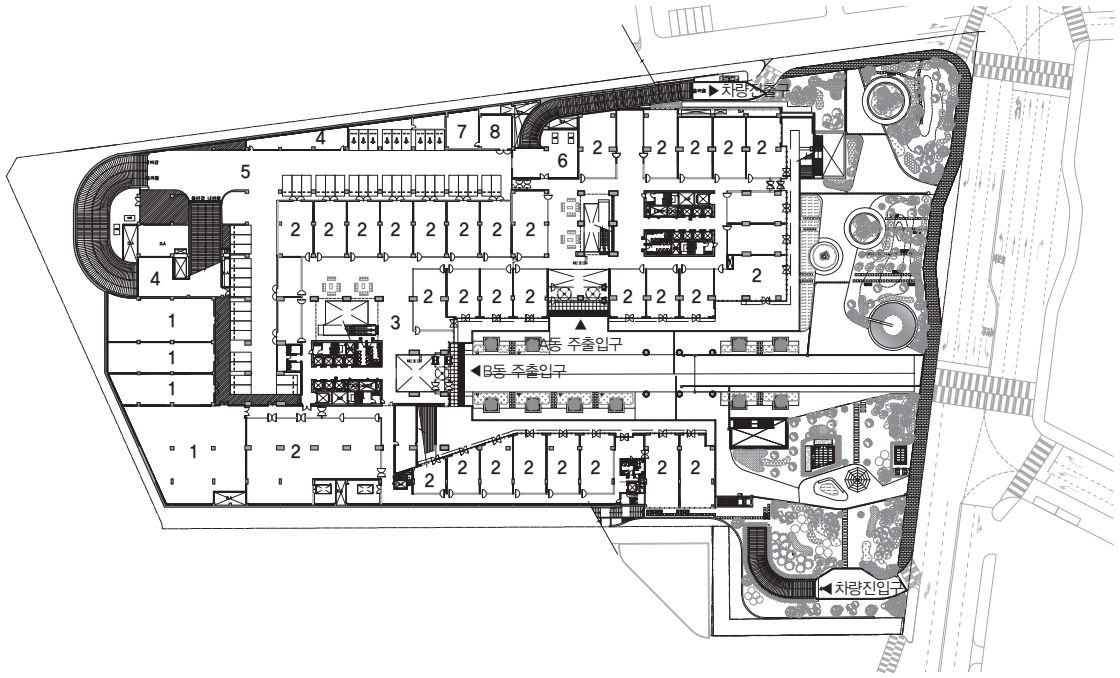
1. 공장
2. 지원시설(근생)
3. 로비/라운지
4. 창고
5. 주차장
6. 휀룸
7. 방재센터
8. 관리실
9. MDF실
10. 옥상정원



7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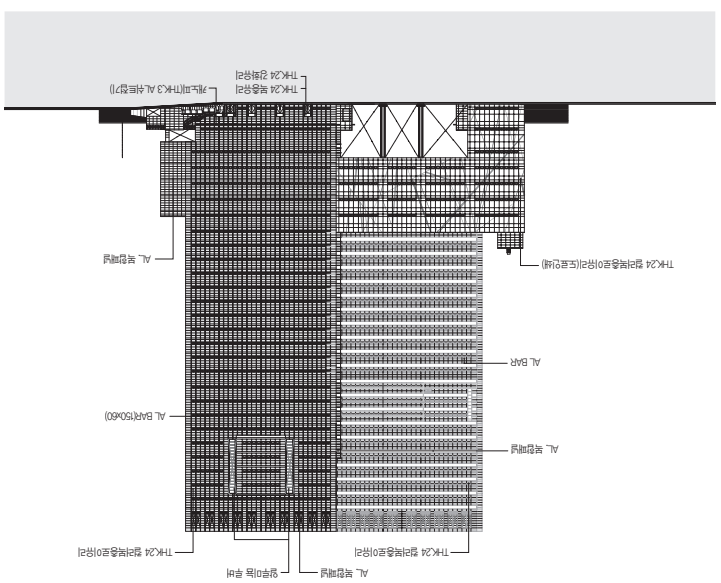
0 2 5 10m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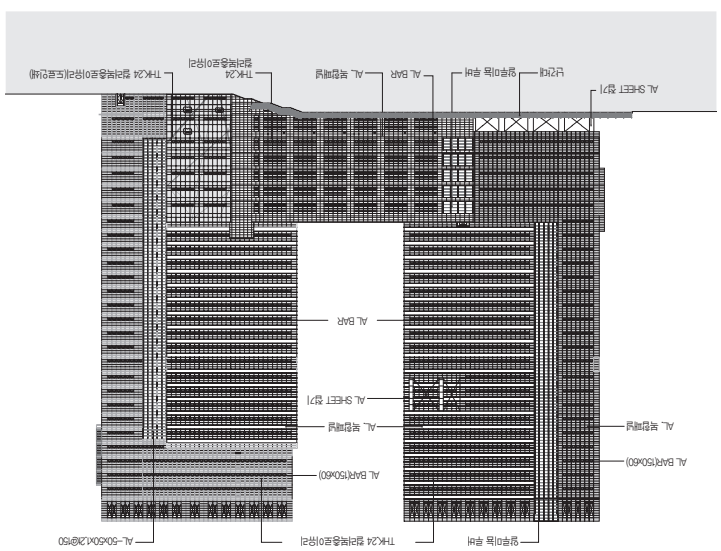
북동측에서 바라보는 전경





정면도(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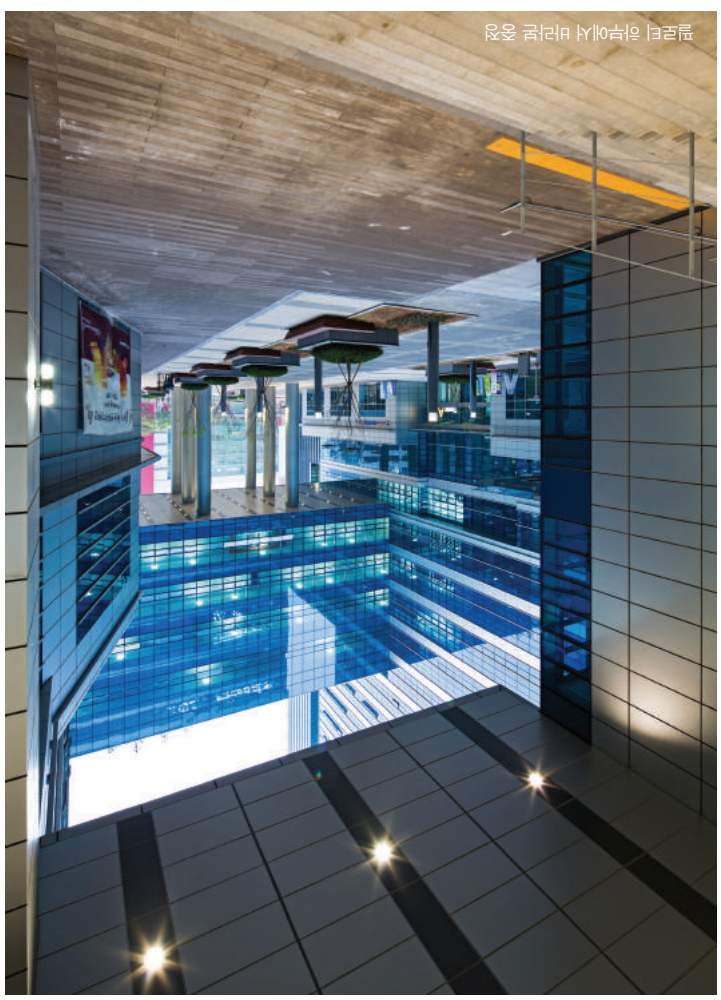
0 1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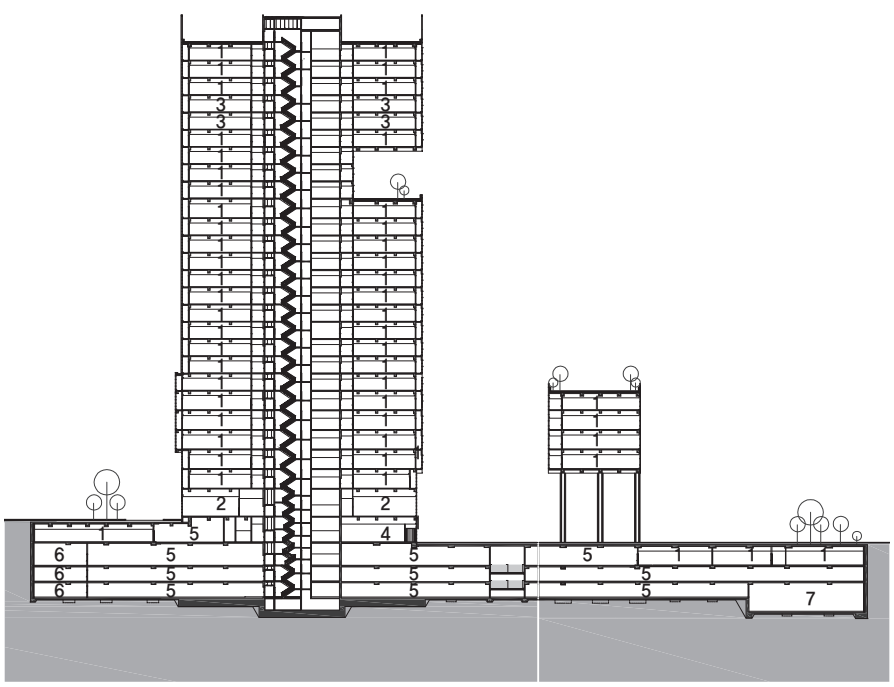
동측면도(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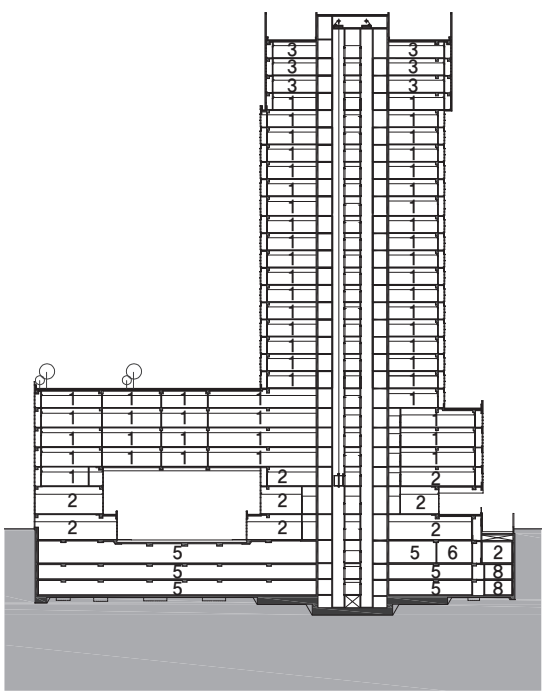




1. 공장 2. 지원시설(근생) 3. 지원시설(업무) 4. 로비/라운지 5. 주차장 6. 창고 7. 물탱크실 8. 휀룸



횡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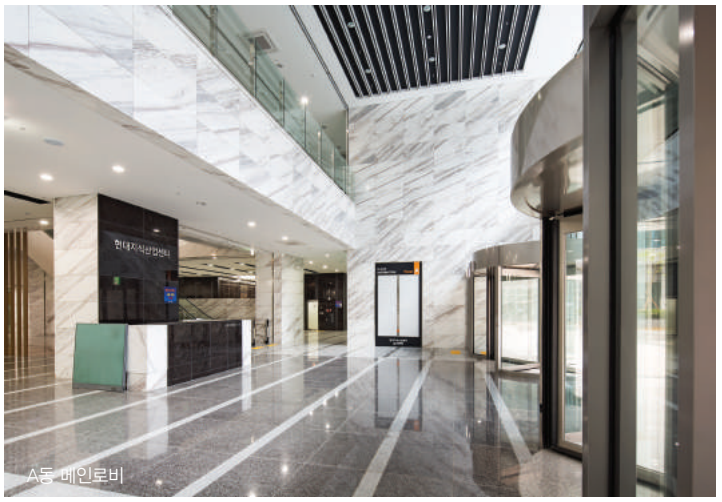
저층부 전용계단



데크정원이 내다보이는 복도



필로티 하부



A동 메인로비

강신주의 눈으로 본 김수영을 생각하며

Thinking of Kim Sooyoung through Kang Shinjoo's Perspective



김수영을 위하여 강신주 지음 | 김서연 만듦 | 천년의상상 출판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수영을 통해 저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았던 그를 넘어서는 완결점을 찍은 듯 보인다. 한 인터뷰에서 저자는 "『김수영을 위하여』를 통해 저는 제 정신적 아버지인 김수영의 속내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화는 이별의 행위이니까요. 이 책을 통해 저는 마침내 김수영이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제 갈 길을 가는 어른이 된 것이지요." 라고 했다. '1부 시인을 위하여', '2부 사람을 위하여', '3부 자유를 위하여'를 통해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생각은, 김수영이 시와 산문을 통해 보여줬으나 어쩌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자유정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고난의 인생을 살았으나 시가 너무 쉽게 쓰인다고 괴로워했던 윤동주와는 달리, 김수영의 시에 흐르는 지독한 리얼리즘 때문에 어떻게 시가 이렇게 불편할 수 있을까 얘기했던 순간을 이해하게 만들어 준 책이다. 왜 시가 불편할까? 강신주는 말한다. 상처투성이의 자신을 들여다 보는 직면성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읽으면서 불편한 시가, 읽고나면 무언가 펑 뚫린 느낌이 있었던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방법을 가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 이성복 〈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그는 사랑도, 삶도 그리고 예술도 사전에 정해진 어떤 방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매너리즘을 타파하라고 말한다. 자신 즉, 바로 나니까 가능한 사랑을, 삶을, 예술을 하자고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스타일로 살아 내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인문학이 추구하는 자유정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주장하는 자유정신이 바로 김수영의 맨얼굴이며, 그가 평생을 자신의 글 속에서 추구해왔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다.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만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체제의 힘을 뼈저리게 느끼는 법이다. 반면 허용된 자유 속에 안주하는 사람은 체제의 억압을 자각할 수조차 없다.' '자유정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니까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유정신에서 느껴지는 정직함과 당당함은 바로 여기서 생긴다. 모방하는 삶이나 억압된 삶은 모두 자신의 삶을 자기 것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실패한 삶이기 때문이다.' 1부가 시작되기 전 10장이 넘는 프로롤그에 쓴 저자의 말들이다.

시의 모더니티란 외부로부터 부과하는 감각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성의 화염이며, 따라서 그것은 시인이–육체로서–추구할 것이며, 시가–기술면으로–추구할 것이 아니다.

– 〈시월평 : 모더니티의 눈제〉(1964. 4)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성의 화염"은 무엇을 비추는가? 지성의 화염은 나 자신이 백년 전 혹은 천년 전에도 없었으며, 나아가 백년 뒤 그리고 천년 뒤에도 없을 것이라는 내면의 확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아내를 때리고 들어와서 드는 자괴감은 아내를 때려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아는 사람이 그런 자기를 봤을까봐라고 고백한 시인 김수영. 이를 두고 강신주는 "그가 쓰고 싶었던 자신에게 철저한 글, 즉 시가 어떻게 친절할 수 있겠는가. 다른 장르의 글과 달리 시는 자신이니까 쓸 수 있는 글,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글이다."라고 했다.

강신주는 이 책을 쓰면서 오롯이 자신과 김수영의 만남을 전제로 한다. 김수영의 시와 산문을 통해서 '굿바이 김수영'을 외치고, 그를 넘어서 이제는 진정한 자신만의 철학을 다지는 계기를 가질지도 모른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김수영이라는 시인을 알게 되고, 시가 무엇인지 시의 본질에 다가가고, 강신주처럼 또 다른 김수영이 되어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또한 김수영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를 그리워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강신주의 눈을 통해 김수영를 만난다는 것은 자유를 찾는 여정인 것 같다. 글 | **김수경**

연애편지를 읽다 열 한번째 이야기

글. **정이숙_** Jeong, Yi-suk
비트윈커뮤니케이션 대표

"쇼팽은… 자신의 전부를 제게 바친 유일한 사람"*

19세기 연상연하 커플 쇼팽과 조르주 상드의 연애편지

Chopin is… the Only Person that Devoted his Whole to Me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밀회에서 민용기(김창완 분)는 연상연하의 연인 오혜원(김희애 분)과 이선재(유아인 분)의 관계를 눈치채고 "내가 괜히 언짢은 상상하는 건 아니지? 조르주 상드와 쇼팽이 눈 앞에 보이네"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21세기 한국 드라마의 대사에까지 나올 정도로 떠들썩했던 19세기 조르주 상드와 쇼팽의 사랑이 『연애편지를 읽다』의 열 한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르주 상드는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폴란드 왕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귀족 출신이고, 어머니는 파리 센 강변의 새 장수 딸로 가난한 서민 출신이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 쇼팽은 아버지가 프랑스어 교사였고 어머니는 폴란드의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쇼팽과 상드는 태어난 나라는 달랐지만 둘 사이에는 태생부터 프랑스와 폴란드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두 사람은 1836년 리스트의 연인이었던 다구(d'Agoult) 백작부인의 살롱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상드는 18세에 결혼했던 뒤드방 남작과 이혼한 뒤 두 아이와 함께 파리에서 문필가로서 활약하고 있었고, 쇼팽은 "제군들이여! 모자를 벗어라. 여기 천재가 나타났다."라는 슈만의 극찬을 들으며 피아니스트와 작곡가로서 파리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쇼팽은 26세, 상드는 32살로 상드가 쇼팽보다 여섯 살 연상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쇼팽은 '남장을 하고 시가를 피워대며 필명도 남자 이름으로 지어 글을 쓰는 이 풍만하고 땅딸한 여자 작가에게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쇼팽의 전기작가는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드라는 저 여자, 참 매력 없어. 정말 여자 맞아?"**라는 소리를 친구에게 했다고 합니다.

상드를 만나기 전까지 쇼팽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인은 열 아홉 살에 첫 연정을 품었던 소프라노 콘스탄챠 글라드코프스카, 스물 다섯 살에 사랑에 빠졌던 마리아 보진스키가 전부였습니다. 콘스탄챠에게는 고백도 못하고 끝이 났고 마리아에게는 청혼했지만 쇼팽의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마리아의 부모가 반대하여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상드의 남성편력은 이혼 후에 작가인 쥘 상도를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집니다.

1838년 5월 8일 쇼팽은 저녁 초대를 받은 친구의 아파트에서 즉흥 연주를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조르주 상드는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세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쇼팽도 그녀에게 끌렸고 이후로 9년 동안 관계를 이어갑니다. 두 사람은 1838년 말에 마요르카 섬으로 가서 몇 달을 지내기도 했고, 1839년에서 1846년 사이에는 매년 여름을 상드의 고향 노앙에서 함께 보냅니다. 파리에 있을 때도 각자 집은 따로 얻었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살며 수시로 오갔습니다. 조르주 상드는 쇼팽과 사랑에 빠진 후 행복한 감정을 화가 들라크루아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로 전합니다.

나는 이제 믿기로 했어요. 인간으로 가장한 천사들이 아무개 아무개로 행세하면서 한동안 지상에 머물러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된, 지치고 슬픈 영혼들을 위로하고 하늘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중략)… 쇼팽에 대한 제 절절한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도 당신만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랑이 편견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운명도, 권태나 고독에서 오는 착각도, 일시적인 변덕도,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속이는 배신행위도 아님을 당신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우연히 길을 걷다 발길이 닿은 나라에 와 있어요. 이곳이 너무나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행복해서 이곳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1938년 9월 조르주 상드가 들라크루아에게 보낸 편지(「편지3」 29~31p)


1


2

1. 조르주 상드(George Sand 1804~1876) : 오귀스트 샤르팡티에 그림
2. 쇼팽(Fryderyk Franciszek Chopin 1810~1849) : 알버트 그래플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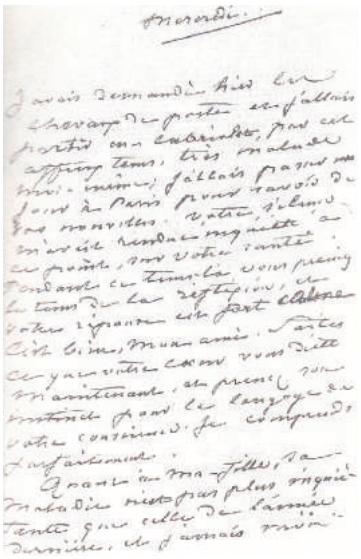


쇼팽과 상드와 들라크루아 : 상드의 연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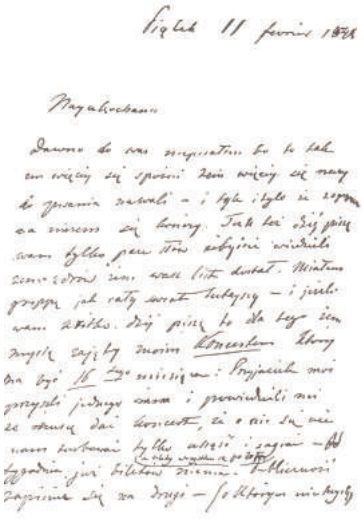
쇼팽과 상드가 주고 받았던 편지들을 상드는 아들 모리스와 함께 재빨리 없애버립니다. 쇼팽이 상드에게서 받은 편지를 모두 지니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일기장 맨 뒤에 간직하기까지 했으며, 상드로부터 처음 받은 쪽지를 죽을 때까지 어디를 가든 가지고 다녔던*** 것에 비하면 알 수 없는 행동입니다. 쇼팽은 상드의 아들과 딸에게 새 아빠 노릇을 하기도 했지만, 상드는 줄곧 모성적인 사랑으로 쇼팽을 돌보았습니다. 1940년에 들라크루아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쇼팽을 '매를 대야 할 장난꾸러기 같은 쇼팽'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편지3」 p103). 그리고 친구에게 쇼팽을 어린애, 천사로 묘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쇼팽은 밤새도록 잠을 자고서도 또 한 차례 낮잠을 자고 만답니다. 잠자는 모습이 꼭 어린애 같아요. …(중략)… 쇼팽은 천사 같아요. …(중략)… 쇼팽은 자기가 어느 행성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잊고 살아요. 우리가 인생을 구상하고 가슴으로 느낄 때, 쇼팽은 인생을 전혀 납득하지 않아요.

1939년 4월 26일 조르주 상드가 샤를로트 마를리아니에게 보낸 편지(「편지3」 68p)



상드가 쇼팽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1948년 2월 11일 쇼팽이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다음은 상드에게 쓴 쇼팽의 편지입니다.

월요일 새벽 세 시. 어떻게 지내오? 방금 전 당신의 멋진 편지를 받았소. 여기는 지금 눈이 내리는데 당신이 여행 중이 아니라니 마음이 놓이는구려. …(중략)… 당신의 방을 따뜻하게 해놓을 시간을 더 갖게 되었소. …(중략)… 당신 원피스는 근동 지방에서 나는 검은색 비단으로 만들었소. 그거야말로 최고급 천이오. 당신 주문대로 내가 골랐소. …(중략)… 당신의 이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늙은 것 같소. 많이, 극도로, 믿기지 않을 만큼 늙은 것 같소.

1844년 11월 30일 쇼팽이 상드에게 보낸 편지(「편지3」 289p)

상드의 아들 모리스는 스무 살이 넘으면서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자처하며 쇼팽과 불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 솔랑주의 복잡한 결혼 문제가 얽혔을 때 상드는 1947년 쇼팽에게 결별을 고합니다.

…(전략)… 그동안 당신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을 텐데 아무런 답장이 없군요. 그래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 직감을 당신 의식이 속삭이는 언어로 생각하세요. …(중략)… 속아 넘어가고 희생물이 되는 것은 그만하면 충분해요. 당신이 진지한 고백을 해준 이상 난 당신을 용서하고 이후로 어떤 비난도 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놀랍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당신이 좀 더 자유롭고 마음이 편하다면 난 그런 기이한 변심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당신이 모든 병으로부터 조속히 치유되기를 빌어요. 그게 지금의 내 바람이에요. 그리고 9년간의 독점적인 사랑을 이렇듯 기이하게 결말지어준 것에 대해 신께 감사드려요. 가끔씩 소식 전해주세요. 나머지 일을 재론한다는 것은 무용한 일이에요.

1847년 7월 28일 상드가 쇼팽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편지4」 112p)

친구들이 말렸지만 두 사람의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별 후 두 사람은 1848년 한 번 더 만났고 이듬해 10월 쇼팽은 서른 아홉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3,000여 명이 넘는 조문객 틈에 상드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쇼팽의 마지막 해에 아픈 그의 곁을 지키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며 5,000프랑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장례비를 전부 지불한 사람은 쇼팽이 '육체적으로 끌리는 데가 한 구석'도 없다고 얘기한 스코틀랜드 출신 제자 제인 스털링(Jane Stirling)이었습니다.

---

* 「편지2」 356p 조르주 상드 지음 | 이재희 옮김 | 지식을 만드는 지식 | 2011
** 「쇼팽, 그 삶과 음악」 137p 제러미 니콜러스 지음, 임희근 옮김 | 포노 | 2010
*** 「쇼팽, 그 삶과 음악」 224p

글. 김재환_ Kim, Jae-hwan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건설감정

Construction Appraisal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워싱턴주립대 Law School로 연수를 다녀왔다. 제32회 사법시험,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한 후 1993년부터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영동지원, 홍성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으며, 겸임으로 옥천군, 보령시, 대덕구 등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 조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형사소송 전문가로서 〈2013년 형사소송법(법문사)〉와 〈국민참여재판-이론과 실제-(베리북스)〉를 출간한 바 있다.

1. 건설감정의 의의와 종류

상당 부분의 건설 관련 소송이나 조정사건의 경우, 전문감정인의 감정은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나 조정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쟁해결의 전제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건설감정은 감정내용에 따라 ①적산감정, ②하자감정, ③손상원인 · 상태감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적산감정은 추가 · 변경공사로 인한 공사비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고, 하자감정은 건축물의 하자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보수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손상원인 · 상태감정은 건축물 손상의 원인이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 감정인 지정

감정인 지정은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감정인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감정인 선정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감정의 감정인 명단은 건축사 · 건축구조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속단체가 추천한 사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매년 12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감정인을 선정해줄 것을 신청하거나 감정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선정할 수 있다. 예컨대, 감정사항을 감정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의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정하여 감정인을 지정한다.

3. 감정료

통상적으로 감정신청 당사자에게 이를 예납하게 한 다음 감정종료 후 재판장이 결정한 감정료를 지급한다. 감정료 예납액은 재판장이 감정인에게 항목별, 투입인원별로 자세한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감정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대상, 방법 등을 종합하여 그 액수를 정하여 감정신청인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정료 결정은 재판장이 감정서 제출시 산출근거가 상세히 기재된 감정료산정서와 감정료청구서를 감정인으로부터 함께 제출받아 감정서 내용의 충실도, 감정서 제출의 지연 여부, 감정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4. 감정자료

감정은 소송 등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법원이 지정하여 제시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행하게 되는데, 보통 감정인에게 교부되는 자료로는 계약서, 설계도, 시방서(일반 또는 특기시방서), 공사내역서, 구조계산서, 현장설명서, 시공상세도면, 자재구입표, 작업일보, 현장사진 등과 같은 시공 관련서류, 도면, 사진 등이 있다. 법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이 제공한 자료를 함부로 감정자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감정 진행 중 감정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먼저 법원에 연락하여 사정을 밝히고, 감정자료를 교부받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감정의 내용과 방법

가. 적산감정

추가 · 변경공사비의 감정사항은 실제로 시공된 공사부분이 추가 · 변경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증가된 공사비용이다. 추가 · 변경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지만, 비용 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곤란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양적인 증가부분에 관하여는 기존의 시방서, 일위대가표 등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질적인 증가부분에 관하여는 공사관행이나 정부품셈기준 등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감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기성고를 감정하는 경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등 참조) 기성고 확정의 시점은 ①분할지급의 경우에는 약정된 대금지급일, ②공사도급계약 중도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서 이 날을 기준으로 자재비, 노임 등을 산정한다.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 공사비 중 기성고 비율[=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에 의한 금액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달리 산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93667 판결 등 참조)

나. 하자감정

건축물의 하자란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도급계약의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이 미흡하여 건축물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흠이나 결점을 말한다. 예컨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처짐 · 비틀림 · 침하 · 파손 · 붕괴 · 누수 ·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 미관 또는 안정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흠(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등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균열폭 내의 균열도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9939 판결 참조)

하자는 공사가 중단되어 최후공정이 완료되지 못한 미완성과 구별되는데, 공사가 당초 예정된 추후의 공정까지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비를 감정하지만(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판결 등 참조), 미완성의 경우에는 기성고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서 말하는 하자는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모두를 포함한다.

하자감정시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하자보수비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등 참조) 법원이 감정인에게 그 구체적인 판단사유와 교환가치의 차액 또는 공사비 차액(교환가치의 차액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을 보수비용으로 산정하도록 요청하게 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등 참조)

하자가 중요한 경우의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의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인 교환가치의 평가는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복성식 평가법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감가수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완공시의 재조달 원가를 산정 비교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판결 등 참조)

고층건물의 외벽 균열보수공사나 도장공사의 경우 고소작업이 필요하므로 그 특성상 품의 할증을 감안해야 하는데,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고소작업 및 기타의 능률저하를 고려하여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의할증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높이에 따라 위험할증률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고층건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전체 평균할증률을 계산하여 위험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 부분도장이 필요한지 전체도장이 필요한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경우에는 부분도장의 경우와 전체도장의 경우로 나누어 보수비를 산정하게 된다.

다. 손상원인 · 상태감정

손상원인 · 상태를 감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굴착과 인접건물의 균열 등 사이의 인과관계와 피해 확대 가능성, 건축물의 붕괴 가능성 등을 감정하게 된다. 다만, 심굴 굴착공사로 인하여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축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더라도 더 이상의 심굴 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고 침하와 균열의 확대 가능성이 없다면 대지의 침하, 건축물 균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만이 문제된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참조)
대지 · 건물의 침하나 균열 등의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비,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가 될 것이므로(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등 참조) 이를 감정하게 된다. 하자보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하자보수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환가치가 그 손해액이 되므로(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등 참조) 하자보수비가 건물의 시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시가감정까지 명하게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감정시에는 보수비와 보수소요기간까지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비는 불법행위 당시의 건설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감정서의 작성

가. 제출기한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까지 감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감정서 제출기한은 법원이 감정을 명할 때 감정인에게 감정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감정인이 법원이 요구한 감정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원과 당사자 쌍방에게 알리고 제출기한을 연장받아야 한다.

나. 작성방법

당사자가 감정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되면 기피신청(민사소송법 제336조)을 할 수도 있으므로 감정인은 분쟁 대상인 건설현장이나 건축물 등을 조사할 때 특정 당사자와 접촉하면서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그 현장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표명하는 등의 행동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감정서는 감정사항에 대응하는 감정결론과 그 결론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하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주석이나 해설을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 사진, 그래프 등과 같은 설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자보수비나 기성고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신축공사 견적서와 같은 공사별내역견적서 방식이 아니라 항목별 공사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관리비를 계산 · 합산하여 보수비가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재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성고 확정의 경우에는 기성고 비율의 근거가 되는 기성부분과 미완성부분의 공사내역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감정서에 첨부되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내역서 등과 같은 서류, 사진 등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정서 제출 이후

가. 감정의 보완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전제로 삼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감정내용에 모순이 있는 경우, 감정결과가 불명확한 경우 등과 같이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감정보완신청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감정인은 감정사항에 관하여 자신의 감정의견이 합리적 근거가 있고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감정보완결과가 충실하지 않으면 동일한 감정보완신청이 반복되고, 불필요한 감정인신문(민사소송법 제339조①)이 실시되는 등 소송절차가 지연되므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감정보완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정인신문

재판장은 감정인에게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고 이 외에도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39조①) 이를 감정인신문이라 하는데, 증인신문절차와는 달리 감정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감정에 전제되는 사실관계의 확인, 판단결과 및 추론과정의 확인, 판단결과 및 추론의 근거에 관하여 반대의견이 있는지 여부, 반대의견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 여하, 감정서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등에 관하여 신문이 이루어진다.

다. 재감정

재감정은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감정인 또는 다른 감정인에게 다시 감정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재감정이 흔하지는 않지만 감정결과가 감정보완이나 감정인신문으로도 불충분하거나 감정절차가 위법한 경우 등에는 재감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8. 감정서의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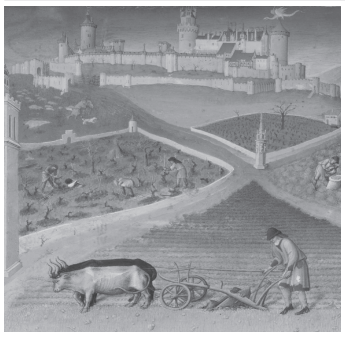
원칙적으로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 ·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감정결과를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건설 관련 소송 등 사건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건설과 법률 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법관의 전문지식의 한계로 인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에만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1763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230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수개의 감정결과 중 일부 사항씩을 부분적으로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등 참조)

글. **김영재**_ Kim, Young-jae / 건축학 박사
김득수_ Kim, Deuk-soo /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호서은행본점의 입지배경과 그 도시적 의미(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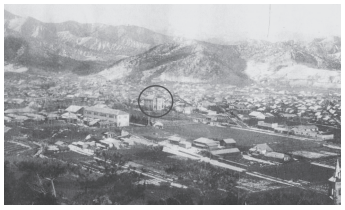
Background in Situating the Ho-Seo Bank(HQ), and Its Urban Meaning


Lusignan성 아래의 경관
Limbourg brothers(1415)


본정사거리, 2등도로의 결절점



호서은행의 배치(中村/펠러 설계)


호서은행 본점


토요하시(豊橋) 공회당의 배치(中村설계)

그림 1. 호서은행의 배치(토요하시공회당과 비교)와 예산의 도시경관(1940년대)

5. 호서은행본점의 도시적 의미

5.1. 영역표시를 위한 기념비성의 표상

호서은행본점은 2등도로의 상행선과 하행선, 그리고 본정통가로가 만나는 길목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삼각형대지에 기존 질서를 깨고 사다리꼴형 평면으로 건립되었다. 세 갈래 길이 만난 건물 출입구 앞은 자연스럽게 비어있는 소광장(공개공지)이 형성되었다.

한편, 전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출입구의 박공지붕은 면처리를 했고 돔과 맨사드지붕을 올렸다. 이것은 기단부, 출입구, 건물몸체, 지붕, 다락층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오스트리아 · 독일 세제션풍 입면구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1]. 이러한 건축형식은 나카무라와 펠러가 설계한 한국과 중국의 은행건축에서 즐겨 사용하던 방식이었다[2]. 이는 건축양식의 선택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물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삼각형대지를 과감하게 잘라 공공에게 돌려주고 대신에 건물의 전면성을 강조하는 근대적 도시설계기법을 적용했다.[3] 즉, 호서은행의 전면 소광장은 모든 교통이 모이고 반대로 모든 교통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는 결집점(본정통, 철도역, 홍성, 공주로 가는 길목)이자 도시중심으로 들어가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을 포용하는 공공장소이자 도시의 시작점임을 알리는 표식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나카무라가 설계한 토요하시 공회당(1931)에서도 보인다. 사각형 대지 안에 건물을 채우기보다는 광장을 통해

1) 김영재 2013, op. cit. pp.167-168.
2) Ibid. pp.163. 그들은 조선은행장춘지점(1920), 한성은행대구지점(1920), 조선은행군산지점(1922), 한일은행본점(1921), 조선은행대구지점(1922) 등에도 세제션풍의 디자인을 도입했다.
3) 이러한 배치방식은 아돌프 로스(Adolf Loos)의 로스하우스(Looshaus)에서도 보인다. 로스하우스는 드라이라우퍼하우스(Dreilauferhaus)가 있던 기존의 삼각형 대지를 포기하고 도로면의 꼭지점을 절개하고 도로로 삼았으며, 주변 기존건물들의 맥락에 맞춰서 파사드면을 도로서클과 마주보게 배치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도시설계개념의 시초를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이 호서은행 배치와 유사하다. David Leatherbarrow 1993, The Roots of Architectural Invention: Site, Enclosure, Materi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56-58 ; David Leatherbarrow 1984, 'Interpretation and Abstraction in the Architecture of Adolf Loos',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vol. 40, no. 4, pp.6-8.
4) 이 도로표석과 동일한 것이 비엔나 근처 스핀네린 암 크로이츠(Spinnerin am Kreuz)라 불리는 비엔나에서 헝가리로 가는 길목에 서있다. Martin Warnke 1995, Political Landscape: The Art History of Na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pp.9-10.

비웠고, 파사드면은 세제션과 스페인 콜로니얼 양식이 결합된 쌍탑 사이 높은 계단 위에 5개 열주로 구성된 출입구가 삼거리 중앙도로를 바라보면서 강한 전면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1 左下).

두 번째로는 은행건물이 가져야 할 "견고함과 안전함"을 조각과 같은 매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1층(5.78m)과 2층(4.71m)의 층고, 기단부, 긴 세로창, 상부돔, 포티코 등은 수직성을 더욱 부가시켰으며, 조각과 같은 매스는 고전 오더로 장엄했던 전형적인 은행건축 모델을 탈피하고 있지만, 돔과 포티코, 대칭구성은 역사주의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호서은행에는 세제션이 추구했던 새로운 사회의 건축형식과 은행건물이 표상하는 "견고함과 안전함"이 보인다는 점에서 동시대에 러시아와 독일의 동아시아지역 식민지에 건립된 세제션풍의 건물들과 구별된다.

조각적인 견고한 형태는 근대도시에서 길목(입구)이나 중심부에 서 있는 거대한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호서은행영역을 경계로 "시장중심의 도시"와 "농업중심의 촌락"이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있다.

이것과 유사한 관점이 1415년 링브루형제(Limbourg)의 베리공 시력에 있는 뤼시냥성(Chateau de Lusignan)풍경에서도 보인다. 그림에서 사거리교차점 중앙에는 석조건축물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도로표석이다[4]. 이 기념비의 순기능은 통행목적의 표식이 아니라 영주영역을 표식하고 군주의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봉건시대의 영주, 교회 및 부르조아 계급의 정체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건축에서의 기념비성은 강력한 영향력의 표현이었던 것이다(그림1 左上).

그러나 루이스 멈포드는 인간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공건축에서 이러한 봉건주의적 것은 반사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근대 기념비성의 개념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만약 어떤 것이 기념비성을 지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근대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이 근대적인 것이라면 기념비성을 지니면 안 된다"고 했다[5]. 즉, 근대 자본주의사회 생활에서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건축의 성격은 봉건사회의 것과는 무관하므로 기념비성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제션운동을 시작했던 오토 와그너(Otto Wagner)는 근대사회로 변화되었음에도 대중이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이상향과 소통하는 것으로서 기념비성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6].

더군다나, 지크프리트 기디온(Sigfried Giedion), 호세 루이스 셔트(Jose Luis Sert) 등은 자본주의 민주주의상징의 영역에 기념비성을 포함시키려 했다[7]. 이러한 맥락에서 예산본정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입지한 호서은행본점에 재현된 기념비성은 정치적 측면에서 우월성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근대성을 보여주는 공공영역과 공공건축으로서 "한인자본을 표상하는 기념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24년 「開闢」에서도 "예산역에서 동남쪽으로 高利냄새 나는 대건축물 호서은행이 번듯이 보이고"라는 표현과도 부합된다. 즉, 지역경제의 중심도시임을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다[8]. 호서은행은 자율성과 개인성에 기반을 둔 이익사회(Gesellschaft)뿐만 아니라 전통과 관습에 기반을 둔 공동체사회(Gemeinschaft)를 대변하고 있다. 즉, 은행건축 자체가 자본중심 이익사회를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인토착자본가들의 은행으로서 일본계 은행과의 대등한 경쟁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인자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자급자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사회의 속성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양상이 기념비적 매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9]. 이것은 브루노 타우트(Bruno Taut)가 말한 "건축은 새로운사회적 의식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도 부합된다[10].

---

5) Lewis Mumford 1937, 'The Death of the Monument', Circle: An International Survey of Constructive Art, James L. Martin, et al. eds., Faber & Faber, p.264.

6) Ivan T. Berend 1998, Decades of Crisis, Central and Eastern Europe before World War II. Berkeley, p.91.

7) J. L. Sert, F. Leger, S. Giedion 1993, 'Nine Points on Monumentality',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A Documentary Anthology, Joan Ockman, eds. Rizzoli, pp.29–30.

8) 엄벙이 1924, "忠淸南道 충청남도를 보고", 「開闢」, 제46호.

9) 관습과 전통에 따르는 공동체사회는 교외지역에서만 발견되며 게젤샤프트는 도시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Ferdinand Julius Tönnies 2001, Community and Civil Society, Cambridge, pp.22–52.

10) Bruno Taut 1929, Modern Architecture, The Studio Limited, p.9.

5.2. 호서은행본점과 근대적 도시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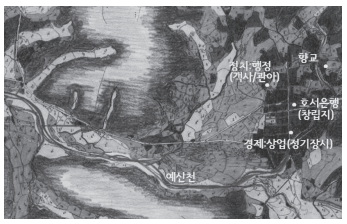
5.2.1. 호서은행 본점 설립과 도시의 성격변화

해동지도와 1911년 강점 직후에 제작된 예산지적도를 보면, 조선후기-대한제국시기 예산의 중심부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예산 북쪽 금오산 아래 객사(고을수령이 임금에게 망궐례를 하고 고을을 방문한 관리를 위한 숙소)와 관아(동헌)가 있고, 그 앞에 주거와 상업점포로 구성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도시외곽에 교육 및 제사공간인 향교(前學後廟식, 현존)가 입지했다(그림2 左上/左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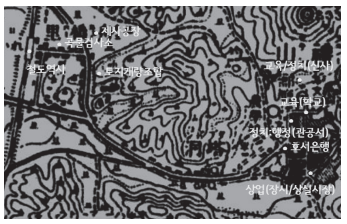
그러나 1923년 이후에 객사와 향교를 제외한 관아시설을 철거하고 보통공립학교(1923년이전), 헌병대(1923), 군청사(1923년 11월 26일 낙성식), 공주지방법원출장소(1931), 금융조합(1931), 신명유치원(1928) 등이 들어선다. 반면에 시가지 남쪽과 예산천을 따라 대규모 장시가 정기적으로 열렸으며, 1926년 이후에는 우시장, 도살장, 채소류, 젓갈류, 도기류 등을 파는 점포가 들어서면서 상설시장으로 발전했다. 시가지의 외곽은 전과 답으로 둘러싸여 있었다[11](그림2 右下).



禮山縣海東地圖(18세기, 左上)



禮山地籍圖(1911. 10. 15, 左下)



禮山地籍圖(1927, 右下)

그림 2. 시대별 도시변화 / 18세기(左上), 1911년(左), 1927년 (右下)

일제강점 이전의 예산은 북쪽 끝에 객사와 관아의 행정지역인 정치적 공간과 남쪽에 정기장시를 위한 상업지역인 경제적 공간,



1927년시가지(동[시장]-서[호서은행, 일본인학교])



1931년경 시가지(남-북[군청, 보통공립학교])

그림 3. 일제강점기 예산의 정치 · 경제 · 교육 공간

도시외곽에는 교육공간이자 문묘(제사)공간인 향교가 있었다(그림2 左下). 일제강점 이후 북쪽영역은 한국인을 통치하고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 및 교육공간으로, 남쪽영역은 한국인들이 주도된 상설시장으로 변모된다(그림2 右下). 상설시장의 서편에 새롭게 분할된 필지는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된다[12].

또한 2등도로 서쪽편을 따라 홍성으로 가는 길목에 철도역사(1922년 6월)와 호서은행(1922년 11월)이 차례로 들어섰다. 철도역사 주변에는 새로운 시가지가 만들어진다. 그곳에는 호서은행이 경영했던 충남제사공장(1927), 물자 수송과 관리를 위한 농협창고(1925), 전매지국출장소(1930), 토지개량조합, 곡물검사출장소(1928) 등 산업관련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었다(그림2 右下). 한편 호서은행본점이 홍성과 예산역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2등도로변에 이전된 이후, 은행 건너편의 전답은 건축용필지로 전환되어 주재소(1923,경찰서), 금오일본인학교(1927), 남성합동전기회사(1929), 세무서(군청지에서 1934년 주재소 옆으로 이전), 공립농림학교(1922, 1911년 공주에서 개교한 충청남도공립학교의 이전), 충남자동차운수(1931) 등이 들어섰다(표1)(그림4). 2등도로를 통해서 북쪽면에 입지한 군청사, 헌병대 등과 연결이 된다. 결과적으로 1923년 이후부터 2등도로를 중심으로 "행정 및 교육영역"이 형성되었다(그림3 左). 반면에 시가지 남쪽은 한인들이 중심이 된 "경제(상업)영역"이 조선시대 이래로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본정통사거리에서 예산천까지 한인들이 운영하는 상설점포가 즐비해 있었으며, 점차 예산천 너머로 확장되었다.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본정사거리 서쪽 편에는 일인점포들이 위치했다(그림3 右).

11) 김득수 · 한동수 · 김영재 2007, op. cit. pp.31-32.
12) Ibid. pp.31-34.
13) Ibid.

5.2.2 중심부의 기능변화 : 정치 · 경제의 공간에서 정치 · 교육 · 경제의 공간으로

호서은행이 처음 창립될 당시인 1913년(본정통사거리 위치, 1편 그림1 참조)에는 병원, 약국, 공립학교(1923년 옛 동헌위치로 이전)만이 근대적 시설물로 존재했다[13].

1922년 6월 철도부설 및 예산역사 건설과 동시에 같은 해 11월 2일에 호서은행본점 이전과 맞물려서 덕산-홍성-예산역-예산-공주를 연결하는 2등도로가 1923년에 확장 · 개통되었다.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본정통과 남쪽편의 상업(경제)영역과는 별개로 2등도로를 따라 일본인거주지와 식민경영을 위한 공공건물들이 시가지의 서측면에 입지했고, 계속해서 시가지 북측면에 입지했던 조선의 관아시설을 철거하고, 도시경영과 통치에 필요한 군청, 헌병대, 공립보통학교 등을 본정통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에 입지시켰다. 군청은 바로 서쪽에 인접한 조선객사를 사이에 두고 주거지와 조선관아지를 합필해서 건설했다.

그 주변을 따라 청사후면에는 관사가, 청사전면에는 세무서(1934년 주재소 옆으로 이전)와 법원출장소가 입지했다(그림3(左), 그림4)(표1 참조). 이러한 정치적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문화)공간이 중심시가지에 추가되었다.

공립농림학교(1922)와 일본인학교인 금오공립학교(1927)가 주재소를 사이에 두고 입지했으며, 예산공립보통학교(1923)가 군청과 헌병대 옆으로 이전했다[14]. 또한 1930년대 이후에 황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신사가 금오산 중턱(현 예산문예회관)과 공립보통학교 안에 세워졌다[15](그림4).

일제강점 이전의 예산은 조선시대의 여느 다른 지방도시와 다르지 않았다. 즉, 예법을 존중하는 유교적 질서 아래에서 도시가 구성되었다. 북쪽에는 산을 등지고 높은 지대에 왕을 위한 망궐례와 접객을 위한 객사, 통제 및 행정을 위한 관아가 입지했는데 이것은 조정의 존엄함을 보이기 위해 고려된 것이었다. 한편, 관아에서 내려다보이는 시가지 남측 예산천 주변에는 자본을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상업점포시설물이 즐비해 있었다[16].

이 공간은 조선후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정기적으로 장시가 열리면서 성장한 영역이다. 조선후기 예산의 도시풍경은 유교적 전통의 영향 아래 지배자의 명령을 수행하고 제사 지내는 데 치중한 행정도시성격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근대적인 상업도시로 서서히 변모해 가는 과정에 있었다. 이러한 정치 · 경제적 환경에서 정기적으로 열린 대규모 장시를 통해서 예산을 거점으로 한 한인토착지주들은 상당한 자본을 축적했다(2편 표3참조). 그리고 그들이 호서은행의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일제강점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 상업공간은 한인토착자본가들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결과로서 호서은행의 창립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표 1〉 1923년을 기점으로 공공건축의 건립현황(건축연도는 동아일보 1929년 1월 13일자 참조)

용도	1923년 이전(건설순서)	1923년 이후(건설순서)	한국인에 의한 자율적 산물	일제에 의한 타율적 산물
관청 / 공공 / 도로	예산역/급수탑(1922) 경남철도개통 (1922.6, 천안-예산신례원) **예산관통 2등도로확장(1923)** **2등도로 예산역 연결(1923)** 예산군청(1923) 예산주재소(1923) 헌병대이전(1923)	예산우편소(1924) 예산역농업창고(1925) 곡물검사소출장소(1928) 남성합동전기회사(1929) 전주전매국출장소(1930) 예산양조주식회사(1931) 공주지방법원출장소(1931) 충남자동차운수(1931) 예산세무소(1934) 예산극장(1936) 예산읍사무소(1940)	• 경남철도 신례원역(예산) 관통추진(1921) • 도로확장/역과 연결추진(1922) • 호서은행본점 신축이전(1922) • 2등도로확장/역과 연결(1923)	• 군청(1923) • 주재소(1923) • 공립학교이전 (1923) • 헌병대(1923) • 금오공립(1927) • 세무소(1934)
은행	호서은행창립(1913) **호서은행본점(1922.11.2)**	예산본점→지점(1927), 천안 지점→본점(1927), 호서/한일합병→동일(1931), 예산금융조합(1931)		
학교	예산공립학교설립(1913) 중국화교초중학교(1920, 中) 예산농업공립학교 (1922, 1911년개교) 예산공립보통학교(1923)	공립학교이전(1923) 금오공립보통학교(1927, 日) 예산신명유치원(1928)		
공장	충남상사(1918)	개창→충남제사공장(1927)		



〈그림 4〉 1930년대도시공간
굵은선:2등도로(홍성-예산역-예산-공주)

그러나 일제강점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예산은 1922년 6월 경남철도 개통과 11월 호서은행본점이 예산역사와 연결된 2등도로변으로 이전하면서 식민상업도시로서 빠르게 변모되었다. 과거 조선관청이 입지했던 자리는 학교, 군청사, 관련시설들이 차지했으며, 기존의 상업공간은 철도 개통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전해서 영역이 예산천 너머로 확장되었으며, 더불어 인구도 증가했다.

14) "十年一覽 顯著히 發達된 燦然한 地方文化 (其十二)", 동아일보 1929.01.13. 제일(감리)교회(1927), 남성합동전기회사(1929), 충남자동차운수영업소(1930), 예산성당(1935), 예산극장(1936) 등이 그 주변을 차지하였다.

15) 김득수 · 한동수 · 김영재 2007, op. cit. pp.28-29.

16) Ibid. pp.31-32.

조선시대에는 외곽에 위치했던 교육과 문묘(제사)영역이 강점 이후 일제의 식민교육을 위한 학교와 신사로 변질되고 행정영역과 결합되면서 하나의 정치적 공간으로서 변모한다.

향교와 객사는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예(禮)'를 실현하는 건축유형이었다. 예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제사를 수행하는 장소였다. 훈육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예와 공자를 위시한 선현들에 대한 예를 정당화시키고, 제사를 통한 정신적 신체적 행위를 반복해서 사람들의 삶을 장악하는 권력의 메카니즘을 실현시켜주는 건축물이었다. 이러한 예(禮)를 훈육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공간은 일제강점기에는 서양식 교육체계인 학교와 일제의 제사시설인 신사로 옮겨갔던 것이다. 일제는 학교를 통해서 지배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한국인에게 자신들이 필요한 신체를 만드는 교육을 강요했다[17].

신사에서의 반복된 예배도 한국인을 일제의 식민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의식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보통학교, 금오학교 등 식민교육을 담당한 학교와 통제를 위한 관공서는 건물의 규모에 있어서도 주변의 주거용과 상업용건물을 압도했다.

이것은 유교적 규범에 맞춰서 위계적으로 건물을 배치한 관아(외삼문-관청-내삼문-동헌), 객사(외삼문-내삼문-정청), 향교(외삼문-내삼문-명륜당-대성전)가 규모면에서 주변을 압도했던 것과 부합된다.

5.3. 도시공간의 특성 : 타율적 "관(官)"과 자율적 "민(民)"의 공간[18]

일제강점시기에 호서은행 창립과 본점 이전을 통해서 예산은 두 단계의 도시변화를 거쳤다. 먼저, 조선후기 경제적 우위를 점해왔던 예산의 한인토착자본가들에 의해 호서은행(1913)이 설립되고, 충청권의 군면통합(1914)을 거쳐, 철도부설(1922년 6월)과 철도역사건설(1922)에까지 이어지는 단계이다. 이것은 조선후기 상업과 농업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자본을 축적한 한인토착지주들이 자율적인 의지를 통해서 은행 설립을 추진한 결과이다. 예산을 중심으로 충청권에서 자금줄을 쥐고 있었던 한인토착지주(지식인)들은 예산에 호서은행창립(1913)과 철도역사의 입지 선정을 주도했고, 심지어 기존도로를 확장 · 개통(1923)을 위한 여론형성에 앞장섰다[19].

두 번째는, 철도 개통 5개월 후에 호서은행이 철도역사와 연결된 2등도로변에 신축 이전(1922년 11월)하고[20], 1923년 이후에는 일제가 설치한 관청과 학교(군청, 헌병대, 주재소, 세무서, 금오학교 등)가 2등도로변을 따라서 입지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예산이 1923년 이후 식민상업도시로서 타율적 공간으로 점차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표1 참조). 그러나 1931년 동아일보주최 「주요도시 순회좌담」(취재기자 이만찬)을 보면[21], 8명의 한국 인사들이 참여한 예산의 미래상에 대한 토론에서 구시가지의 상업기반과 철도역사 주변 신시가지의 연계 및 자본축적을 위해 필요한 도로나 학교, 관공서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제안하고, 예산역 중심으로 모든 공공시설들이 이전되지 못한 것을 비판했었다.

이들의 제안은 일제에 의해 통제된 식민사회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 걸맞게 집합적 소비재(도로, 시장, 교육, 병원 등의 공공시설)의 생산을 통해 새로운 노동력이 재생산되고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공간 창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의 통제와는 별개로 한국인들이 주축이 된 자율적 시민의식을 담고 있었다. 또한, 철도부설 이후 예산은 시장과 시장의 이동시간이 단축되면서 더 이상 상인들이 장시를 오가며 행상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

오히려 사람들의 이동반경과 물품의 유통반경이 넓어지면서 상설점포가 늘어나게 되고, 점차 상설시장으로 변모된다. 즉, 이들 상업공간은 한국인들에게 집합적 소비재의 주요부분으로서 자본이 축적되고 생산활동과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었다.

---

17) Michel Foucault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Alan Sheridan, trans, Pantheon Books, New York, pp.191–222.

18) 일제강점기 예산지역 한국인들의 주체적 시민의식에 의해 형성된 자율적 공간과 일제에 의한 주도된 타율적 식민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고찰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김득수 · 한동수 · 김영재 2007, op. cit. pp.21–38.

19) "경남철도 개통과 예산의 장래", 매일신보 1922. 7. 2.

20) 호서은행 신건축을 위시하여, 경찰서, 보통학교, 농업학교의 신건축 등으로 예산의 진면목을 일신케하였다. "분망한 건축", 매일신보, 1922. 7. 2.

21) 토론에 참가했던 8명은 다음과 같다. 순천의원장 이종대, 곡물상조합장 성관영, 예산신명유치원 원감 김영경, 예산교회 목사 심명목, 예산면장 이현세, 예산면 협의회원 김흥모, 실업가

즉, 타율적인 공간이기보다는 근대시민사회에서 개인(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율적인 공간이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지역이 1923년 이전까지 근대적 도시공간으로 재편되는 과정은, 식민도시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지배집단(일본인)이 주도가 되어야 하지만[22], 실제로는 한인토착자본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타율적 "관(官)"과 자율적 "민(民)"이 공존하는 한국적 근대도시형성과정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6. 결론

호서은행의 입지배경과 은행설립을 통해 나타난 도시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서은행은 한국인토착자본가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과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을 받은 토착지주와 상인들이 경영했다는 점에서 일제의 영향 하에 있던 다수의 일반은행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호서은행본점이 예산에 입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선후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내포지역에서 지방장시를 기반으로 한 한국인 거상과 대규모 전답을 소유한 순수토착지주들이 예산을 중심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축적한 자본을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이 필요했다. 이들은 호서은행 설립을 통해 인천과 군산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인 내포지역에서 독자적인 상업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17년 이후 전국을 기준으로 일인자본이 한인자본의 80%이상 점유한 시점에서 호서은행은 토착지주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장시에서 일제자본침투를 억제시키면서, 지방상공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호서은행은 당시 서울에서 활동했던 나카무라와 펠러가 설계했다. 이들이 설계한 호서은행은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세제션풍과 르네상스 팔라쪼풍, 바로크풍의 고전주의양식을 절충한 형식이었으며, 자신들이 동시기에 설계한 다른 은행건축(조선은행 장춘지점, 군산지점, 대구지점 등)에 사용된 양식과 동일했다. 즉, 호서은행이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었음에도 건축양식상 별다른 특이점은 없다는 것이다.

3.1독립만세운동 이후에 불안한 정치상황에서 호서은행의 한국인 경영자들이 일본인에게 설계를 맡겼다는 것은 나카무라와 펠러 외에는 은행을 전문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건축가가 없었기 때문이다[23].

이것은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 대교당의 경우도 안톤과 나카무라에게 설계를 맡겼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을 읽을 수 있다. 경영자들이 호서은행의 디자인에 관여한 유일한 것은 돔지붕의 하부벽면에 호서은행을 상징하는 휘장을 부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 독일, 일본의 지배지에 건설된 세제션풍의 관공서 건물에서 지배자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선택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호서은행의 높은 층고와 조각적인 매스는 기존 낮은 건물들에 둘러싸여 예산의 도시경관을 지배했었다. 따라서 기념비적인 매스는 일제침략자들을 향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만은 이 지역은 동등하다는 호서은행 한인경영자의 의지를 보여준다.

호서은행의 입지를 통해 나타난 도시적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호서은행본점은 공주-홍성-예산 본정통으로 가는 삼거리의 결집점이자 갈림길의 정점에 있는 삼각형 필지 위에 건설되었다.

건물은 필지선을 순응하지 않고 꼭지부분은 공공을 위한 장소로 두고, 나머지 필지에 전면성을 강조한 건축물을 세웠다. 이것은 근대시기에 나타난 도시설계 접근방식과 부합된다.

이재찬, 호서기자동맹 성낙훈이다. 이종대는 공장을 설립할 것, 성낙훈은 도시정리를 위해서 서울처럼 건축회사를 설립할 것, 성낙영은 도시 안에 공동변소를 설치할 것, 성관영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예산시가지를 연결하는 직통도로 개설과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회당 건설, 이현세는 예산에 하천정리 필요성과 특히 삼거리(三巨里)방면에 하천정리 등을 제안했다. "主要都市巡廻座談 禮山篇(122-126)", 동아일보 1931. 2. 8, 2. 10, 2. 12, 2. 13, 2. 14, 동아일보에 5회에 걸쳐서 연재되었다.

22) 西澤泰彦 2008, op. cit, pp.119. 일제가 식민지들에 대해서 '관민일체(官民一體)'의 지배를 했다고 말한 니시자와 야스히코의 주장은 분명히 틀렸다. 그의 연구의 가장 큰 오류는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관동도독부의 지배자의 자료만을 근거로 서술했기 때문이다.

23) 김영재 2013, op. cit, p.161. 각주 20 참조.

또한, 은행건축의 표상을 더욱 강조하는 데 있어서 과거 역사주의건축의 선례들을 추상화시키고, 견고하고 조각적인 세제션풍의 결합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즉, 그것은 "견고함"과 "안전함"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예산은 지방장시의 중심지역으로서 조선시대부터 자본의 집적지였다. 조선후기에 등장한 예산을 거점으로 하는 한인순수토착자본가들은 강점 이후에도 여전히 장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이들은 대다수가 거점으로 삼은 예산에 호서은행이 창립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대규모 정기장시를 기반으로 한 물류집산지는 일제침략자들에게도 수탈이라는 명분하에서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천안과 예산을 연결하는 경남철도(1931년 천안-군산 간 완전개통)가 1922년 6월에 개통된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로는 한국인 자본가들이 예산 근처로 철도역사 유치 및 구도심과 역사 간의 도로 확장개통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속에서 호서은행본점(1922년 11월 2일 이전)을 철도역과 연계된 2등도로변에 신축 · 이전을 결정했으며, 일제 주도의 철도사업에 한인자본가들이 예산철도역사 건설과 도로확장 등의 건설에 직접 자금을 경남철도회사 등에 기부해서 지역발전사업에 참여했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의 한국인은 자신들이 정주하는 도시공간을 일제에 의해 종속된 타율적 공간이 아니라, "생산-소비-자본축적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예산의 근대적 도시공간은 유교도시, 상업도시, 식민도시의 면모가 함축되어 있다. 조선시대 후반기에 예산은 질서를 중시하는 유교주의적 도시계획규범에 맞춰서 교육-문화, 정치-행정, 상업-경제로 위계적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22년 6월 철도부설과 11월 호서은행이 철도역사와 연계하기 위해 2등도로변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식민상업도시로 변모되었다.

과거 조선관청이 입지했던 영역은 군청사와 관련시설 등으로 채워졌다. 조선후기에 발달하기 시작한 상업공간은 남쪽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외곽에 위치했던 교육과 문묘(제사)영역이 강점 이후 식민교육을 훈육하기 위한 학교와 신사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교육과 행정의 영역은 일제에 의해 조성된 타율적 공간이자 훈육 및 통치의 공간으로 변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서은행 입지는 강점 이전부터 등장한 한국인 상인과 지주들의 활동의 부산물이었으며, 신축 이전하게 된 동기도 철도부설(예산철도역사)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기존 식민도시의 형성근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호서은행은 일제의 '관민일체'에 의한 "타율적 산물"이 아닌 '한국인자본'에 의한 "자율적 산물"이었으며, 일제강점 상황에서도 '民'에 의한 "자율적 도시공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득수 · 한동수 · 김영재 2007, "일제강점기 근대도시의 도시공간구조와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제8권, 3호, pp.21-38.
2. 김영재 2013, "나카무라 요시헤이의 서양건축양식의 수용과정과 그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9권, 5호, pp.159-170.
3. 度支部司稅局 1909(隆熙3), 韓國各府郡 市場商況 調査書.
4. 朝鮮總督府忠淸南道編 1915, 朝鮮總督府忠淸南道統計年報(1913년 현황), 朝鮮總督府.
5. 朝鮮総督府臨時土地調査局 1919, 朝鮮地誌資料, 朝鮮総督府.
6. 田中市之助 1921, 忠南産業誌, 大田實業協會, 大田.
7. 東亞經濟時報社 1921, 1929,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京城.
8. 鮮總督府 財務局 1928, 朝鮮金融事項參考書.
9. 善生永助 1929, 朝鮮の市場經濟, 朝鮮総督府.
10. 安齊霞堂 1932, 忠淸南道發展史, 湖南日報社, 大田.

74 *SERIAL*

연재.

글. **천장환**_ Cheon, Jang-hwan
•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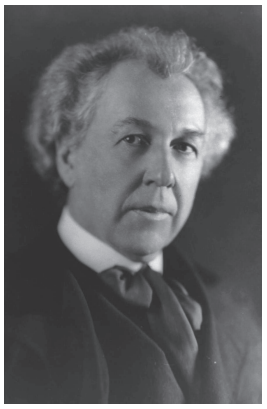
라이트 vs. 미스

Frank Lloyd Wright vs. Mies Van der Rohe

들어가면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건축 활동을 했는데, 이 시기는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창기 10여 년 동안에 젊은 주택작가로 활발히 활동했던 '제1의 황금기'(1893~1909), 그 뒤 20여 년 동안에 "시대에 뒤처진 건축사"란 조롱을 받으며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상실의 시기'(1910~1934), 극적으로 부활하여 말년에 그 어떤 건축사도 누리지 못한 명성을 누렸던 '제2의 황금기'(1934~1959)로 나뉜다. 역사가에 따라 구겐하임(1943) 건축을 전후로 한 단계 더 나누어서 4단계로 보기도 한다.

이처럼 굴곡이 많았던 건축 활동과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 또한 오르락 내리락을 거듭했다. 그는 사생활로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으며, 괴팍한 성격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혀를 내두르게 했다. 여자들과 관련된 여러 차례의 스캔들로 경력에 오점을 남겼고, 가혹한 개인적인 비극을 겪기도 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으나 겸손함이란 미덕을 몰랐고, 그로 인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 라이트에 대한 평가는 진정한 천재 예술가부터 교활한 사기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에게 "당신은 살아 있는 미국 건축사 중에서 가장 위대합니다"라고 칭찬하자, 라이트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뭐고 살아 있는 건 또 뭔가? 나는 이제껏 존재했던 건축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네. 미국이나 살아 있다는 말 따위는 잊어버리게."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이 대단히 오만하게 들렸겠지만, 지금 보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는 적어도 현대 건축의 역사에서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와 더불어 3명의 거장 중 한 명이니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의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M. Arch)를 받았다. 졸업 후 5년간 뉴욕과 보스톤에서 실무를 익힌 후 2009년 가을부터 네브라스카 주립대에서 3년간 조교수로 근무했고, 2012년 9월부터 경희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울러 이머시스(www.emer-sys.com)를 통해 건축과 도시 및 가구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일을 넘나들며 리서치 및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현대건축을 바꾼 두 거장〉(2013) 이 있다.

연재 목차

1. 라이트_ 제1의 황금기와 상실의 시기_ 로비 하우스와 제국 호텔
   Wright_ the 1ST Golden Period and Lost Years_ Robie House and Imperial Hotel
2. **라이트_ 전설이 되다_ 낙수장과 구겐하임**
   Wright_ The Legend_ Fallingwater and Guggenheim
3. 미스 인 베를린_ 바르셀로나 파빌리온과 빌라 투겐타트
   Mies in Berlin_ Barcelona Pavilion and Villa Tugendhat
4. 미스 인 아메리카_ 판스워스 하우스와 시그램 빌딩
   Mies in America_ Farnsworth House and Seagram Building

2. 라이트_ 전설이 되다_ 낙수장과 구겐하임

Wright_ The Legend_ Fallingwater and Guggenheim

낙수장(Falling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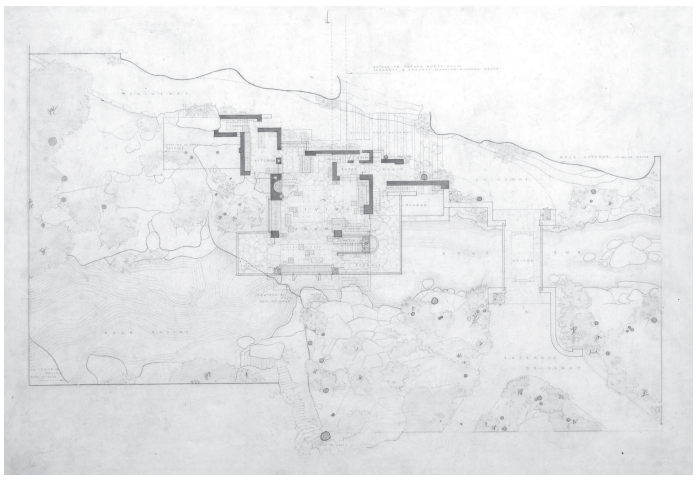


낙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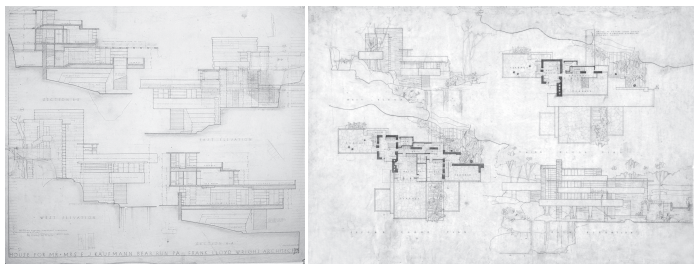
1934년의 어느 날, 에드가 카우프만 주니어(Edgar Kaufmann Jr)는 라이트에게 펜실베이니아 주 서쪽의 '베어 런(Bear Run)'이라 불리는, 자신의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그마한 폭포 가까이에 주말 별장을 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라이트는 곧 대지(Site)를 방문하고, 실습생들로 하여금 주변의 모든 나무와 돌들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한 정교한 지형도를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라이트는 그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건물의 형태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떠오를 때까지 섣불리 이야기하거나 스케치조차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역시 그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이트는 "소매를 흔들어 디자인을 빼내듯이" 2시간이 조금 넘는 동안에 20세기 최고의 명작 '낙수장(Fallingwater)'을 완성한다. 라이트가 낙수장을 설계한 에피소드는 그 건물만큼이나 드라마틱하다.

라이트는 어느날 카우프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밀워키(Milwaukee)에서 전화한 그는 베어 런의 별장 디자인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보고 싶다고 했고, 라이트는 자신 있게 그를 초대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두리번거리던 라이트는 실습생들에게 지형도를 벽에서 떼어 자신의 제도판으로 가져오라고 말하고는 각각 다른 색깔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꺼내서 지하실, 1층, 2층을 빠르게 스케치했다. 스케치를 끝낸 그는 T자와 삼각자를 이용하여 전체 배치도를 재빠르게 그리고 나서 1층 평면을 그렸다.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쉬지 않고 그렸다. 실습생들은 계속해서 새로 깎은 색연필을 쥐어 주었고, 그는 그것들을 부수고 문지르면서 컬러를 더했다가 떼어 냈다. 평면도, 단면도 그리고 디테일이 말 그대로 종이 위에 쏟아져 나왔고, 연필들은 날카롭게 깎이자마자 금방 닳아 없어졌다. 마침내 라이트가 두시간 반 만에 작업을 모두 마치자, 비서가 들어와서 "미스터 라이트, 카우프만 씨가 왔습니다."라고 전했다. 미스터 라이트는 "들여보내게."라고 말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이트는 설계실로 들어서는 카우프만 씨에게로 다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이(E.J), 환영하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이트가 그린 낙수장의 배치도



라이트가 그린 낙수장의 입단면도 및 평면도.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실습생들이 작업을 더 하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라이트는 이 모든 도면을 3시간 안에 완성했다고 전해진다.

이 광경은 건축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순간 중 하나로, 너무도 극적이어서 믿기지 않지만 수많은 실습생들이 실제로 목격한 광경이었다. 나중에 그가 그린 도면과 실제 건물을 비교해 보면 90% 정도 처음에 계획한 대로 지어졌다. 대부분의 건물은 건축사의 초기 스케치 그대로 지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경제적,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초기 구상과 실제 건물 사이에는 항상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라이트는 이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꺼번에 생각한 것이니, 천재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라이트는 자신의 건물을 낙수장이라 이름 붙이고 사인을 할 때 자신의 이름 머릿글자를 넣어 'faLLingwater'라고 적기를 즐겼다. 이 건물은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가 되었고, 그는 이 건물의 모든 구상을 3시간이 채 못 되는 시간에 끝냈다.

처음에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건물을 지을 장소에 같이 간 라이트는 카우프만에게 "여기에 오면 주로 어디서 시간을 보내세요?"라고 물어보았다. 카우프만 가족은 "우리는 이 바위 위에서 소풍을 즐기는 것을 정말로 좋아해요."라고 대답했다. 카우프만은 원래 그들의 별장이 폭포를 밑에서 올려다볼 수 있는 베어 런의 다른 쪽에 놓이기를 원했다. 그래서 카우프만이 라이트의 설계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당신이 그 집을 바위 위가 아니라 그 옆에 지을 줄 알았어요."라고 말했다. 라이트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이(E.J), 나는 바위와 폭포가 그냥 쳐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래요." 카우프만은 할 말을 잃었고 라이트의 말은 사실이 되었다. 그 후에 카우프만 가족은 수풀을 헤치고 개울가 밑으로 내려가야만 낙수장 아래에 숨겨진 바위를 간신히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집을 영원히 사랑했다.

낙수장은 건물이 대지에서 자라 나와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정수이자, 건물이 들어선 땅에 대한 아름다운 응답이었다. 이 건물은 대지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인간과 자연과 하나 됨을 추구한다. 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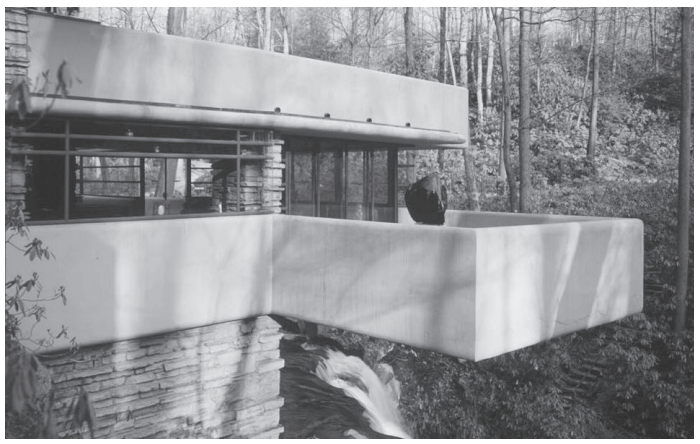
라이트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에드가 카우프만 주니어(좌)

장은 평평한 잔디밭 위에 깔끔하게 서있는 대신에 바위로부터 자라나왔다. 낙수장 뒤로 돌아가면 건물을 받치는 구조체가 바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서 뻗어 나온 슬래브(slab)는 폭포 위에 아슬아슬하게 떠 있으며, 물이 바로 밑에서 콸콸거리며 흐른다. 밑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 위험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건물 안에 있으면 낮은 천장이 보호를 해준다는 느낌을 준다. 낙수장 내부의 굴뚝과 바닥은 인근에서 캐낸 돌을 거칠게 놓아 마무리되었고 그대로 벽난로의 일부가 되었다. 이 거실에 앉아 있으면 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이 스치는 소리, 계속 변하는 빛과 그림자 때문에 아늑한 굴 속에 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폭포를 향해 확 트인 시야는 눈앞에 자연을 바로 느끼게 하고, 햇빛은 여러 방향에서 쏟아져 들어온다.



낙수장의 내부.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바닥과 벽이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위대한 건축은 말과 설명이 굳이 필요없다.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 들어서면 마치 절대자를 만날 듯한 느낌을 받는 것처럼, 낙수장도 그런 감동을 주는 건축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낙수장에 앉


캔틸레버로 튀어나온 낙수장의 테라스

아 있으면 자연과 하나 되는 자신을 발견한다. 단순히 시각적인 것뿐 아니라, 청각, 촉각 등을 통해 자연과 하나된 자신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낙수장의 진정한 위대함은 건축이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낙수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할 시기인 68살의 나이에, 라이트가 위대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려 준 놀라운 전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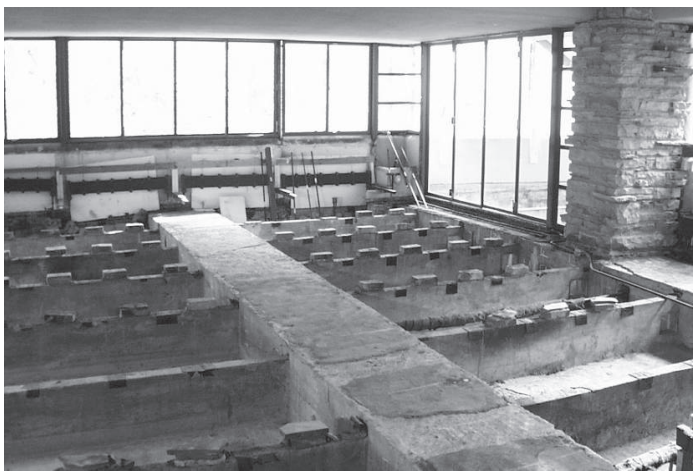
낙수장의 공사는 1936년에 시작되어 1939년에 게스트 하우스를 완성하면서 끝났다. 처음에 카우프만은 라이트에게 비용이 35,000달러를 넘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75,000달러가 들었고, 나중에 게스트 하우스를 증축하면서 추가로 50,000달러가 더 들어갔다.

낙수장에서 캔틸레버(Cantilever) 방식으로 만들어진 철근콘크리트구조는 당시의 기술로서는 대단한 것이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건물이 한참 지어지던 도중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그 뒤로 계속해서 보수 공사를 해야 했다. 결국 더 이상 방치하면 건물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진단에 따라 2001년 겨울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시행되었다. 수많은 테스트와 비파괴 검사를 한 끝에 주요 구조체가 완전히 저강도 설계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철근은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었고, 콘크리트의 압축력은 절대 파괴강도에 근접하고 있었다. 이 저강도 켄틸레버는 15피트(약 4.5m)당 7인치(약 18cm)의 처짐이 생겼다. 이런 상태라면 건물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당시에 보수 공사를 담당했던 로버트 실만(Robert Silman)이 생각하는 몇 가지 가정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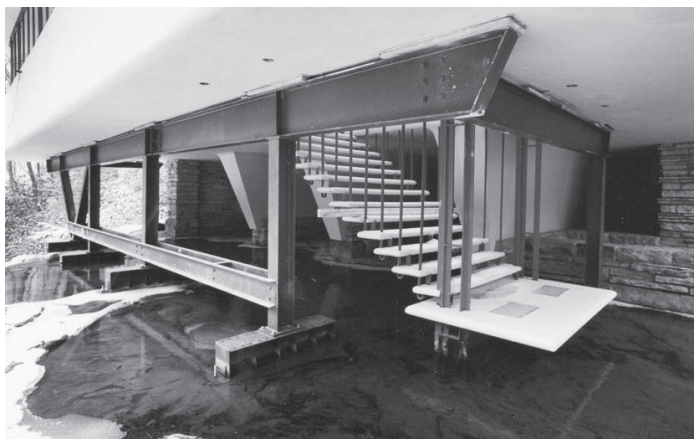
그 집은 매우 빨리 디자인되었습니다. 라이트는 대지를 고작 한두 번 밖에 방문하지 않았고, 그 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마침내 디자인이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엔지니어들은 구조 도면을 빨리 그리도록 재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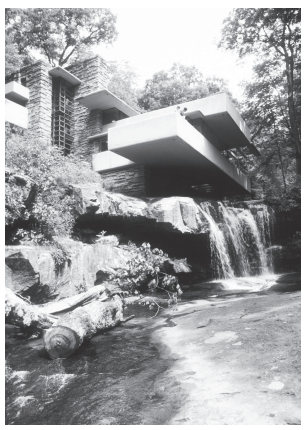
시간에 쫓긴 엔지니어들이 2층의 무게가 1층의 캔틸레버로 전달된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2층과 1층 빔들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푸집을 떼어내자마자 캔틸레버는 1–3/8인치(4cm)나 처졌고 2층 난간 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처음부터 1층바닥 캔틸레버에 들어간 철근이 많이 부족해서 1층 무게만을 버티기에도 충분하지 않았었다. 시공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카우프만에게 알렸고, 카우프만은 그 편지를 라이트에게 보여 주었다.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기로 유명한 라이트는 카우프만에게 그와 시공자들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카우프만은 결국 라이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공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시공자들은 라이트 몰래 철근을 2배나 보강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게를 버티기에는 부족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1층의 끝에 기대고 있는 2층의 무게를 계산하지 않았다.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지기까지, 낙수장은 계속된 보수 공사를 받아 가며 위험한 상태로 65년간이나 남아 있었다.


낙수장의 내부구조를 보강 공사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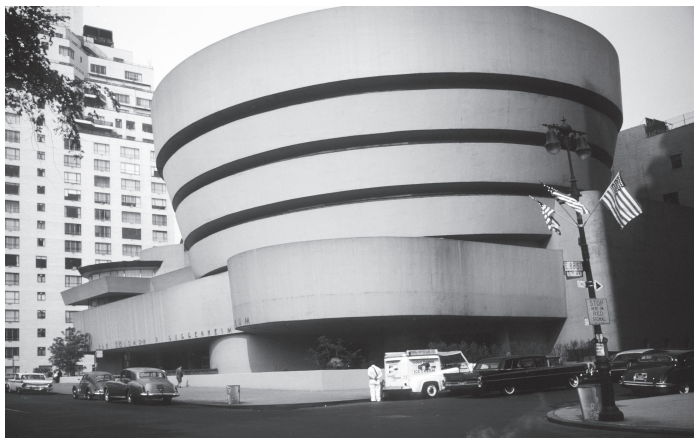
카우프만 가족은 1960년대까지 낙수장을 정말로 사랑했고, 연중 내내 주말과 휴가기간에 사용했다. 카우프만의 아들은 1963년 에드가 카우프만 주니어가 사망한 지 몇 년이 지나서 낙수장을 서부 펜실베니아 관리위원회에 기증했다. 당시 라이트의 많은 건물들이 해체되거나 사라질 운명에 처했었는데, 카우프만의 기증은 건축계로부터 건물의 보존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로 환영을 받


캔틸레버 테라스 밑을 철제 구조물로 받쳐 놓은 모습


낙수장은 1991년 미국건축사협회(AIA) "가장 중요한 미국 건축" (the best all-time work of American architecture)으로 선정됐다.

았다. 낙수장은 오리지날 가구들과 예술품들이 그대로 일반에게 개방된 유일한 라이트의 주택 작품이다. 라이트가 디자인한 가구들과 그가 선물한 일본 목판화 프린트들과 함께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카우프만 가족이 수집한 예술품, 직물, 책들, 가구들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

구겐하임(Guggenheim)


구겐하임 뮤지엄

구겐하임 미술관은 말할 것도 없이 라이트가 주창한 '유기적 건축'의 정점이자, 형태와 공간과 구조가 하나로 통합된 건물로서, 라이트 말년의, 아니 전체를 통틀어서 대표작이라 부를 만한 작품이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독특한 형태는 라이트의 이전 작품들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나선형은 라이트의 건축이 점차 무르익어 갈수록 자주 등장하는 형태였다. 시카고 개발업자 고든 스트롱을 위해 제안한 것으로, 구겐하임 미술관의 원형 격인 천문관측대 겸 관광지 계획안(1924~1925)을 보면, 그가 발전시켜 온 나선형에 대한 초기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구겐하임을 설계할 당시에 지어진 또 다른 작품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모리스 상회(1948)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내부를 보면 구겐하임 미술관의 램프와 똑같은 방식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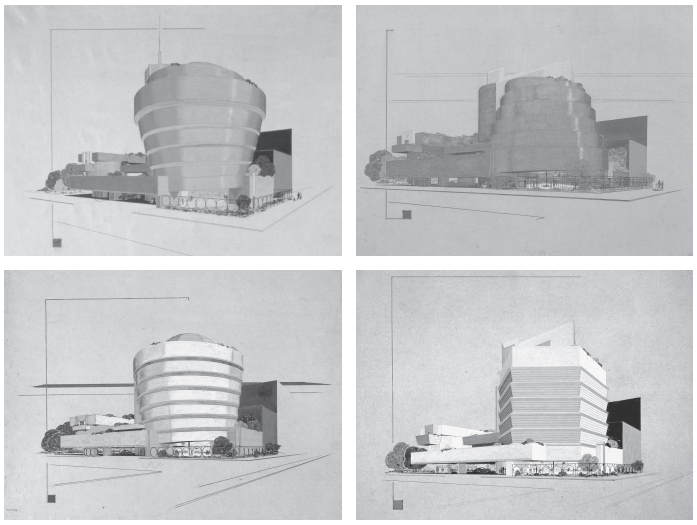

고든 스트롱 천체관측소를 위한 계획안. 여기서 라이트는 나선형 램프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보여준다.


나선형 램프를 실제로 실현했던 모리스 상회

구겐하임 미술관이 라이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가장 오래 걸린 프로젝트인 것은 확실하다. 라이트는 이 프로젝트에 16년이나 매달렸는데, 미술관을 위한 계획은 1943년에 시작되었고, 1945년에 솔로몬 R. 구겐하임(Solomon R. Guggenheim)으로부터 공식적인 인가를 받았으나, 전쟁 직후의 경제 상황으로 프로젝트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구겐하임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년 만인 1949년에 암으로 사망하자, 구겐하임재단 이사회는 라이트의 계획안

에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해서, 나선형 램프를 제외하고는 1944년의 초기 계획안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여러 차례의 논란과 사람들의 교체, 디자인의 수정 끝에 1956년 8월 16일, 최종 실시도면이 납품되었고, 마침내 1956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2년 남짓한 기간에 완성되었다. 라이트는 미술관이 완성되기 6개월 전인 1959년 4월에 죽기 전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직접 감독했다. 구겐하임은 자신의 미술관이 착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라이트는 그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하지만 마침내 1959년 10월에 개관했을 때, 이 건물은 어떤 건물보다 더 많은 반향과 관심을 일으켰다.

1943년 가을부터 1944년 이른 봄까지 라이트는 4개의 계획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이전까지 그의 설계과정을 볼 때 상당히 특이한 경우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는 머릿속에서 계획안이 확연하게 떠오를 때까지 종이 위에 옮기지 않았고, 생각이 확정된 순간에 그 건물은 이미 라이트의 머릿속에서는 다 지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다른 계획안을 거의 동시에 내놓는 일은 그로서는 특이한 경우다. 아마 건물이 들어설 부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4개의 계획안 모두 기본적인 설계 방향에서는 같았지만, 빨간색, 흰색, 주황색 등 색깔과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 계획안 A, B, D는 전부 나선형 램프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B는 고든 스트롱의 계획안과 상당히 비슷하다. 팔각형 모양의 계획안 C는 램프로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계획안이었지만, 이 역시도 보조 램프가 계단실을 둘러싸며 감아 올라가서 층층을 연결했다.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는 1956년까지 디자인은 7번에 걸친 큰 변화를 겪었지만 나선형 램프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구겐 하임 미술관의 초기 계획안 A, B, C, D(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구겐하임과 수많은 의견을 교환한 끝에 마침내 라이트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완성하고 "더 모던 갤러리(The Modern Gallery)"라 명명했다. 계획안과 모델은 1945년 여름에 완성되었고, 최초의 프레젠테이션이 1945년 7월 9일에 플라자 호텔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열렸다. 9월 20일, 두 번째 언론사 컨퍼런스에서 라이트는 수정된 계획안의 모델을 전시했다. 『타임』, 『라이프』, 『미술관 뉴스』, 『건축 포럼』, 기타 예술 잡지 등이 새로운 계획안에 지면을 할애했다.



1945년 7월 9일에 열린 최초의 공개 프레젠테이션(이때까지만 해도 나선형 원통이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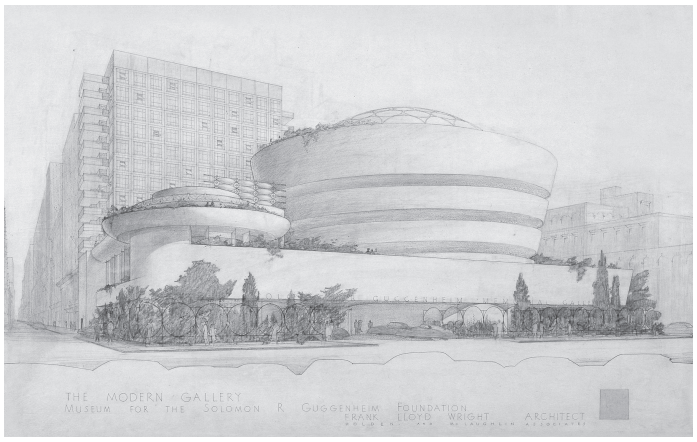
구겐하임 미술관을 완성하기까지 라이트는 엄청난 반대에 시달렸다. 라이트의 계획안은 발표되자마자 일반 대중에게서 격렬한 항의를 받았고, 도중에 구겐하임이 사망하면서 거의 좌초될 뻔했으며, 계획안이 뉴욕시빌딩위원회에 제출되었을 때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야 했다. 1945년 9월부터 1956년 8월에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라이트는 많은 부분을 타협해야만 했기에 10여 년에 이르는 기간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램프를 타고 내려오는 것과 달팽이 같은 모양뿐이었다. 또 공사에 들어가자 예술가들은 미술관에 반대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이 모든 것들이 미술관 건설에 16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도록 했다. 하지만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로 꿋꿋했다.

어떤 사람은 구겐하임 미술관을 세탁기 같다고 했지요. 나는 그런 종류의 반응을 많이 듣지만 언제나 가치 없는 것이라고 무시합니다.

라이트가 디자인을 뉴욕시빌딩위원회 당국에 제출하려 했을 때, 빌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층수를 결정해야 했다. 엘

리베이터의 정지 층수를 세거나 램프의 도는 횟수에 따라 건축위원회 관계자들은 6층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라이트는 논리적으로 (다소 장난스럽게) 그것은 1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도의 다툼은 시작에 불과했다. 라이트가 사용하기를 원하던 콘크리트 강도, 램프의 기울기, 출입구와 칸막이 유리벽들, 엘리베이터, 비상구 등이 뉴욕 건설법규에 맞지 않았다. 게다가 미술관이 4.5피트(1.5m) 가량 5번가로 튀어나와 있는 점도 문제였다. 1953년은 이런 위반에 대한 협의로 시간을 다 보내야만 했다. 여러 번의 재심 끝에 위반은 크게 줄어 11개가 되었으며, 뉴욕 시와 뉴욕 주 공원협회위원장이자 뉴욕 시 건설 코디네이터로서 대단한 영향력을 지닌 로버트 모스(Robert Moses, 라이트의 먼 친척이라고 알려져 있다)가 개입해서 강하게 밀어붙이자 마침내 구겐하임 미술관의 건설 허가가 떨어졌다. 모스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법을 어겨야 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구겐하임이 지어지길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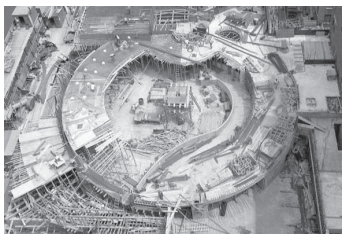
마침내, 1956년에 89번가와 5번가의 한쪽 귀퉁이에서 첫 삽을 뜨게 되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뒤에도 이 프로젝트의 주변에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유명 비평가들 또한 공격에 가세했다. 평론가들은 미술관 건물에 대해 "유기적 기능만 성공적인 건축이고 건물에만 시선을 집중시킨다"고 했고, 어떤 비평가는 라이트를 "프랭크 로이드 롱(Frank Lloyd Wrong)"이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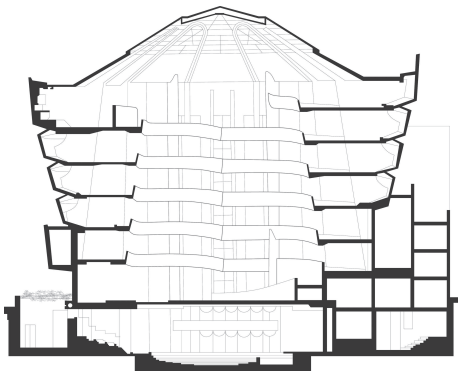


구겐하임 미술관의 최종 계획안 투시도

구겐하임 미술관의 건설을 맡을 회사를 선정하는 데에도 라이트는 어려움을 겪었다. 1955년에 입찰 결과를 받아보자 오직 한 회사만이 라이트가 생각한 액수에 가까웠다. 유클리드(Euclid) 건설회사가 제출한 3백만 달러였다. 하지만 유클리드는 원래 건설회사가 아니라 주로 고속도로나 다리 건설을 하던 토목전문업체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진 고속도로 건설 경험을 토대로 라이트의 디자인은 건물이 아니라 토목공학의 입장에서 지어졌다. 다리나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부드러운 곡선들이 서로 단단히 엮이고 그 위로 지붕이 덮였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램프는 팽창을 위한 이음매가 따로 없는 유연한 통합체였다. 라이트는 건물의 유연함을 너무도 확신했기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핵폭탄이 뉴욕에 떨어지더라도 그 건물은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폭탄은 몇 마일 공중으로 떴다가 땅으로 떨어져서 다시 튀길 것입니다.


고속도로 공사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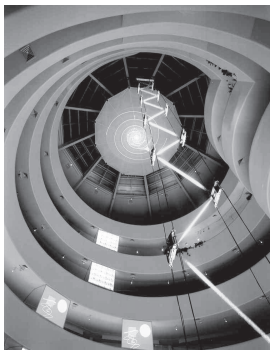

구겐하임 미술관 공사현장. 구겐하임 미술관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처럼 토목공학의 입장에서 지어졌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단면도

1956년 구겐하임 미술관의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21명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뉴욕 타임스』에 미술관의 내부공간 디자인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 미술관이 미술품 전시에 맞지 않고 경사진 벽에 예술품을 전시하는 것은 시각 예술에서 기본인 사각형 프레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명한 예술가들은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 아돌프 고틀리브(Adolph Gottlieb), 필립 거스턴(Philip Guston),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 시모어 립턴(Seymour Lipton), 로버트 머더웰(Robert Motherwell) 등 당시 현대 미술의 대가들이었다.

이에 라이트는 그림을 전시하는 데 '기본인 사각형 프레임'이란 없고, 정사각형 방 안에 놓인 평평한 그림들이 오히려 건축에 종속되어서 "마치 봉투에 붙어 있는 우표처럼 보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물과 그림이 단절되었다는 비평에는 라이트도 어느 정도

수긍했지만, 그것은 오직 그림을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었다. 그는 그림도 조각이나 건축과 같이 주위 환경의 밝고 어두움, 따뜻함과 추움, 그 모든 미묘한 변화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그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혁신과 구태의 싸움이라면서 자신이 건설하려고 했던 것은 구겐하임이 수집한 '진보적인 형식의 그림들을 위한 미술관'이라 했다. 또한 현대추상예술은 수직선과 수평선의 관계에 근거한 전통적인 투시 효과와는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공간을 창조했고, 따라서 더 이상 전통적인 수직-수평의 프레임 안에서 보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라이트는 자신의 디자인이 미래의 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다. 라이트가 제시한 이러한 공간은 나중에 1970년대, 1980년대에 걸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술관의 내부가 여러 다양한 전시에 너무도 잘 이용되는 것으로 증명되었지만, 이는 미술관이 완성되고도 한참 뒤의 일이다.



2000년 2월 11일~4월 26일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백남준의 세계 The World of Nam June Pa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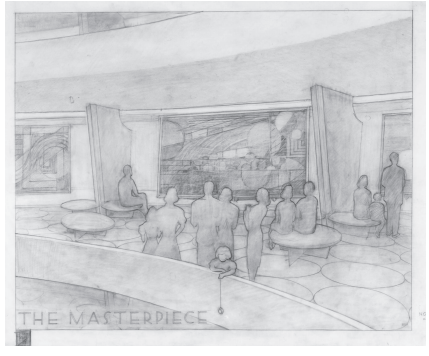


2011년 11월 4일~2012년 1월 22일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모든 것 Maurizio Cattelan : All〉

관람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후, 완만한 곡선의 램프를 타고 천천히 내려오게 된다. 아트리움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잔잔한 파도와 같은 하얀색의 패러핏 만이 보이며 공간 사이를 부유하는 느낌을 받는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예술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깨뜨렸다. 그전까지 예술 감상에 당연시되던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정돈된 공간에서 벗어나 관람객과 예술작품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공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창조적인 예술작품의 전시가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전통적인 예술의 한계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구겐하임 미술관에 전시된 예술작품들은 오직 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방식은 감상자가 작품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편하고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라이트가 생각했던 내부공간 스케치를 보면 램프 공간의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한 어린이는 요요로 장난치고, 그 어린이의 부모들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렇듯 구겐하임 미술관은 일요일에 온 가족이 함께 소풍을 가기에 알맞은 최초의 미술관이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아트리움 공간. 천창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에 의해 내부의 빛이 하루종일 변한다. 이에 따라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일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변한다.



라이트가 그린 구겐하임 내부공간 스케치. 온 가족이 편안하게 찾는 미술관을 만들기 원했던 라이트의 생각이 잘 담겨 있다.

1991년에 미국건축사협회는 라이트를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위대한 건축사로 선정했고, 『아키텍처럴 레코드(Architectural Record)』가 선정한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100개의 건물 중 12개의 건물이 라이트의 것이었다. 그중에는 낙수장, 로비하우스, 존슨왁스빌딩, 구겐하임 미술관, 탤리에신과 탤리에신 웨스트, 그리고 사라진 라킨빌딩과 제국호텔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0년에는 미국건축사협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20세기 건축물 10개를 선정했는데, 이 중에 낙수장, 로비하우스, 구겐하임 미술관, 존슨왁스빌딩이 포함되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외부. 나선형 램프 때문에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둥그런 미술관 뒤쪽에 보이는 부분은 원래 라이트의 계획안(사진 18의 라이트 투시도 참조)에 스튜디오와 아파트로 되어 있었지만 예산과 용적률의 제한으로 1959년 당시엔 지어지지 못했다. 1991년 Gwathmey-Siegel & Associate Architects에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부족한 전시시설과 사무공간을 위해 미술관의 분관으로 지어졌다. 이는 라이트가 원래 생각했던 기능과는 달랐지만 내부 전시를 더욱 풍부하게 하면서 매우 성공적인 리노베이션 사례로 손꼽힌다.

글. **안창모**_ An, Chang-mo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주임교수

식민지배체제의 구축과 도시 그리고 건축의 변화3_ 경복궁

경복궁의 해체와 총독부 건축

Architecture and Urbanism in Building the Colonial Regime in Korea 3_ Kyongbokgung Palace and Colonial Government General Building



그림 1. 대한제국기의 세종로(육조거리)



그림 2. 일제강점기의 세종로(광화문로)

흥선대원군에 의해 조선 초의 도시공간을 회복했지만, 흥선대원군의 뜻대로 나라가 운영되지 못했고, 그 결과는 경복궁과 육조거리 그리고 도시구조의 변화에 반영되었다.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정궁이 경복궁에서 경운궁으로 바뀌면서 경복궁은 궁궐의 위상을 잃어버렸고, 곧 이은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로 경복궁은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일제강점과 함께 대한제국의 지배시스템이 바뀌면서 일인들은 식민지배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지만, 식민지배구축이 남산의 북측산록에서 시작된 것은 서울이 갖고 있는 공간적·구조적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산에 의해 위요된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상 신시가지의 확보가 기존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용이하지 않음은 신용산 시가지 조성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식민지배를 위한 전이단계라고 할 수 있는 통감부 시절에 남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배의 중심을 갖췄고, 통감부의 연장선에서 총독부가 운영되었다. 하지만 남산의 북측산록 좁은 터에 위치한 통감부/총독부 청사가 서향과 북향으로 건축된 탓에 장기적으로 새로운 입지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기 형성된 용산의 신시가지를 총독부의 입지로 삼기에는 도성의 중요성이 너무 컸다. 한반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일본의 입장에서 지배자의 논리에 걸맞은 입지와 물리적 상징이 필요했을 것이다.

통감부 시절을 포함하여 총독부가 남산에 위치한 것이 1906~1926년, 경복궁 신청사에서 1926~1945년까지 위치했으니, 식민통지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남촌과 북촌이 각각 식민지배의 중심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10년부터 1926년까지 총독부의 남산 시절은 총독부의 의지라기보다는 통감부시절에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통감부 입지의 연장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복궁이 정궁의 위상을 상실한 후 총독부 신청사가 지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제가 강점 초기부터 경복궁에 신청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1. 통감부시절, 경복궁의 변화

통감부 시절의 경복궁은 국가운영과 관련되어 특정한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궁내부의 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복궁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기사를 당시 대한매일신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경복궁과 관련된 기사 중 가장 빈번하게 다뤄졌던 것은 경복궁의 관람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공원화와 식목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띈다.

흔들리는 경복궁의 위상

대한매일신보가 전하는 소식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경복궁이 대한제국의 정궁 후보였다는 점과 1907년 요시히토 일본 황태자의 방문 당시 숙소가 될 뻔 했다는 점이다.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사건이 있었고, 광무황제(고종)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추궁한 이토는 광무황제가 융희황제(순종)에게 황위를 양위토록 강제했다. 1907년 7월 20일 황제의 위에 오른 융희황제는 대한제국의 정궁이었던 경운궁에 거처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광무황제가 경운궁에 계시는 관계로 새롭게 거처를 정해야 했다. 이때 경복궁이 융희황제 거처의 후보로 논의된 적이 있었음이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6일자 기사에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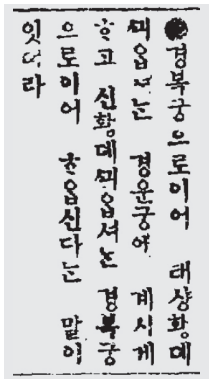

●경복궁으로이어 태상황폐
셔옵셔는 경운궁에 계시게
하고 신황제폐옵셔는 경복궁
으로이어 하옵신다는 말이
잇더라

그림 3.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6일

당시 신문기사에

경복궁으로 이어 *: 태상황제께옵서 경운궁에 계시게 하고 신황제께옵서는 경복궁으로 이어 하옵신다는 말이 있더라.*

라는 소식이 있어, 경복궁이 융희황제 재임기에 대한제국의 정궁 후보로 논의된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07년 10월 16일 일본의 황세자 요시히토(嘉仁, 후에 메이지천황에 이어 다이쇼천황으로 즉위)가 대한제국을 방문했다. 1907년 10월 10일 대한매일신보는 일본 황태자가 경복궁에 머물 것이라는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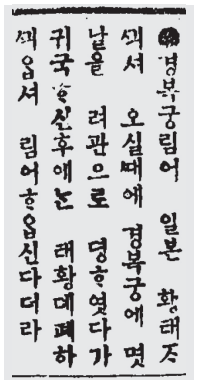

●경복궁림어 일본 황태자
께셔 오실때에 경복궁에 몃
날을 려관으로 뎡하엿다가
귀국하신후에는 태황뎨폐하
께옵셔 림어하옵신다더라

그림 4.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0일

경복궁 림어*: 일본 황태자께서 오실 때에 경복궁에 몇 날을 여관으로 정하였다가 귀국하신 후에는 태황제폐하께옵서 림어하신다더라.*

이 신문기사를 통해 경복궁이 일본 황태자의 영빈관으로 검토되었다는 사실도 새롭지만, 앞선 신문기사와 달리 경복궁에 임어할 분이 융희황제가 아니라 태황제폐하인 광무황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대한제국 정부 내에서 어느 곳을 정궁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신문기사가 작성되었을 당시에는 제2대 황제인 융희황제가 광무황제에 이어 경운궁을 정궁으로 사용하기로 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문기사의 소식과는 달리 10월 20일 대한제국을 방문한 요시히토(嘉仁) 일본 황태자는 경복궁에 머물지 않고 왜성대의 통감관저에서 머물렀다. 통감관저에 머물고 있는 요시히토 황태자를 태황제와 황태자가 로문(路門)한 내용이 1907년 10월 20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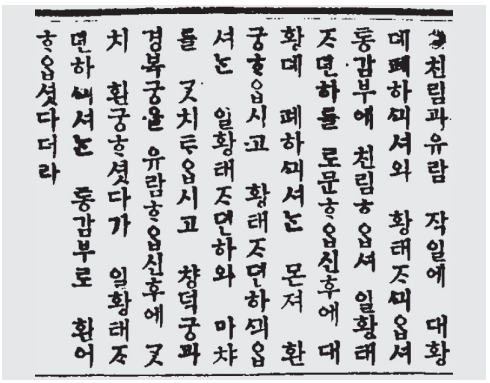

●친림과유람 작일에 대황
뎨폐하께셔와 황태조폐옵셔
통감부에 친림하옵셔 일황태
조뎐하를 로문하옵신후에 대
황뎨 폐하께셔는 몬저 환
궁하옵시고 황태조뎐하께옵
셔는 일황태조뎐하와 마챠
를 갓치하옵시고 창덕궁과
경복궁을 유람하옵신후에 갓
치 환궁하셧다가 일황태조
뎐하께셔는 통감부로 환어
하옵셧다더라

그림 5.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20일

친림과 유람 *: 작일에 대황제폐하와 황태자께옵서 통감부에 친림하옵셔, 일황태자전하를 로문하옵신 후에 대황제 폐하께서는 먼저 환궁하옵시고, 황태자전하께옵서는 일황태자전하와 마차를 같이 타옵시고, 창덕궁과 경복궁을 유람하옵신 후에 같이 환궁하셨다가 일황태자전하께서는 통감부로 환어하옵셨다더라.*

일황태자가 경복궁을 유람하기 하루 전에 법부대신이 경복궁을 미리 방문하여 사전 점검을 행하기도 했다.

보여지는 옛 궁궐, 경복궁

경복궁과 관련된 신문기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기사는 경복궁이 사람들의 관람하는 장소였다는 것이다.

1907년 8월 10일 대한매일신보에는 '구경하는 궁궐인가'라는 제목 하에 '어제 오전 12시에 일본 수군 병정 400~500명이 경복궁에 들어가서 구경하였다더라'라는 기사가 실렸으며, 같은 해 10월 10일에는 '대궐 구경'이라는 제목 하에 '학부차관 표손일의 모친과 부인이 창덕궁과 경복궁을 구경하였는데 학부 서기랑 이완용씨와 사무관 1인이 따라갔다더라'는 기사가 실렸다.

1908년 8월 12일에는 유길준, 장박, 조희연 등도 경복궁을 구경하였으며, 1909년 9월 24일에는 독일영사관 총영사가 직원들과 함께 경복궁을 구경하기도 했다.[1] 그런데 1909년 9월 30일에는 경복궁의 관광이 일주일 동안 금지되었는데, 당시에 괴질이 유행하여 예방차원의 조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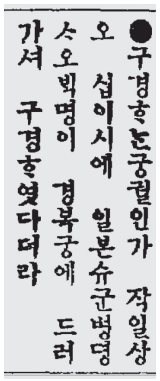

●구경호는궁궐인가 작일상오 십이시에 일본슈군병뎡 수오빅명이 경복궁에 드러가셔 구경호엿다더라

그림 6. 일군의 경복궁 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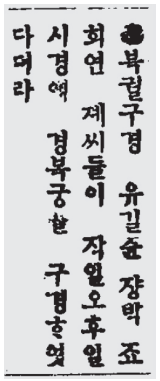

●북궐구경 유길슌 장박 죠희연 제씨들이 작일오후일 시경에 경복궁을 구경호엿다더라

그림 7. 유길준 등 경복궁 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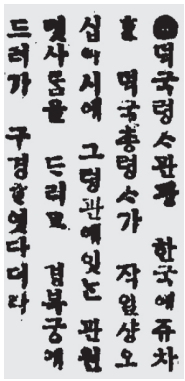

●덕국령소관등 한국에쥬차호 덕국총령소가 작일상오 십이시에 그뎡관에잇는 관원 몇사돔을 드리고 경복궁에 드러가 구경호엿다더라

그림 8. 독일 총영사와 직원의 경복궁 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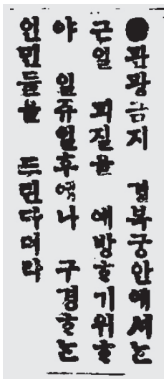

●관광금지 경복궁안에서는 근일 괴질을 예방호기위호야 일쥬일후에나 구경호는 인민들을 드린다더라

그림 9. 괴질예방을 위한 관광금지

경복궁과 창덕궁은 일반에게도 개방되었다. 1909년 10월 29일 대한매일신보에는 경복궁은 매일, 창덕궁의 비원은 일주일에 2번씩 일반인에게 개방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두 곳 구경 *경복궁에 들어가 구경하는 것을 일반인민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하게 하였었는데 본월 27일 이후로는 월요일 외에는 매일 구경케 하고 창덕궁 비원은 매주일에 수요일과 토요일에만 관람케 한다더라.*

융희황제와 황태자는 일황태자가 머물고 있는 통감관저를 방문하여 일황태자를 로문[2]하고, 융희황제와 일황태자가 함께 창덕궁과 경복궁을 유람한 후 융희황제께서는 환궁하고 일황태자는 통감부로 환어했다.

일제 강점 후에는 경복궁의 관람에 관람료를 받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1910년 11월 16일자 매일신보에는 '경복궁 관람료'라는 제목의

景福宮 觀覽料 *景福宮 觀覽料는 自來로 大人에 十錢이오. 小兒에 五錢이더니 今日부터는 大人에 5錢, 小兒에 3錢으로 低減하였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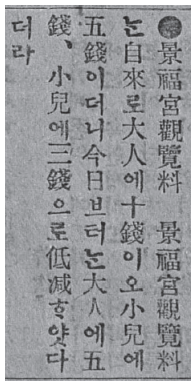

景福宮觀覽料 景福宮觀覽料는自來로大人에十錢이오小兒에五錢이더니今日브터는大人에五錢、小兒에三錢으로低減ᄒᆞ얏다더라

그림 10. 매일신보 1910년 11월 16일

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는 경복궁을 돈을 받고 관람시키는 행위가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복궁의 수리와 공원화계획

경복궁이 융희황제의 거처가 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운영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은 아니었다.

1910년 3월 4일 대한매일신보에 '경복궁 수리'라는 제목 하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실렸다.

경복궁 수리 *경복궁의 퇴락한 곳을 수리하기로 하여 불원간 역사를 시작할 터인데 경복궁 안에 거접하던 여관 등은 안동별궁으로 이접한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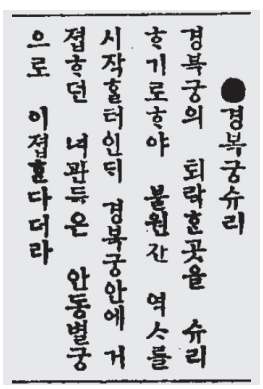

●경복궁슈리 경복궁의 퇴락ᄒᆞᆫ곳을 슈리ᄒᆞ기로ᄒᆞ야 불원간 역ᄉᆞ를 시작ᄒᆞᆯ터인ᄃᆡ 경복궁안에 거접ᄒᆞ던 녀관등은 안동별궁으로 이접ᄒᆞᆫ다더라

그림 11.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4일

1) 대한매일신보 1908년8월 12일과 1909년 9월 24일자 신문기사.
2) 노문하다(路文—), 신하를 위문하다.
3) 잠시 몸을 의탁하여 거주함.

이 기사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경복궁이 완전히 빈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경복궁에서 경운궁으로 정궁이 옮겨졌지만, 7,000여 칸에 거처하던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경운궁으로 옮겨갈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경복궁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또 다른 사실은 경복궁이 거처의 기능과 함께 관람의 기능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 ·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경복궁에 거접(居接)[3]하던 여관(女官)[4]등은 안동별궁으로 이접(移接)[5]'한다는 말은 경복궁에서 거처하던 궁녀들이 수리하는 동안에 안국동 현 풍문여고 자리에 위치했던 안동별궁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이야기다. 안동별궁 외에도 궁녀들은 경선궁과 황태자궁으로도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경복궁을 수리하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거처를 옮긴다고 했지만, 궁인들의 이접은 영구적인 일이 되었다.

1910년 3월 들어 경복궁에 관한 기사가 대한매일신보에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경복궁에 나무를 심는다는 기사와 행각을 헐고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들이 게재되었다.

1910년 3월 5일자 기사와 3월 17일 기사에는 궁 안의 식목에 대한 기사가 다음과 같이 실렸다.

식목하려고 *경복궁을 수리한 다음은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그 궁 안에 행각을 헐고 장차 식목을 할 터이라더라.*

대궐까지 다 주나 *내각에서 증미통감의 아들 증미우남의 청구를 의지하야, 경복궁 건춘문 안 기지 몇 천 평을 꾸어주었는데 우남은 그 기지에 식목하는 중이라더라.*

그런데 1910년 3월 19일 기사에서는 '황궁측량'이라는 제목하에 다른 종류의 기사가 보인다.

황궁측량 *궁내부에서는 덕수궁과 창덕궁과 경복궁 구역을 지금 측량하는 중인데 본월 삼일일 내로 그 사무를 마친다더라.*

이 기사에서 언급한 측량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존하는 창덕궁과 경복궁 및 덕수궁의 도형일 가능성과 이어지는 소네통감[6] 아들의 농업모범장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 1910년 3월 19일자 대한매일신보 기사에는 소네통감의 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나무 심는 작업의 목적이 나타나 있다.

해도 너무한다. *증미통감의 아들 증미우남이가 경복궁 안에 종묘장을 설치한다함은 이미 개제하였거니와 다시 자세한 소문을 들은즉 그 사무를 확장할 뿐 아니라 전각 몇만 내어놓고 각 채를 다 헐고 농업모범장을 설립하기로 경영한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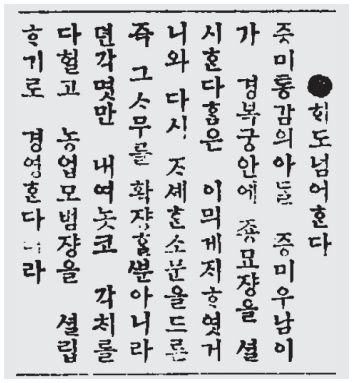

●해도넘어혼다 증미통감의아들 증미우남이가 경복궁안에 종묘장을 셜시혼다홈은 이믜게지혼엿거니와 다시 조셰혼소분을드른즉 그소무를 확장홀뿐아니라 젼각몃만 내여놋코 각쳐를 다헐고 농업모범장을 셜립혼기로 경영혼다더라

그림 12.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19일

1910년 3월 30일 기사에서는

모다 팔아 *경복궁과 창덕궁과 기타 궁내부 소속으로 쓸데없는 집들은 모두 판다는데 이 까닭으로 경복궁 안에 있는 여관 일백 수십 명은 덕수궁과 안동별궁으로 이사기로 하여 어제부터 안동별궁을 수리하는 중이라더라.*

본격적으로 경복궁의 전각이 훼철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4)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를 가까이 모시는 내명부를 통틀어 이르던 말
5) 거처를 잠시 옮기어 자리를 잡음.
6)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는 이토히로부미 후임으로 통감이 되어 1910년 5월 30일까지 통감으로 재직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통감부가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의 내정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간섭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네통감은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를 체결하여 순종황제의 실권을 모두 탈취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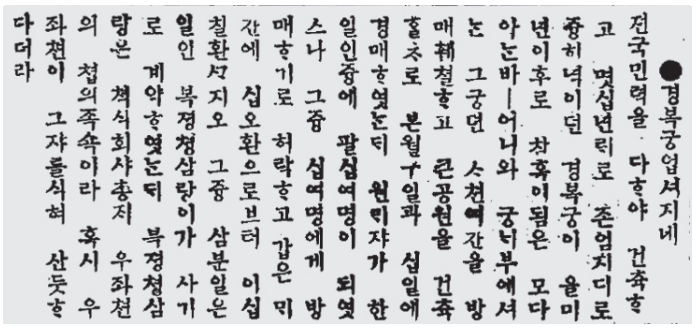
기유각서(己酉覺書)는 '한국 사법 및 통감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본에 넘겨준다는 내용인데, 이는 외교권 박탈에 이은 사법권의 박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의 사법부는 기능이 폐지되고 통감부의 사법청이 맡았다. 기유각서는 내무총리대신인 이완용과 소네통감 사이에 맺어졌다.

소네통감의 아들인 소네유오(曾彌尤男)가 실제 경복궁 안에 농업모범장을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지만, 1910년 11월 8일에 서울에 온 농사시찰단원 222명이 경복궁을 관람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3월 30일의 기사는 5월 15일에 실행되었다. '경복궁 없어지네'라는 제하의 기사에는 경복궁의 전각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음을 보여준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복궁업셔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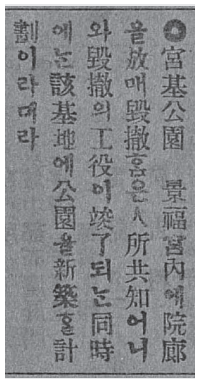
전국민력을 다ᄒᆞ야 건축ᄒᆞ고 몃십년릭로 존엄지디로 쥼히넉이던 경복궁이 을미년이후로 참혹이됨은 모다 아ᄂᆞᆫ바ㅣ어니와 궁닉부에셔ᄂᆞᆫ 그궁뎐 소쳔에잔을 방매ᄒᆡ쳘ᄒᆞ고 큰공원을 건축ᄒᆞᆯ차로 본월구일과 십일에 경매ᄒᆞ엿ᄂᆞᆫᄃᆡ 원ᄂᆡ쟈가 한일인즁에 팔십여명이 되엿스나 그즁 십여명에게 방매ᄒᆞ기로 허락ᄒᆞ고 갑은ᄆᆡ잔에 십오환으로브터 이십환ᄭᆞ지오 그즁 삼분일은 일인 복정청삼랑이가 사기로 계약ᄒᆞ엿ᄂᆞᆫᄃᆡ 복정청삼랑은 쳑식회사총재 우좌쳔의 쳡의족쇽이라 혹시 우좌쳔이 그쟈를식혀 산듯ᄒᆞ다더라

그림 13. 대한매일신보 1910년 5월 15일

경복궁 없어지네 *전 국민의 힘을 다하여 건축하고 몇 십 년래로 존엄지대로 중히 여기던 경복궁이 을미년 이후로 참혹이 됨은 모두 아는 바이어니와 궁내부에서는 그 궁전 4천 여 칸을 방매 훼철하고 큰 공원을 건축할 차로 본월 9일과 십일에 경매하였는데, 원매자가 한 · 일인 중에 80여 명이 되었으나 그 중 십여 명에게 방매하기로 하락하고 값은 매 칸에 15환으로부터 20환까지요. 그 중 삼분의 일은 일인 복정청삼랑이가 사기로 계약하였는데, 복정청삼랑은 척식회사 총재 우좌천[7] 첩의 족속이라 혹시 우좌천이 그 자를 시켜 산 듯하다.*

이 글을 살펴보면, 경복궁의 전각을 방매하는 주체가 궁내부였음을 알 수 있으며, 전각을 훼철한 후 경복궁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초 경복궁 안의 전각이 총독부 신청사를 건설하기 전에 이미 상당부분 철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각된 경복궁의 전각은 관리도 구입했다. 당시 한성부 판윤(현 서울시장)이었던 장헌식[8]이 국권이 스러져가면서 훼철되는 궁궐의 재료를 사서 개인의 집을 짓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가 1910년 7월 5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다.



◎宮基公園 景福宮內에院廊을放賣毁撤중은人所共知어니와毁撤의工役이竣了되ᄂᆞᆫ同時에ᄂᆞᆫ該基地에公園을新築ᄒᆞᆯ計劃이라더라

그림 14. 매일신보 1910년 9월 28일

기 막혀 *한성부윤 장헌식씨는 경복궁 안 진전의 석재와 목재를 사서 한성구락원 들어가는 동구에 집을 건축하는데 현임 관리로 막중한 궁궐 재목을 사서 거처할 집을 건축함은 불경한 일이라고 물론이 있다더라.*

경복궁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일제 강점 이후에도 이정 시점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복궁의 공원화 계획은 9월 28일자 매일신보에 재차 실린다.

---

7) 우사가와 카즈마사(宇佐川一正), 동양척식주식회사 초대 총재

8) 장헌식, 1869년생으로 1895년 일본 관비 유학생에 선발되어 게이오의숙에서 수학했다. 이후 도쿄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한 후 1905년 관립한성외국어학교와 1907년 한성사범학교 교장을 거쳐, 1907년 7월부터 한성부윤으로 근무했다. 1907년 7월 고종이 강제 퇴위 당했을 때 훈3등 팔괘장을 받았고, 이토가 안중근에 의해 살해된 후 이토 추도회를 개치하기도 했다. 한성부의 마지막 판윤이었다. 일제강점 후 총독부 고등관에 임용되었으며, 1933년 중추원 칙임참의에 선임된 대표적인 친일파다.

궁기공원(宮基公園) *경복궁 내에 원랑(院廊)을 방매 훼철함은 이미 공지(共知)어니와 훼철의 공역(工役)이 준료(竣了)되는 동시에는 해(該)기지(基地)에 공원을 신축할 계획이라더라.*

그러나 공원조성계획의 실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오히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전각의 훼철과 매각이 행해지고, 공진회가 끝난 다음에는 총독부 신청사 건설이 시작되었다. 공원 건설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친 것이다.

2. 조선물산공진회 준비와 경복궁의 변화

공원조성을 명분으로 일제강점 전에 이미 4,000여 칸의 전각이 훼철되어 방매되었으며, 일제강점 후에는 1914년 7월에 나머지 전각에 대한 입찰 불하가 이루어졌다. 일제강점 하에 이루어진 경복궁의 훼철은 공원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총독부 신청사의 건설이 목적이었다. 계획 당시에는 25만 명의 관람객을 예상했었으나 약 3개월에 걸친 공진회 기간 동안에 무려 100만에 달하는 관람객이 찾는 대성공을 거뒀다. 물론 이러한 관람객 동원의 성공에는 지방에서의 집단 관람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림 15. 현 세종로를 메운 조선물산공진회 관람객



그림 16. 단체로 입경하는 관람객, 남대문역 앞 풍경, 깃발 부대의 모습이 보인다.

통감부 청사를 사용하던 조선총독부가 도성에서 총독부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청사를 위한 빈 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궁궐의 위상을 잃어버린 경복궁은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신청사의 제1후보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총독부는 1912년 예산에 조사준비비 3만 엔을 책정한 후 조사 및 설계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경복궁 해체 작업을 시작하였다.

1912년 총독관방 산하에 토목국이 신설되면서 회계국에 소속되었던 영선과가 토목국으로 옮겨졌으며, 같은 해 4월 1일에 지지육삼랑(持地六三郎)[9]이 토목국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1917년 6월 총독부 통신국 장관으로 영전할 때까지 경복궁 해체, 신청사의 건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10]

조선총독부는 한국 강점이 한국의 진보와 발전을 위한 것이었음을 한국민에서 전시하기 위해 시정5년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했다.

1914년 5월 13일 매일신보에 따르면, 공진회 건축물 설계를 위한 건축사무소를 개설하고 총독부 영선과의 쿠니에다 히로시(國枝博)기사가 근정전을 중심으로 주위에 각종 전시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술관 등 일부는 벽돌조로 건축하여 공진회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선물산공진회 배치

1914년 8월22일에 발표된 배치안에 따르면, 광화문을 주출입구로 삼고 동측의 건축문과 서측의 영추문을 출구로 삼았다.



그림 17. 조선물산공진회 배치도, 매일신보 1914년 8월22일



그림 18. 조선물산공진회 배치도, 매일신보1915년 3월 7일



그림 19. 경복궁 현 배치, 다음 위성사진 2014년

9) 持地六三郎, 1893년생, 동경제국대학 법과 졸업. 대만의 대남지사와 대만총독부 통신국장을 거쳐 1912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관방 토목국장으로 부임했으며, 총독부 통신국장관을 거쳐 1919년 8월 20일에 퇴임했다. 손정목, '조선총독부청사 및 경성부 청사 건립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10) 손정목, 조선총독부청사 및 경성부 청사 건립에 대한 연구, 향토서울 제48호, 1989년, 63쪽

개막식 행사장으로 사용된 근정전과 근정문 앞에 제1호전시관을 배치하며, 근정전 동측에 미술관(공진회가 끝나고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사용됨)과 참고관 및 제2호전시관이 배치되었다.

근정전과 근정문 남측에 위치한 제1호전시관 앞에는 분수대가 위치하며, 분수대 양측에는 조선총독부 산하기관 중 가장 큰 사업부서인 철도국의 철도관과 식민지배의 전위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특설관이 배치되었다.

근정전의 서측에는 경회루 남측으로 연예관이 배치되고 매점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배치되었다.

1915년 3월 7일에 발표된 배치도에는 미술관 앞에 서양식 정원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7와 그림 18의 배치도에 따르면 흥례문과 주변 행각의 철거를 전제로 배치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철거 예정인 전각에 대해 1914년 7월 10일 경매를 통해 매각이 이루어졌다.

그림 19는 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경복궁의 현재 모습이다. 중앙의 축에 위치한 근정전의 남측에 흥례문과 행각이 복원되었는데, 흥례문과 행각의 위치가 제1호전시관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근정전 동측에 위치했던 미술관(총독부 박물관)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자선당과 비현각이 복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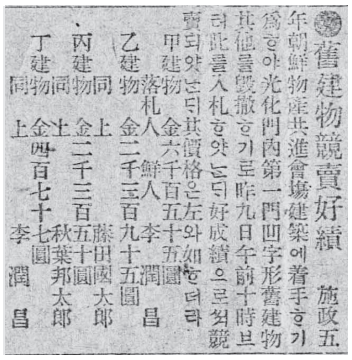

舊建物競賣好績 施政五年朝鮮物産共進會場建築에着手ᄒᆞ기爲ᄒᆞ야光化門內第一門四字形舊建物其他를毁撤ᄒᆞ기로昨九日午前十時브터此를入札ᄒᆞ얏ᄂᆞᆫᄃᆡ好成績으로呼競賣ᄒᆞ얏ᄂᆞᆫᄃᆡ其價格은左와如ᄒᆞ더라
甲建物落札人 金六千百五十五圓 鮮人 李潤昌
乙建物 金二千五百九十五圓 藤田國太郎
丙建物同上 金二千三百五十圓 秋葉邦太郎
丁建物同上 金四百七十圓 李潤昌

그림 20. 매일신보 1914년 7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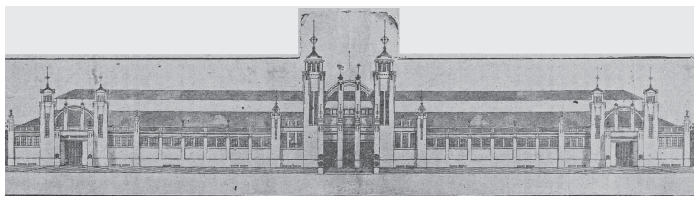


그림 21. 조선물산공진회 제1호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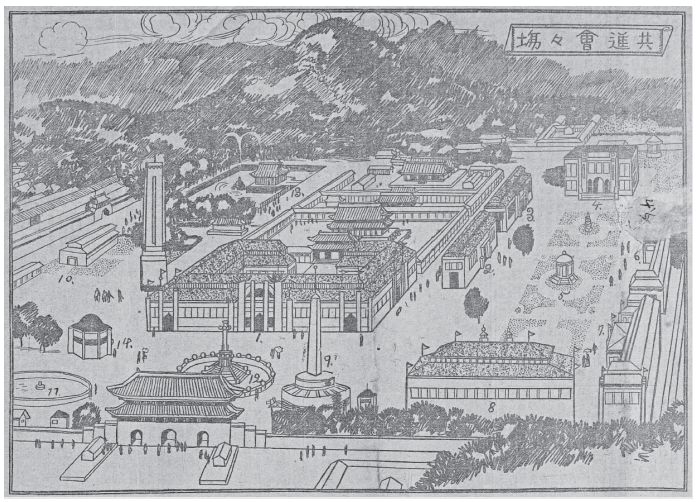


그림 22. 조선물산공진회장 조감도, 매일신보 1915년 9월 3일

총독부 미술관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하면서 미술관으로 건축한 건물은 공진회 개최 후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사용하였다.

건물의 전면부 중앙이 돌출되고 좌우가 대칭인 점에서 전체적인 건물의 구성은 총독부 청사와 같지만, 총독부 청사와 달리 중앙 상부에 돔이 없고, 양단부가 단정하게 처리된 르네상스풍의 고전주의 건축양식의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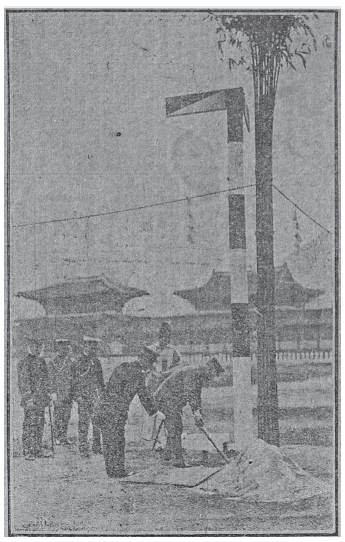
중앙에 쌍기둥이 있고, 쌍기둥이 2개 층에 걸쳐 있어 자이언트오더를 사용한 바로크건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건물 구성미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안정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 바로크적 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림 23. 총독부 박물관

3. 총독부 신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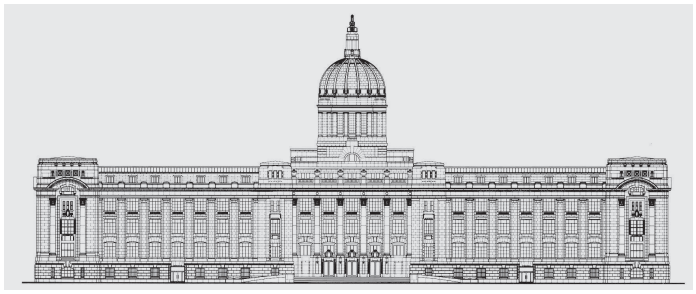
총독부 신청사의 설계는 초대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일본의 1세대 근대건축사인 이토추타(伊東忠太)[11]에 의해 경복궁이 신청사의 부지로 선정되었다고 한다.[12]


그림 24. 지진제 모습

당초 총독부 신청사의 부지는 종로구 동숭동 옛 경성제국대학(구 서울대 문리대) 자리와 서울시청 자리가 물망에 올랐지만 데라우치 총독에 의해 거부당하고, 이토츄타의 제안으로 경복궁이 부지가 선정되었다. 이토츄타는 같은 시기에 남산에 건설되는 조선신궁(朝鮮神宮)의 설계자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식민지 경성의 도시구조에서 강한 축성을 구성하는 북악의 총독부 신청사와 남산의 조선신궁의 터가 이토츄타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나 비록 식민지로 전락하기는 했지만 일국의 상징적 중심이었던 궁궐의 심장부를 훼철하고 총독부를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반론이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곤와지로(今和次郎)이다. 곤와지로는 1923년 조선건축회 초청으로 서울에서 이뤄진 강연에서 '총독부 신청사는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며, 위치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총독부 신청사의 설계는 1912년부터 시작되어 1914년에 완료되었다. 건축사는 George de Lalande였다. 그러나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사가 사망하면서 대만총독부청사 설계 경험이 있었던 노무라(野村一郎)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그림 25. 총독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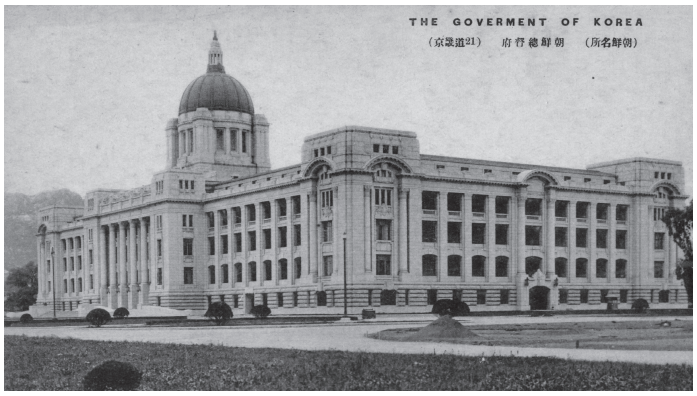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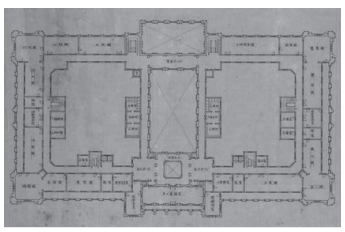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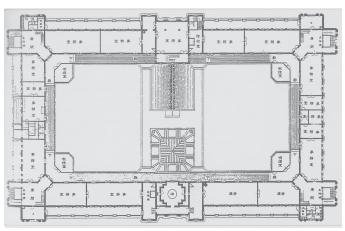


그림 26. 조선총독부 전경

일(日)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의도적으로 일본을 상징하는 설계라는 설이 널리 유포되었으나, '口' 평면이나 '日'평면 또는 '田'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중정이 하나면 'ㅁ'자형 평면이 되고,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 중정을 2개 가진 '日'평면이 되며, 건물의 규모가 더욱 커져 4개의 중정을 갖게 되면 '田'평면이 된다.


그림 27. 조선총독부


그림 28. 대만총독부

11) 조선신궁(1925)과 박문사(1932)를 설계했다.
12) 윤홍기, 경복궁과 구조선총독부 건물 경관을 둘러싼 상징물 전쟁, 〈〈공간과 사회〉〉15호, 2001년 295쪽(재인용)

따라서 독일출신 건축사였던 George de Lalande의 조선총독부 청사 '日' 설계는 공교롭게도 일본의 상징처럼 읽힐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럽건축의 기본 문법에 충실한 건축평면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평면도(그림 27, 그림 28)는 조선총독부와 대만총독부의 평면이다. 기본적으로 평면구성이 매우 유사하지만 계단과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로 구성되는 코어부분의 설계는 많이 다르다.

지진제(地鎭祭)

총독부 신청사 신축공사는 1916년 6월25일 오전 9시에 지진제에서 시작되었다. 지진제는 땅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로 공사의 안전과 건물의 번영을 기원하며, 근정문 밖에서 진행되었다.

입면구성

전체적으로 지하층이 포디움을 형성하며 두터운 줄눈을 갖는 화강석으로 구성되고, 상부가 중앙의 돌출된 열주와 상부 돔을 중심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형성하고 있어 전형적인 고전주의 건축의 특징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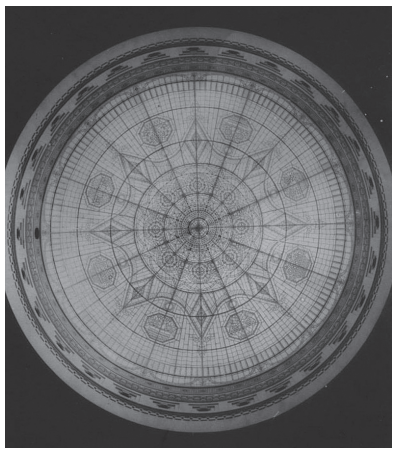

그림 29. 정면의 우측 단부 입면구성

건축양식의 구성측면에서는 고전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전면과 양측면에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어 동남아시아에서 형성된 콜로니얼스타일의 입면 특징을 갖고 있으며, 전면과 양측면의 베란다가 짙은 음영을 가지면서 건물에 강한 인상을 부여한다.

한편, 4개 층을 관통하는 중앙부의 열주와 양단부의 입면구성은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미를 근간으로 하는 고전주의 건축의 틀에서 벗어난 바로크건축의 의장적 특성을 갖고 있다.

구조와 설비

총독부 청사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설계되었으며, 외벽에는 화강석이 습식으로 부착되었다. 중앙 홀에는 채광을 위한 천장이 설치되었으며, 천창은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되었다.


그림 30. 스테인드글라스 천창

5개 층을 서비스 하기 위해 14개의 승강기가 설치되었으며, 중앙난방방식이 채택되었다.

1923년 5월 17일에는 상량식이 거행되었으나, 건물의 준공은 지연되었다. 이는 높은 물가로 인해 건축비가 상승하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오갈 데 없는 일부 부처가 기 완성된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35년 3월 10일에는 신청사 서측 부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중앙 홀의 구성과 벽화

중앙 홀은 천창으로 채광이 되며, 벽체에는 와다산죠(和田三造)의 대형 벽화인『羽衣』가 그려져 있다.


그림 31. 와다산죠의 대형벽화『羽衣』

와다는 일본의 서양화가이자 판화가다. 19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1924년에 조선총독부의 대형 벽화를 의뢰받아『羽衣』를 완성했다.

이 벽화는 조선과 일본의 유사한 선녀설화와 풍속을 주제로 '內鮮一體'를 표상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벽화는 조선총독부 철거 당시 떼어낸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그림 32. 중앙 홀 계단


그림 33. 중앙 홀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의 지배를 남산 통감부에서 시작했지만, 남산 통감부는 경복궁의 신청사를 완성하기까지 임시로 사용된 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준공된 시점에 남산의 조선신궁이 완성되면서 식민지 도시구조의 상징적인 축이 형성되었고, 도시의 주요한 결절점에 경성부청과 경성역사가 완공되면서 식민지 경성의 도시구조는 새롭게 재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구조와 경관의 변화는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다.

총독부의 준공이 다가오면서 비슷한 시기에 경성부청도 옮겨감에 따라 신문에는 이현(泥峴)을 중심으로 한 남촌 경제의 쇠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낙후된 도시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구개정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구개정사업을 할 경우 기존에 형성된 본정 상권에 대한 물리적인 재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한 본정의 상권 속성으로 인해 시구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총독부와 경서부청의 북촌 이전으로 생긴 공백을 미츠코시 백화점이 메웠고, 미츠코시 백화점에서 경성부청으로 이어지는 소공로와 경성부청에서 조선총독부 신청사로 이어지는 태평로-광화문로는 식민지 경성의 새로운 업무지구가 되었다.

4.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건설과 도시적 의미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준공된 1926년은 일본의 한국지배가 변곡점을 이루던 시기다. 건축의 경향도 역사주의 건축양식이 쇠퇴하면서 모더니즘 건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이며, 같은 시기에 건축된 경성부청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잘 보여준다.

경성부청보다 1년 늦게 준공된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오히려 역사주의 건축양식에 충실한 것은 경성부청보다 8년 먼저 설계되어 먼저 준공되었어야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기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34. 총독부 신청사에서 바라본 남산과 시가지 전경

기고.

글. **김득수**_ Kim, Deuk-soo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정보센터(ArchiDB) 활성화 방안

창조적 자재정보시스템 개발

A Plan to Activate the Architectural Information Center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필자는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석사를 취득했다.
영등포구 · 동작구건축심의위원 및 에너지관리공단 신도시 · 관광단지심의위원, 서울건축사회 영등포지역건축사회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에너지설비분과위원장, 서울건축사회복지회 신용협동조합 이사 · 감사,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및 회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현재 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 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작품으로는 추사기념관(현 예산문화회관), 일우김한종의사기념관, 충남서부지역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예산농업기술센터, 예산종합공설운동장, 산림청 임업연구소 및 연구원숙소 등이 있다.
현상설계 당선작으로는 충주제일신용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그 외 다수의 우수작과 가작의 수상경력이 있다. 학회논문은 「일제강점기 근대도시의 도시공간구조와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2007. 9)」, 「호서은행본점의 입지배경과 그 도시적 의미(2013. 10)」를 비롯해 한국도시설계학회지(통권 28호, 59호)와 본지(vol. 467, 468, 539, 540, 541)에 게재된 논문 등 다수가 있다.

1.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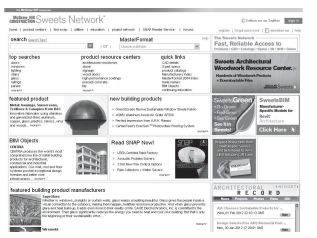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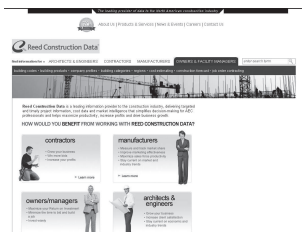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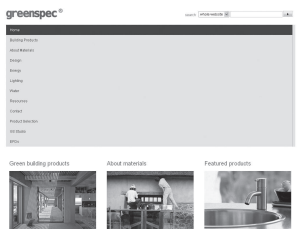
▪ 1992년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우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선포하였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 이에 따라 녹색건축물 구현을 위한 다양한 요소기술과 물리적 시스템 개발 그리고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등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개발의 성과와 정책 그리고 제도들이 녹색건축물의 설계과정에 통합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녹색건축물의 설계시 녹색인증을 받은 건축자재정보가 자재정보시스템 속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개별정보로 분산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건축자재의 선택에 따른 시방서의 정보전달 체계도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지 못하였다.

▪ 또한 건축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다양한 성능을 가진 자재들이 생산되고 '사양중심'에서 '성능중심'으로 건축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자재의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나 건축설계도서의 작성과정에서 건축자재의 성능 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공과정에서 건축주나 시공사의 판단에 의해 자재의 성능보다는 주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건축자재를 선정하려는 관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성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즉, 건축자재의 선정권한이 건설과정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결국 건축설계단계에서 고려된 성능기반의 건축물을 구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따라서, 현행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수준을 높이고 건축설계도서의 작성과정에서 건축설계자의 자재선택권이 인정되고 성능중심의 건축자재 스팩-인(Spec-In)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고려하여 통합적인 자재정보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자재와 시방서를 연계한 녹색건축자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해외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사례

Sweets Network System	SMART BUILDING INDEX	Green Spec
		

2. 국내외 자재정보 현황 및 문제점

▪ 건축자재는 건축분야 전체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건축자재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재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분류체계와 상호 연계하여 실무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의 건축자재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으로는 McGraw-Hill Construction사의 Sweets Network System, Reed Construction Data사의 SMART BUILDING INDEX 시스템, 영국의 GreenSpec 시스템 등이 있다.

▪ 이들 정보시스템은 사용자에 따라 최적화된 검색방식(통합검색, 조건별 검색, Master Format에 의한 분류체계를 통한 검색, 인기어 검색, 빠른 검색, 건축사 및 엔지니어, 계약자, 제조업체, 건축주 및 시설 관리자 등 사용자에 따른 검색)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자재에 대한 상세한 정보(업체정보, 인증정보, 에너지 효율 평가 자료, 성능정보, 3D이미지, CAD도면, BIM 정보, 시방서, 실무적용사례, 전자카탈로그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체계적인 건설자재 분류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재 분류코드는 북미지역 건설자재 분류체계를 이끌어오고 있는 Master Format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Master Format은 계층형 분류체계로 건축의 공종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총 16개 분류체계에서 건축자재의 다양성과 공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50개 분류체계로 증가되었다. 영국에서는 CI/SfB, CAWS, CESMM3, EPIC 등의 체계들을 취합하여 NBC services가 Uniclass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ISO TR14177에 근거한 통합분류체계로 ISO표준분류체계에서 제시한 8개의 파셋(Facet)에 정보형태, 주제분야, 단위시설물(Entities), 재료(Materials), 보편적 십진분류 등 5개 파셋을 추가하여 총 13개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다.

▪ 우리나라의 자재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분류체계는 직 · 간접적으로 해외 선진국의 영향(북미시스템 – Master format 방식과 유럽식시스템 – Omniclass 방식)을 받아 변경되었고 자재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한 통합적인 분류체계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자재정보가 DB로 구축되지 않아 자재업체에서 개발한 우수한 성능의 자재 및 공법을 건축 및 건설 실무자들에게 홍보하고 보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축 및 건설 실무자들은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자재정보의 빈곤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내 건축자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 주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녹색구매통합정보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자재통합정보시스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건축정보센터, 한국공기청정협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조달청의 나라장터, 대한주택공사, 대규모 건설회사, 건축사사무소, 자재생산업체의 웹 사이트 등에서도 건축자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들 정보시스템은 자재 정보의 분류나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인 분류체계가 부재하고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상세정보(업체정보, 인증정보, 에너지 효율 평가 자료, 성능정보, 3D이미지, CAD도면, BIM 정보, 시

표 2. 국내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사례

녹색제품정보시스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공공녹색구매통합정보망
		
건설자재통합정보시스템	**건축정보센터**	**한국공기청정협회**
		

방서, 실무적용사례, 전자카탈로그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부재하여 건축 및 건설 실무자들은 건축자재정보 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대한건축사협회도 2000년부터 건축정보센터(ArchiDB)를 설립하여 다양한 건축자재정보(회사정보, 카탈로그, 시방서, 상세도, 물성표, 가격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재업체에서 개발한 우수한 자재 및 공법들을 공유하고 건축사 등 건설관련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보급하고자 하였으나, 협회의 예산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재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웹 사이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협회의 건축정보센터(ArchiDB)에 구축되어 있는 자재정보는 구축년도(2000년)에 대부분 수집되었고, 약간의 자재정보가 2006년까지 업데이트 되었으나 이후 전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자재정보는 10년 이상 경과되어 정보로서의 신뢰성과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며, 가치가 상실된 자재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은 협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제안 사항

- 따라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자재정보 분류체계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건축 및 건설 실무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까지 모든 사용자가 다양한 건축자재정보 및 시방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신속하게 건축자재를 선택하고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활용할 수 있는 녹색건축자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녹색건축자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녹색건축물 구현을 위한 설계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수준을 높이고 건축설계도서의 작성과정에서 건축사의 자재선택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능중심의 건축자재 스팩-인(Spec-In)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근거법령(가칭 건축자재관리법) 제정을 정부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

둘째, 협회 내에 '건축정보센터(부서 신설)'를 설립하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분류체계와 자재정보 분류체계를 연계하여 새로운 통합적인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자재의 규격화 · 표준화 연구, 녹색건축자재 통합정보시스템(ArchiDB 재구축) 개발, 컨텐츠(자재정보, 디테일, 시방서, BIM정보 등) 수집 및 구축, 지속적인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건축자재위원회'를 신설하여 현행 건축정보센터(ArchiDB)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녹색건축자재 통합정보시스템이 건축 산업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구축 ·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 부처에 자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과 DB구축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제안하여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야 한다.

셋째, '건축정보센터(ArchiDB)'와 한국건축산업대전, 건축자재추천제, 기타 외부 자재관련 박람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설계자와 자재업체간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재업체에서 개발한 우수한 자재 및 공법들을 DB로 구축하여 공유하고, 녹색건축자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축사 등 건설관련 실무자들은 건축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다양한 자재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자재업체는 우수한 자재를 홍보하고 보급할 수 있는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상생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녹색건축자재 통합정보시스템 개발과 수십 만종에 이르는 건축자재정보를 DB로 구축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투입과 다양한 관련외부기관(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재시험연구원 등), 관련정부부처(예 :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자재업체, 건설회사 등이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자재정보를 수집하여 구축하고 업데이트 및 홍보 · 보급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건축자재정보를 민간주도로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축적하고 관리 · 운영하고 있는 미국 McGraw-Hill Construction의 SWEET NETWORK SYSTEM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녹색건축자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건축자재 생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파일 포맷변환, 이미지 정보의 텍스트화, 수집된 정보의 전자 카탈로그 제작, 자재의 3D라이브러리 제작, 자재 유통시스템 구축, 자재 교육, 고급 자재정보 판매 등)을 개발하여 녹색건축자재 통합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 · 운영하고 업데이트 해야 한다.

4. 기대효과

-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평가, 녹색건축인증 등 새로운 건축설계 환경을 고려하여 실수요자 측면에서 건축실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건축자재 정보를 제공하는 녹색건축자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성능을 기반으로 한 녹색건축물을 실현하고 보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건축자재 산업의 R&D 활성화 및 건축자재와 IT의 결합으로 창조경제 시대의 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설계자는 건축물 설계시 다양한 건축자재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설계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 구현을 위한 설계 · 시공 기술 이전으로 설계 · 시공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협회는 이를 사업화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녹색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성 단계에 이르면 회원과 비회원간 정보 제공을 차별화하여 고급 자재정보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화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5. 참고문헌

- 에너지 절약형 건축설계, 핸드북 「주택」, 「병원」, 「숙박」, 「판매 및 사무소」 발간 에너지분과위원장 겸 자문위원 김득수, 연구책임자 이명호(중앙대 교수), 연구원 이경회(연세대 교수), 이언구(중앙대 교수), 김광우(서울대 교수), 유호천(울산대 교수), 김회서(단국대 교수), 구재오(강원대 교수), 윤동원(대전대 교수), 송국섭(부천대 교수), 전봉구(대유전문대 교수), 조균형(수원대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1994.9.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수암, 김영재 외 3인), 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한 신건축물의 설계기준 수립 토론회, 2001.5.22.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수암, 김영재 외 6인), 건축물 유지관리 지침, 한국도로공사, 2001.9.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상호, 김영재 외 1인), 경량형강 스터드 및 벽체의 규격화 연구, 2001.11.
- 김홍수 외 6인, 친환경 건축자재 세부상세도 및 시방서 개발방향 수립,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1.2.
- 김홍수 외 5인, 설계{BIM}적용 확대를 위한 녹색 건설자재 DB구축 기초 연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1.12.
- 송석기, 이명식, 노대원, 이문섭, 건축자재정보 DB 및 검색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0.6.
- http://www.archidb.com
- 김상부, 김득수 감사보고서, 2014.2 대한건축사협회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2014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한국건축문화大賞은 우리 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는 신인 등용의 장으로서 한국 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가고 있는 『2014한국건축문화大賞』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부문 및 대상

준공건축물부문

ㅇ응모작품 : 2012년 5월 1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 국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 (임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은 응모 불가)

ㅇ응모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돼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대표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계획건축물부문

ㅇ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ㅇ응모자격 :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내 · 외국인

응모방법

준공건축물부문

ㅇ인터넷 참가신청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ㅇ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심사 실시

계획건축물부문

ㅇ작품주제 : **"오래된 미래 : 나만의 우리"**

ㅇ인터넷 참가신청 ⇒ 1차 심사 제출내용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ㅇ1차 작품계획안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3차 심사 실시

ㅇ1팀 3인 이내, 1인당 1작품 참여로 제한

작품접수

준공건축물부문

ㅇ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4. 6. 5(목)까지 09:00 ~ 18:00

☞ kaa.kira.or.kr

ㅇ 1차심사 제출내용 접수 : 2014. 6. 9(월) ~ 6. 10(화)

09:00 ~ 18:00 **시간엄수**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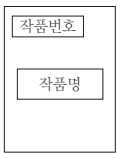
ㅇ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1차 제출내용

• A4규격의 포트폴리오 1부

☞ 포트폴리오는 출품자(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하며, 표지에 작품명, 접수번호 표기

표지 예)



• 작품사진, 기본도면, 작품개요 · 설명 등이 수록된 DVD 1장

☞ DVD에 사진(스케치), 도면, 작품개요, 작품설명 각 4개 폴더를 생성하여 데이터 저장

– 사진(스케치) : 20컷 내외(사진설명을 파일명으로 저장), 기본해상도 300dpi 및 사이즈 220×280mm 이상(JPG파일)

사진파일명 예) 전경.jpg, 1층 로비.jpg, 남측 전경.jpg, 북측 전경.jpg

– 도면 : 배치도, 평 · 입 · 단면도(캐드 파일_방위, 스케일바, 실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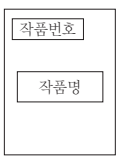
1. 필히 치수와 선 정리 후 제출(실시 도면이 아닌 잡지 게재 형식 도면)
2. 스케일바는 월간 '건축사' 양식에 준함. 실명은 정리된 도면에 실명을 기입하고, 이를 이미지 파일(JPG 혹은 PDF)로 변환하여 필히 캐드 파일과 함께 저장 제출

– 작품개요 : 아래 양식 참조(HWP파일)

– 작품설명 : 한글 및 영문번역본 각 1부(1,400자 이내, HWP파일)

☞ DVD케이스 및 작품개요는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

DVD케이스 예)



작품개요 양식 예)

건축물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용 적 률	117.96%
용 도 지 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 수	지하 3층, 지상 3층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
대 지 면 적	3,277㎡	설계담당	홍길동
건 축 면 적	1,960㎡	시 공 사	문화건설
연 면 적	8,740㎡	건 축 주	건축문화청
건 폐 율	59.81%	외국참여사	

• 건축물대장 1부 –건축물대장(갑) 또는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건축물 현황도 포함

• 출품동의서(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출품동의) 1부 – **서식 참조**

※ 공동설계 작품인 경우 공동설계자의 출품동의서(명의 동의) 반드시 제출

계획건축물부문

ㅇ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2014. 5. 26(월) ~ 5. 30(금)

☞ kaa.kira.or.kr

ㅇ 1차심사 제출내용 접수 : 2014. 6. 3(화) ~ 6. 4(수)

09:00 ~ 18:00 **시간엄수**

☞ 방문 및 우편접수(우송일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차 제출내용

• 작품계획안 A2(가로42.0㎝×세로59.4㎝ – 종방향으로 구성) 1부

– 아이디어 위주의 전개과정, 설계개념 등을 표현(패널 축소판이 아님.)

– 공모주제 참조

☞ 작품계획안은 전면 우측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이 접수번호표를 부착하여 제출 (작품계획안 폼보드 · 우드락 부착 불가)

• 작품설명서 1부(A4 1장)

☞ 작품설명서 전면 우측상단에 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해야 하며, 참가신청 작품명 · 작품계획안 · 작품설명서 제목이 동일해야 함.

※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외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함.

※ 접수번호표 예)
접수번호는 가로30mm, 세로 10mm의 크기로 흑색으로 표기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2차 작품접수 : 2014년 7월 15일(화) 09:00 ~ 18:00 **방문접수**
☞ 3차 작품설명 프리젠테이션 심사일은 추후 공지

2차 제출내용

• 패널 A0(가로84.1㎝×세로118.9㎝ – 종방향으로 구성) 1매
– 작품계획안에 자유롭게 주제를 적용, 발전시켜 표현
☞ 패널 두께는 100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폼보드 및 우드락 부착하여 제출
☞패널 전면 우측상단에 1차와 같은 양식으로 접수번호표를 부착하여 제출

• 모형(가로×세로 80㎝×80㎝, 높이 50㎝ 이내 – 모형대 제출 및 외부전원장치 지원 불가)
☞ 모형접수번호는 접수현장에서 부착함.
※ 상기 제출내용은 접수번호외 출품자 관련정보(학교, 이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작해야 함.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심사위원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수상발표 및 시상 · 전시

수상작 전시회 / 시상식 : 추후 공지

기타 출품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 발생 시 출품무효 또는 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
○ 제출도서 및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작성된 작품
○ 실제 저작권자(설계자와 시공자)와 제출서류 상의 저작권자가 다른 작품
○ 위법 · 편법 건축물은 출품무효 처리하며, 응모부문 위반신청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공모요강에 명시된 출품물의 규격 및 제출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 응모자격이 없는 자가 출품한 작품
※ 출품자는 작품접수 이후 접수취소가 불가하며, 제출도서 및 서류상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우리 시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근거서류 및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계획건축물부문 패널 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함.
○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 발표 후 입상자는 지원한 작품의 모든 디지털자료(패널파일 및 모형사진)를 제출해야 함.
○ 준공건축물부문 입상작에 한해 수상작 전시패널, 모형을 제출해야 함.

시상내용

준공건축물부문

상명 \ 시상내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대 상 (4점)	사회 · 공공부문	대통령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민간부문	대통령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대통령상	
	일반주거부문	대통령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본 상 (4점)	사회 · 공공부문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민간부문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	국무총리상	
	일반주거부문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다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 시상		

※수상자 트로피(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및 건축물부착용 명판(건축주) 수여

계획건축물부문
○대 상(1점) : 상금 5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최우수상(3점) : 상금 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해외건축탐방
○우 수 상(8점) : 상금 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입 선(20점 내외) : 상금 30만원,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1인)
○국토교통부장관상, 트로피

공로상
– 한국건축문화대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주최 /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
■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 **후원 / LH, 대한주택보증(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홍보실 홍보편찬팀 【Tel. 02) 3415–6862~4】**

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

2014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공모주제

오래된 미래 : 나만의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일까? 거창한 비전과 전략을 다룬 도시계획이나 재개발이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오히려 도시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나 아파트 단지로 대변되는 우리도시의 재개발 방식은 시간을 두고 켜켜이 쌓아올린 인간들의 삶의 모습과 역동성을 단순한 거대계획으로 사라지게 하고 도시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근대건축의 대표적 이론가인 지그프리드 기디온(Sigfried Giedion)이 '공간, 시간, 건축'에서 근대의 시간과 공간의 해석을 통해 근대건축을 설명하였듯이 일방향적이고 발전적인 시간 개념 안에서의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역설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지역적 공공성을 지닌 도시와 건축을 발견하고 제안하는 것이 이번 공모의 주제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오래된 것들에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실제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의 흐름, 그들의 네트워크, 삶의 터전, 생활방식에 대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다른 가치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작은 것들을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둘러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역사보다는 오늘의 일상에서, 전통의 답습보다는 오래된 것의 재창조에서, 새로운 것의 발명보다는 잊혀져 있는 장소의 발견에서 그 힌트를 찾아야 한다. 라다크의 오래된 지역 공동체에서 세계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를 보았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 Hodge)의 혜안처럼 도시의 획일적이고 배타적인 개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의 오래된 도시 속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적 공공성은 전체적인 가치뿐 아니라 각 지역의 장소적 개별적인 가치들이 존중받을 때 생겨난다. 지역적이며 개별적인 가치가 숨쉬기 위해서는 개발의 논리에서 배제되었던 느린 것, 작은 것, 소외된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도시에서 작은 구역으로, 지역에서 작은 마을로, 군주의 광장에서 주민의 마당으로, 자동차를 위한 도로에서 일상의 삶이 녹아 있는 골목길로 눈을 돌릴 때 잊혀 가던 공공의 가치를 다시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작동 가능한 길, 마당, 마을이 다양해지고 서로 소통할 때 우리의 도시 또는 마을은 건강하고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작지만 소중한 '내가 사라진 우리'을 넘어 다양한 '내가 함께 하는 우리'가 되는 공동체를 상상해 보자.

제언 :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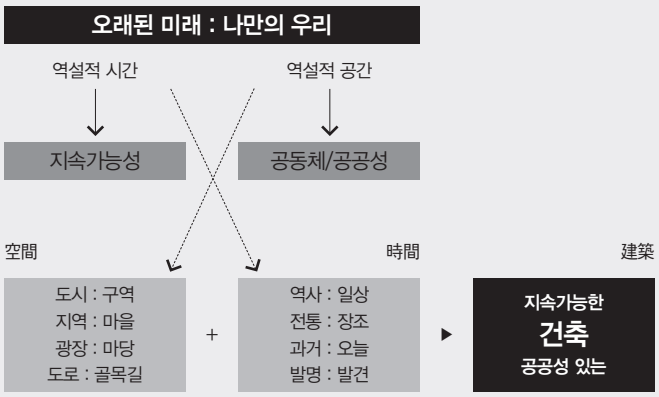
대지는 실제 대지를 원칙으로 하고 도시와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고민하고 도시와 지역보다는 작은 구역과 마을로 눈을 돌려 지속가능하고 공공성을 지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오래된 건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는 장소, 도시의 틈새와 같은 숨겨진 공간들, 산업의 변화나 행정조직의 변화에 의해 버려지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지 못해 주저앉은 공간들이 주제를 적용하기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제안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공유하며, 그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과 작지만 소중한 가치들을 공간화해 나가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작동이 가능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안은 건축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외부 공간으로 확장해 가로나 공원 등 공간적인 환경을 만드는 작업도 가능하다. 논리적인 분석과 창조적인 제안을 통해 오래되었지만 의미 있는 가치로 가득 찬 지속가능한 미래, 다양한 개별적 가치가 공존하는 공공성이 살아있는 도시와 건축을 그려보기를 기대한다.

단서들…

지속가능성, 공공성, 구역, 마을, 마당, 골목길, 일상, 창조, 발견…

도시 : 구역	지역 : 마을	광장 : 마당
도로 : 골목길	역사 : 일상	전통 : 창조
과거 : 오늘	발명 : 발견	

도표



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

제4회 이사회

2014년도 제4회 이사회가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협회 친선 골프대회 개최 계획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건설기술자 수수료 부과 및 수납관리 규정 개정의 건, 사무기구 직제 조정 및 관련규정 개정의 건, 동호회 지원금 결정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협회 친선 골프대회 개최 계획의 건
  - 협회 친선 골프대회는 2014년 6월 16일 개최키로 하고, 이사 2인(김강수, 장현수)이 검토하여 회장과 협의 후 진행키로 함.
  ▷감사 의견을 존중하여 협회 예산은 최소한으로 집행 검토

| 부의안건 |

- 제1호 : 건설기술자 수수료 부과 및 수납관리 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 : 사무기구 직제 조정 및 관련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 : 동호회 지원금 결정의 건
  - 동호회 지원금은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 지원하기로 함.

| 기타사항 |

- 본협회 내에 시도건축사회의 의견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제개혁 TF 팀을 구성 · 운영하기로 함.
- 건축 신고 건 등에 대해서도 업무실적 관리가 되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함.
  - 건축사법령 개정이 불가한 경우,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 본협회 임원의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관(6월 23일~2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은 김강수 총무이사가 사무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함.
- 2014년도 제5회 이사회는 5월 14일(수) 14시에 개최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제1회 녹색건축위원회

제1회 녹색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1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녹색건축위원회 활동계획(안)에 관한 건
  ① 녹색건축물 탐방계획 : 탐방건축물은 LH홍보관(세곡동), 에너지기술원 제로하우스(대전), 상암동 에너지센터로 변경하고 탐방가능 일정을 협의 후 4월 중 진행
  ② 녹색건축세미나 : 주제③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건축설계 기법 및 전략"으로 변경하기로 하며,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이승복 교수에게 요청
  ③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특강 및 한국패시브건축협회 교육 : 계획(안)대로 지원
- 제2호 : 녹색건축인증 교육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건
  - 위원장 및 이기완 부위원장과 건축사 교육 관련 담당자 및 친환경아카데미 담당자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신청서 작성 및 추진방향 등을 논의해야 함. 또한, 추진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
- 제3호 : 녹색건축협의회 설립 추진에 관한 건
  - 협의회 설립 여부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본협회 회장단 및 이사회에서 판단 및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회 국제위원회

제2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2014년도 국제위원회 업무분장 및 활동계획에 관한 건
  - 중국 관련 자문위원 및 기타 자문위원 추가 물색
  ▷다음 회의 시 위원별로 정리하여 추천토록 함.
  - 국제교류 관련 행사별 국제위원 업무분장
  ▷회의 별첨자료와 같이 관련 국제행사의 담당위원을 선정함.
  ▷제35회 ARCASIA 이사회 및 16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시 위원회별 담당위원 지정이 필요(협회 내 관련 위원회와 협조하여 진행 필요)
  ▷제17차 한 · 중 · 일건축사협의회 관련 인천시와 주제 및 연사를 조정하여 협의토록 함.
- 제2호 : 2014년도 ARCASIA 건축상 공모에 관한 건
  - 2013년도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 명단을 국제위원회에 회람하여 작품 제출을 독려키로 함.
  - 작품작에 대한 심사
  - 담당위원 : 이승석, 강호원, 강승우 위원
  - 심사일정 : 4월 초순 예정
- 제3호 : 2014년 태국건축사협회 컨벤션에 관한 건
  - KIRA-JIA-ASA 간담회 주제 선정이 필요
  - 각국 단체와의 협의를 예년의 연장선 상에서 이어지도록 추진함.

(2013년 ASA, ALACE, UAP, PAM 등과 협의 진행하였음.)

– 차기 ARCASIA 회장과의 면담을 추진

●제4호 : ARCASIA Zone C 회의 개최에 관한 건

– 회장의 지시사항을 참고로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추후 논의토록 함. 다만, 현 Zone C 부회장과의 사전 협의를 추진토록 하여 회의 개최 일정을 결정토록 함.

제1회 사업위원회

제1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전시회 일정 및 동시개최 행사의 건

– 전시회 일정 및 장소 : 2014년 10월 29일(수)~11월 1일(토) 코엑스 B1홀

– 동시행사 : 2013년도와 동일하게 녹색건축한마당과 동시 개최

※ 녹색한마당과 동시 개최 시 비용보다 협회의 위상, 전시회 규모 확대, 건축사가 담당할 수 있는 업역 등 향후 기대효과가 더 크므로 수용키로 함.

●제2호 : 2014 전시회 주제 선정의 건

– 대주제는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로 통일하고 소주제만 정하기로 함.

※ 동시개최 행사와 융합할 수 있는 주제로 협회 홍보매체(건축사지, 신문 등)를 통하여 회원들의 의견수렴도 필요, 워크숍에서 재협의.

●제3호 : 부스 유치 인센티브 요율의 건

– 전시사업의 수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출 증가는 적자폭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워크숍에서 재협의.

●제4호 : 위원회 담당업무 지정에 관한 건

– 새로 선임된 위원들이 전시사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워크숍 개최 후 재논의키로 함.

제1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제1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결과보고에 관한 건

– 「2013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함.

▷등록건축사가 본인의 건축사실무교육 이수현황을 알 수 있도록 E-mail, SMS 등을 이용해 주기적(1년 2회 정도)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실무교육의 유사한 교육과정이 여러 교육기관에서 중복 개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정 인정심사 시 조율할 필요 있음.

●제2호 : 건축사실무교육 자기계발 인정항목 세부기준 개선에 관한 건

–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 요청된 건축사실무교육 자기계발 인정항목 세부기준을 원안과 같이 개선하여 2014년 3월 5일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검토는 실무교육소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세부기준 개선(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 구체적인 내용검토는 운영위원회 종료 후 실무교육소위원들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개선된 세부기준 적용시점은 2014년 3월 5일부터 하기로 하고, 기존 인정 승인된 건축사는 이의신청 건에 한하여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기로 함.

●제3호 : 건축사 자기계발 인정에 관한 건

– 조달청 설계검토 자문위원회의 참석건으로 재심의 요청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자기계발로 인정한 경우(분류코드 L)'를 적용하여 1시간 인정하기로 함.

| 기타사항 |

– 건축사등록업무는 정부위탁사업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건축사등록원 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키로 함.

– 차기회의에서는 2014년도 건축사등록원운영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함.

▷건축사교육원과의 업무구분 및 방향 설정, 외국 기관과의 교류 활동, 실무수련 관리매뉴얼 마련 등 소위원회별로 검토

제2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제2회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자재분야 전문교육 개설 검토

– 자재분야 전문교육의 개설과 관련하여 김항년, 이장백, 성낙기 위원이 추진계획(안)을 보완하여 재검토 계획안을 작성,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제2호 : 시도건축사회 교육관리실태 점검의 건

– 운영점검 지침 및 평가서 등을 세분화하여 김항년, 이장백, 성낙기 위원이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재검토계획안을 작성,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제3호 : 사이버교육 교안검토위원에 대한 전문교육 인정 여부의 건

– 사이버교육은 위원의 해당강좌 완성 시까지 단계별로 세부검토과정과 직접 수강을 통해 검수가 이루어지므로 검수위원에 대해서는 검수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 아래 전문교육으로 인정(교육비는 검토비로 대체)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함.

●제4호 : 사이버교육 교육과정 추가 검토의 건

– 기술제안서 작성과 발표기법(양영호 건축사)은 강사의 교안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인문 · 건축 분야의 사이버 강좌 개설을 추진하되, 강사 및 주제 등은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제안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김영수 회장 '개성공업지구' 방문



협회 김영수 회장과 TFT는 지난 3월 17일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했다. 김영수 회장은 최근 구성된 '개성공업지구 건축종합관리지원 TFT' 위원들과 함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개성공업지구 내 건축물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의 개성공업지구 방문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로부터 개성공업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품질 및 건축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개선과 건축에 대한 행정 등 업무지원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지난 해 11월 1차로 방문해 건축물 현안에 대해 협의한 협회는 이번 2차 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건축물 관리를 진행했다.

영등포지역건축사회 재능기부 '벽화그리기'



영등포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벽화그리기'에 참여했다. 영등포지역건축사회 건축사 10여 명은 지난 3월 31일 영등포로타리 인근 낡은 가로수변 녹지 초소에 벽화를 그렸다. 이번 벽화그리기는 영등포구청과 함께하는 '영등포 재능나눔 환경디자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벽화그리기 작업 중에는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건축사들과 환담을 나누며 격려했다.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새 단장'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가 지난 3월 31일부로 전면 개편됐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이용자들이 쉽게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흰색 바탕에 깔끔한 느낌으로 디자인됐다. 특히 메뉴체계를 최소화해 보다 정보를 찾기 쉽다.



김영수 회장, 새누리당 주최 '건설관련 단체장과의 대화' 참석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4월 24일 새누리당 건설위원회 주최로 열린 '건설관련 단체장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김영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에 건축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필히 개선돼야 할 사항들을 건의했다. 이에 직능특별위원회 정희수 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건축계 현안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법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에스와이패널(주)와 업무협약 체결



우리협회는 지난 4월 22일 건축설계분야 발전과 건축자재기술 향상을 위해 에스와이패널(주)(대표 홍영돈)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해 · 재난 등의 긴급 구호 시나 사회봉사 활동 시 재능기부 및 물품기증 등의 방법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회 주최 행사 또는 간행물 등에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협찬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협회가 참가하는 국제행사 등에 있어 공동참여 및 공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와이패널(주)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학생잼버리 참가학생 지원 등 사회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직원 대상 4월 직무교육 실시



우리협회는 지난 4월 25일 건축사회관 2층 교육장에서 '4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에는 협회 김영수 회장과 권병조 상근부회장 및 직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회장 · 직원과의 대화에서 김영수 회장은 "자기 계발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발전하는 직원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회장과의 대화 후에는 이어서 '내 삶의 성공계획 셀프리더쉽'이란 주제로 자기계발 강연이 진행됐다.

우리협회는 직원들의 직무발전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축계 소식

서울대학교 김광우 교수, 대한건축학회장 취임



서울대 건축학과 김광우 교수(62세)가 오는 4월 26일(토)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되는 '2014년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에서 제3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월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김 회장은 서울대 학생담당부학장,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특별전형시험 시행

2014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특별전형시험이 오는 5월 18일(일) 홍익대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160분이며,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4과목으로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또 함께 치러지는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2과목으로 역시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이번 시험에 접수한 인원은 약 7,047명으로 지난해 2013년도보다 약 200여 명 정도가 감소했다.

2014 임정의 건축사진아카데미 개설

1999년 제1회 청암건축사진아카데미로 시작된 이후 지난해 잠시 중단됐던 건축사진 강좌가 건축인들의 요청으로 다시 재개된다.

특히 이번 '2014 임정의 건축사진아카데미'에서는 임준영 사진가와 황효철 건축사진가의 디지털 건축사진에 대한 특강이 보강됐다. 강의 기간은 오는 6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12주이며, 강의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시30분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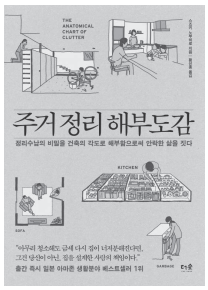
건축사진가 임정의의 조부 임석제는 우리나라 사진의 리얼리즘을 개척한 사진작가이고, 부친 임인식은 한국전쟁의 종군사진작가였다. 아들 임준영은 역시 현대적인 사진가로서, 4대가 사진가이다. 임정의는 신문, 방송 보도사진기자로 지내다가 김수근 건축사와의 만남으로 공간지 사진부장을 역임했고, 1978년 부터 서울 충무로에 '청암건축사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 청암사진연구소 02-444-7088, imfoto@naver.com

신간안내

주거 정리 해부도감 : 정리수납의 비밀을 건축의 각도로 해부함으로써 안락한 삶을 짓다

스즈키 노부히로 저 | 황선종 역 | 136쪽 | 더숲



이 책의 저자인 스즈키 노부히로는 '어떻게 집을 지으면 덜 어질러질까' 하는 주택 설계의 근본에 해당하는 문제를 놓고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 간의 갑론을박을 지켜본 끝에 주거 '생활'을 바라보는 심도 있는 통찰을 하기에 이른다.

'좋은 집'을 짓는 기준은 건축사들 모두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미관을 최우선 가치로, 누군가는 비용 문제를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하지만 저자에게 좋은 집이란, 일상생활이 불편함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쉽게 어질러지지 않고 정리가 잘 되는 집이란 어떤 것인지, 생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공간과 불필요한 공간은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그의 건축설계 방식인 것이다. 저자는 일본 아마존 건축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주거해부도감』의 저자 마스다 스스무와 함께 요코하마 건축그룹 'area045'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 **김은미**_ Kim, Eun-mee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소모적 경쟁 공모 관습을 버리자

Kick the Architectural Competition Convention


자발적 죄수들 : 시카고 현대미술관에 모인 Navy Pier 현상설계 참여 건축사들 Courtesy Terry Surjan

"우리 건축계에서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수히 버려진다. 현상설계에 제출을 하기 위하여 들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은 지적 능력을 소모적으로 써 없애 버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당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초청하겠다. 하지만 미리 공지하자면 80%의 경우 우리가 당신의 생각을 버려 버리고는 그것이 완전히 헛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상 어떤 다른 전문 집단이 일을 하기 위해 이런 초청 방식을 감수하겠다고, 혹은 참아보겠다고 할는지 나는 모르겠다…"

– 렘 콜하스 인터뷰 중

아래에 인용할 아티클은 2011년에 치러진 〈the Navy Pier redevelopment competition〉의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갔던, IIT 교수이기도 한 건축사 마샬 브라운이 architect's newspaper에 올린 글의 일부다.

Navy Pier redevelopment competition에서 우리 팀이 파이널 라운드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을 즈음, 문득 나는 왜 모든 건축사, 조경사, 또는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불확실한 보상의 한정된 약속을 위해 이리도 고되고 불쾌한 경험을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나 자신은 이번 공모전의 과정으로 새로 세운 나의 사무실이 대중에 노출되는 기회와, 더 나아가 어느 정도 금전적 등의 혜택도 누렸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어떻게 하면 신생 입지에서 벗어날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했을 뿐 아니라 우리 건축계의 리더들이 이 부당한 착취 공모 시스템의 포로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코 이것은 젊은 건축사들이 작은 상의 희망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또는 어쩌면 그들의 커리어를 올려줄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공모전을 겨냥한 비판이 아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경연 곧 그 경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권위가 있거나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 경쟁 공모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작년에 열린 〈425 Park Avenue〉 현상설계에 참여한 렘 콜하스, 자하 하디드, 노만 포스터의 프레젠테이션 비디오를 보면서 경고로 발전되었다. 그들이 보여준 계획은 명성 수준에 미치지 못한 평범한 것들이었다. 맨하탄 고층 빌딩에 대한 살아 있는 걸출한 이론가로서의 렘 콜하스의 입지를 생각할 때, OMA의 계획안은 특히 실망스러웠다. 쌓이거나 돌려 세워진 세 개의 큐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계획은, 지금껏 우리가 OMA가 최고로 잘해왔던 내재적인 계획의 복합성이나 도전적 서술이 결여된 단순한 formalism으로 회귀한 모습이었다. 어쩌면 업무시설이라는 건물유형이 건축사의 혁신적인 능력을 제한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만일 그 결과의 이유가 건물유형 때문이라고 치면, 왜 이러한 공모 형식을 치러야 하는 걸까? 최근에 열렸던 시카고 〈Prentice Hospital〉 현상설계의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았고, 해외 스타건축사 초청이 없었는데도 위와 유사한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 …중략…



Navy Pier competition entry by Marshall Brown Projects, Davis Brody Bond, Martha Schwartz Partners, and Halcrow Yolles. Courtesy Marshall Brown Projects

WTC 공모는 현상설계들이 어떻게 잘못된 것을 장려하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 건축사들을 모두 물리치고 앉은 한 건축사의 승리였다. 우승자와 패배자로 나누는 관념은 신자유주의의 전형이며, 특히나 선망하는 것이 같은 무리들이 확실성이 낮은 그 무엇을 원할 때 서로에게 반감을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이런 방식은 주요 현상공모의 팀들이 매우 높은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러 건축사들을 연합하게 하고 또 주요 협력사들과 합치는 방식으로 모양새를 부풀리는 모습으로 더욱 상황을 나쁘게 발전시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방식은 팀 내부에서 설계 주도권을 차지하여 만일 그들이 당선할 경우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가기 위한 경쟁을 야기하게 된다. 결국은 조직의 수석 건축사가 매우 작은 신생 사무소와 작은 기관 발주용역이나 심지어 미술관 임시 설치 조형물을 두고 경쟁하는 모양새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 공모는 언론의 관심에 대한 희망이나 더욱 크고 많은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믿고 쫓는 중간 규모의 사무소에게 불가피한 지출을 하게 만들게 하는 원흉이다.

나는 작년 시카고에서 열린 현상공모의 초청을 거절했으나 지루하게 지켜본 참관자였다. 이런 불행한 세대 전쟁 같은 공모 형식은 새로운 목소리들이 필드로 들어오는 것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어 혁신을 억누른다.

영웅적인 신화는 잊혔다, 우리는 반드시 공모의 최고안인 당선작과 동시에 그 이외의 참여작들도 인식해야 한다. 최근 공모전 역사의 성향은 이 공모가 치러지기 훨씬 이전부터 오랜 시간동안 이론을 발전시켜 온 결과물들의 경쟁이었다. James Corner(James Corner Field Operations)는 Fresh Kills와 High Line 공모에서 당선되기 이전부터 당선작들에 보이는 주요점들을 연구하고, 드로잉을 만들고 글로 정리하여 「Taking Measures Across the American Landscape」(1996)라는 책을 펴내었었다. Bernard Tschumi는 그 유명한 La Villette 이전 Manhattan Transcripts(1976~81)를 만들어 냈으며, Rem Koolhaas는 「Delirious New York」(1978)를 펴내며 그의 이야기를 알렸다.

다행히 우리 모두를 위해, 오늘날의 신진 스튜디오 사무실들은 훌륭한 작품들의 생산과 출판을 위한 기관과의 리소스 네트워크(대학, 갤러리, 상호 심사가 가능한 출판 기관과 지원금 등)를 가지고 있다(미국의 경우). 경쟁 공모와는 달리 이러한 창의적이고 학구적인 프로그램들은 핵심 원칙을 공유하며, 서로 협력을 구축하고 상호 지원을 한다. 이 길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공모에 참가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우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건축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다.

내가 New York Times 인터뷰에서 Thom Mayne에게 건축 현상설계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의 대답은 "당신이 어떻게 이 시스템을 대체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였다. 오래된 중독은 끊기 어렵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는 새로 태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간으로 초청을 한다. 그 치료법은 너무나 간단명료하다. 현상설계 세계로부터 가급적 빨리,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빠져 나와야 한다.

위에 옮긴 글은 일부 어조가 다소 강하며 주관적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현실 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에서 쓴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 우리 건축계에서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논점이 있음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 첫째, 우리 건축사의 창작물에 대한 스스로의 자존심과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점. 둘째,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공모 방식은 우리의 전문 작업 존엄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사용자 시선에 맞추어 발전되어 온 방식이라는 점. 셋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현상설계는 너무나 당연히, 하지만 일반 수주 방식에서도 만연해 있는… 언급하기도 부끄럽다.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과당 덤핑 경쟁…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 미만 캐러멜도 그 원가 미만으로는 팔지 않는다. 이러한 소모적 경쟁은 모두가 존립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갈 수밖에 없다. 소모적인 경쟁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며 스스로의 원칙을 만들어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 윗글의 일부는 Architect's News Paper의 기사에서 발췌 · 인용하였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4년 3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311	6,311	78	156	7	21	6,396	6,488	1,803	1,803	232	464	59	177	26	104	15	103	2,135	2,651	8,531	9,139
서울	973	973	21	42	0	0	994	1,015	902	902	122	244	39	117	12	48	11	67	1,086	1,378	2,080	2,393
부산	555	555	9	18	2	6	566	579	110	110	30	60	3	9	2	8	1	7	146	194	712	773
대구	540	540	15	30	4	12	559	582	71	71	13	26	3	9	3	12	0	0	90	118	649	700
인천	299	299	3	6	0	0	302	305	63	63	7	14	1	3	0	0	0	0	71	80	373	385
광주	232	232	1	2	0	0	233	234	49	49	5	10	2	6	3	12	0	0	59	77	292	311
대전	271	271	5	10	0	0	276	281	35	35	9	18	3	9	1	4	1	14	49	80	325	361
울산	203	203	4	8	0	0	207	211	22	22	3	6	0	0	0	0	0	0	25	28	232	239
경기	883	883	2	4	0	0	885	887	263	263	13	26	6	18	1	4	0	0	283	311	1,168	1,198
강원	202	202	2	4	0	0	204	206	27	27	2	4	0	0	1	4	0	0	30	35	234	241
충북	233	233	2	4	0	0	235	237	43	43	4	8	2	6	2	8	1	9	52	74	287	311
충남	309	309	1	2	0	0	310	311	62	62	8	16	0	0	1	4	0	0	71	82	381	393
전북	280	280	5	10	0	0	285	290	30	30	4	8	0	0	0	0	0	0	34	38	319	328
전남	219	219	0	0	0	0	219	219	24	24	1	2	0	0	0	0	1	6	26	32	245	251
경북	443	443	4	8	1	3	448	454	44	44	5	10	0	0	0	0	0	0	49	54	497	508
경남	517	517	4	8	0	0	521	525	40	40	4	8	0	0	0	0	0	0	44	48	565	573
제주	152	152	0	0	0	0	152	152	18	18	2	4	0	0	0	0	0	0	20	22	172	174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건축사	비율
합계	9,139	100%
서울	2,393	26.18%
부산	773	8.46%
대구	700	7.66%
인천	385	4.21%
광주	311	3.40%
대전	361	3.95%
울산	239	2.62%
경기	1,198	13.11%
강원	241	2.64%
충북	311	3.40%
충남	393	4.30%
전북	328	3.59%
전남	251	2.75%
경북	508	5.56%
경남	573	6.27%
제주	174	1.90%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4년 4월중순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2,339	2,825
서울	3,903	1,885
부산	770	114
대구	681	76
인천	381	7
광주	300	57
대전	361	48
울산	235	33
경기	1,442	118
강원	259	20
충북	325	71
충남	383	73
전북	334	30
전남	277	66
경북	489	30
경남	607	56
제주	178	41
기타	1,414	100
비고	회원 : 8,984 / 비회원 : 3,355	대학 : 2,584 / 대학원 : 241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488	2,651	9,139	
비율	70.99%	29.01%	100%	
사무소수	6,396	2,135	8,531	
비율	74.97%	25.03%	100%	